2003/02/19 07:39:42

문학박사학위논문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200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박 진 호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지도교수 이 익 섭

이 논문을 문학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박 진 호

박진호의 문학 박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12월

위 원 장 ______________________

부위원장 __________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______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초록>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박 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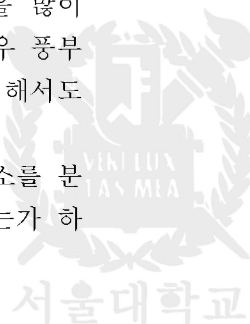
본고는 한국어 통사론 논의의 정교화라는 큰 목표를 염두에 둔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 동사와 문법 요소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사와 결합되는 문법요소들 중 특히 보조용언과 연결어미에 초점을 맞춘다.

2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통사론 연구 및 한국어에 대한 통사 기술이 지녔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취해야 할 연구의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이는 동시에 본 연구가 어떤 이론적 의의를 지닐 수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된다. 기존의 통사 기술은 통사 범주, 통사 관계, 결합 제약 등 여러 면에서 거친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을 정교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통사 기술에 있어서 구조뿐 아니라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여러 언어의 관련 현상들을 폭넓게 관찰하는 유형론적 관점이 유용하다.

3장에서는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말뭉치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이 결합 양상 및 보조용언의 기능에 대해 유형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다. 특정 보조용언 앞에 어떤 동사들이 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동사들이 자주 출현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말뭉치에서의 절대 빈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출현 빈도의 통계적 의의를 산출하여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 흥미로운 제약을 많이 보여 주는 보조용언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러한 보조용언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직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 제약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동사와 어미 사이의 결합 제약에 대해 3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어미들 중에서도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 흥미로운 제약을 많이 보여 주는 연결어미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한국어는 또한 연결어미가 매우 풍부하게 발달한 언어로서 유형론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5장에서는 말뭉치에서의 결합의 빈도를 바탕으로 하여 동사와 문법요소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 본다. 어떠어떠한 보조용언 및 어미들과 자주 결합하는가 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는 기준에 입각하여 동사들을 분류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동사들과 자주 결합하는가 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보조용언 및 어미들을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군집 분석이라는 다변량 통계 기법을 사용한다.

6장에서는 본고의 논의가 지니는 한계 및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의 이러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결합 제약, 보조용언, 연결어미, 말뭉치, 빈도, 유형론, 상

학번: 94101-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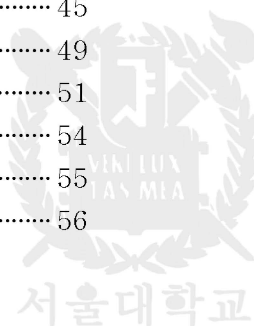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 목 차 >

1. 서론 ························· 1

2. 문제 제기 및 이론적 전제 ························· 3
2.1. 통사 기술의 정교화 ························· 3
2.1.1. 통사 범주 ························· 4
2.1.2. 통사적 관계 ························· 6
2.1.3. 결합 제약 ························· 9
2.2. 통사론, 어휘론, 어휘문법 ························· 10
2.3. 빈도 ························· 10
2.4. 구조와 기능, 통사와 의미 ························· 12
2.5. 유형론적 접근 ························· 16
2.6. 설명과 이해 ························· 17

3.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양상 ························· 20
3.1. 조사 대상 말뭉치의 개요 ························· 20
3.2. 보조용언의 결합 제약의 정도 ························· 24
3.2.1. 보조용언의 일반적인 빈도 분포 ························· 24
3.2.2. 결합 제약의 계량화 방법 ························· 25
3.3. '-아/어 있-'의 결합 양상 ························· 31
3.3.1. '-아/어 있-'과 결합하는 동사의 빈도 분포 ························· 31
3.3.2. '-아/어 있-'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 ························· 34
3.3.3. '-아/어 있-'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 ························· 38
3.3.4. '-아/어 있-'의 상적 의미: 결과상 ························· 41
3.3.5. 정태상의 '-아/어 있-' ························· 44
3.4. '-고 있-'의 결합 양상 ························· 45
3.4.1. '-고 있-'과 결합하는 동사 ························· 45
3.4.2. '-고 있-'의 상적 의미 1: 결과상 ························· 49
3.4.3. '-고 있-'의 상적 의미 2: 진행상 대 연속상 ························· 51
3.4.4. '-고 있-'의 상적 의미 3: 정태상 ························· 54
3.4.5. '-고 있-'의 상적 의미 4: 반복상 ························· 55
3.4.6. '-고 있-'의 상적 의미와 결합 제약 ························· 56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5. '-아/어 버리-'의 결합 양상 ········ 61
3.5.1. '-아/어 버리-'와 결합하는 동사 ········ 61
3.5.2. '-아/어 버리-'의 의미 ········ 65
3.6. '-아/어 내-'의 결합 양상 ········ 67
3.7. '-아/어 놓-'의 결합 양상 ········ 70
3.8. '-아/어 두-'의 결합 양상 ········ 73
3.9. '-아/어 대-'의 결합 양상 ········ 78
3.10. '-아/어 나가-'의 결합 양상 ········ 81
3.11. '-아/어지-'의 결합 양상 ········ 83

4. 동사와 어미의 결합 양상 ········ 88
4.1. 말뭉치에서 어미의 사용 양상 ········ 88
4.2. '-어다가'의 결합 양상 ········ 91
4.3. '-러'의 결합 양상 ········ 94
4.4. '-을수록'의 결합 양상 ········ 97
4.5. '-느라'의 결합 양상 ········ 99
4.6. '-고자'의 결합 양상 ········ 102
4.7. '-고서'의 결합 양상 ········ 105
4.8.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절 접속의 특징 ········ 108

5. 결합 특성에 따른 동사와 문법요소의 분류 ········ 114
5.1. 동사의 분류 ········ 114
5.2. 보조용언과 어미의 분류 ········ 128

6. 결론 ········ 132

참고문헌 134
Abstract 142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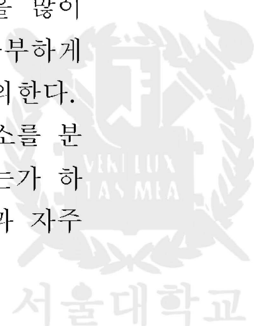
본고는 한국어 통사론 논의의 정교화라는 큰 목표를 염두에 둔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 동사와 문법 요소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사와 결합되는 문법요소들 중 특히 보조용언과 연결어미에 초점을 맞춘다.

2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통사론 연구 및 한국어에 대한 통사 기술이 지녔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취해야 할 연구의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이는 동시에 본 연구가 어떤 이론적 의의를 지닐 수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된다. 기존의 통사 기술은 통사 범주, 통사 관계, 결합 제약 등 여러 면에서 거친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을 정교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통사 기술에 있어서 구조뿐 아니라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여러 언어의 관련 현상들을 폭넓게 관찰하는 유형론적 관점이 유용하다. 또한 '문법적/비문법적'이라는 2분법적 기술에서 벗어나 정밀한 통사 기술을 행하기 위해서는 말뭉치를 이용한 계량적 연구가 필요하다.

3장에서는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말뭉치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이 결합 양상 및 보조용언의 기능에 대해 유형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다. 특정 보조용언 앞에 어떤 동사들이 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동사들이 자주 출현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말뭉치에서의 절대 빈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출현 빈도의 통계적 의의를 산출하여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 흥미로운 제약을 많이 보여 주는 보조용언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러한 보조용언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직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 제약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보조용언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상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상에 대한 최근의 유형론적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어 보조용언의 상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자 시도한다.

4장에서는 동사와 어미 사이의 결합 제약에 대해 3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어미들 중에서도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 흥미로운 제약을 많이 보여 주는 연결어미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한국어는 연결어미가 매우 풍부하게 발달한 언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를 유형론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5장에서는 말뭉치에서의 결합의 빈도를 바탕으로 하여 동사와 문법요소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 본다. 어떠어떠한 보조용언 및 어미들과 자주 결합하는가 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동사들을 분류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동사들과 자주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결합하는가 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보조용언 및 어미들을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군집 분석이라는 다변량 통계 기법을 사용한다.

6장에서는 본고의 논의가 지니는 한계 및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의 이러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 문제 제기 및 이론적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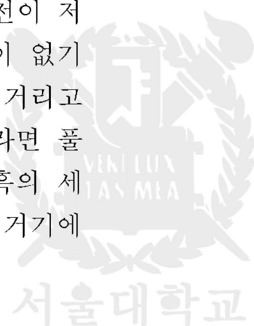
2.1. 통사 기술의 정교화

Jackendoff(1990)의 서문에서, 지금까지의 통사론 연구가 대개 거친 통사론(coarse-grained syntax)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통사론 연구가 정교한 통사론(fine-grained syntax)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즉, 1950년대 후반부터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생성문법 이론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론의 큰 틀이 계속 바뀌어 왔지만, 그와 비교해서 언어 현상 자체를 넓고 깊게 관찰하고 치밀하게 기술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다. Jackendoff의 이러한 지적은 주로 미국의 생성문법 학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도 상당 부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술이라고 생각된다.

기존 통사론 연구가 거시적이고 거친 상태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통사론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개별적인 단어의 쓰임을 세세하게 관찰하여 미세한 차이를 들춰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의미의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되며, 말뭉치와 같은 실제 자료 속에서 이런저런 잡동사니들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본래의 이론적 문제 의식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헤매게 될 수도 있다. 전체적인 이론적 틀의 깔끔함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이런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생성문법 학자들도 점차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듯이, 통사적 현상의 상당 부분은 자율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어가 지니고 있는 어휘 의미(lexical meaning)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통사 이론이 한 단계 더 비약하기 위해서는 통사와 의미의 관련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의미론 연구가 통사론 연구에 비해 이론적 정밀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통사론 연구자들이 의미의 세계에 뛰어들 용기가 잘 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Jackendoff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잃어버린 동전이 저 어두운 풀숲에 떨어져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거기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가로등 밑에서만 서성거리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Jackendoff가 제안하듯이 용기 있는 연구자라면 풀숲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나서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의미론이 마냥 암흑의 세계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몇몇 괄목할 만한 의미론 연구는 거기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뛰어들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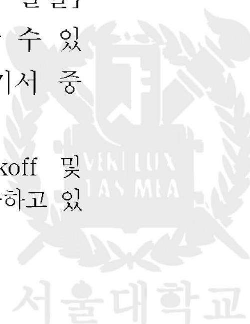
2.1.1. 통사 범주

통사 기술 내지 통사론 논의를 통사 범주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뿌리내려 있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어떤 단어들은 일정한 통사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이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모두 이런 특성을 지닌다고 진술하는 것은 학문의 기초적 사항일 것이다.

통사론이 통사 범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이지만, 기존의 통사 범주 이론은 매우 거친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전통문법의 품사론 논의, 그것도 서구 언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 품사론이 깊은 반성 없이 너무나 오랫동안 인습처럼 학자들에게 작용하여 하나의 선입견처럼 굳어져 있다. 전통문법의 품사론이 그처럼 오랫동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많은 진실이 담겨 있고 그것이 하나의 훌륭한 이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통문법의 품사론의 바탕이 되고 검증 자료가 되었던 서구 언어들과 많은 차이가 있는 언어에 적용되었을 때에는 큰 틀에서조차 변화가 없을 수 없다.

한국어에서만 보아도 기존의 품사론에서 설정되어 온 대부류(major class)들 중 어느 하나에 소속시키기가 껄끄러운 단어들이 매우 많이 있다. '간이, 거대, 과대, 과밀, 국제, 단일' 등의 단어들은 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점에서 명사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지 못하지만, '국제 [여자 마라톤 대회]' 같은 예에서 보듯이 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단어의 자격은 갖는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류 중 어디에도 소속시키기가 쉽지 않다. '-적(的)'은 흔히 파생접미사로 간주되고 있지만, '[통사 범주와 형태 범주의 중간 범주]적 성격' 같은 예를 보면 통사적으로 복합적인 표현, 즉 句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접사로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의존명사, 조사 등 다른 어떤 범주에도 넣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친구 문병]차 들르다'의 '차(次)', '[틀린 데]투성이'의 '투성이', '[10월 말일]께'의 '께' 등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것들은 의존명사로 처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조사로, 어떤 것들은 파생접사로 처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

1) 필자는 Wierzbicka의 의미 원소 이론, Mel'čuk의 의미 정의의 이론, Lakoff 및 Langacker가 주도하고 있는 인지 의미론 연구 등을 그런 의미 이론의 예로 평가하고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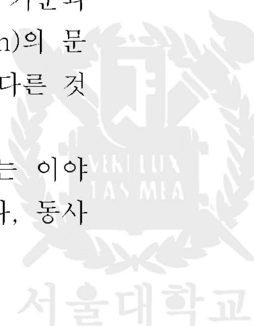
요한 것은 이들을 어떤 범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처리해도 깔끔한 처리는 못 된다는 점이다. '맨'의 경우 '맨주먹', '맨손', '맨발' 같은 예를 보면 접두사인 것 같지만 '맨 [시멘트 바닥]' 같은 예를 보면 구와 결합하기 때문에 관형사처럼 보이기도 한다. '정약용 저', '[역사를 지키는 모임] 편'의 '저'나 '편' 같은 요소도 우리의 품사론적 상식으로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의존명사·조사·접미사의 언저리에서 어느 쪽에도 깔끔하게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것들, 관형사·접두사의 경계선에서 아리송한 행동을 보이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문제성이 있는 것들을 기존의 방식대로 어느 한 범주에 소속시켜 버리는 것은 정밀한 통사 기술이라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여러 기준들을 함께 고려하여 어떠어떠한 것들이 어떤 속성을 공유하는지를 치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① 앞에 명사가 올 수 있는가?
② 앞에 명사구가 올 수 있는가?
③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올 수 있는가?
④ 앞에 용언의 명사형이 올 수 있는가?
⑤ 앞에 수관형사 이외의 관형사가 올 수 있는가?
⑥ 앞에 수량 표현(수관형사, 아라비아 숫자 등)이 올 수 있는가?
⑦ 앞에 어근이 올 수 있는가?
⑧ 앞에 휴지를 둘 수 있는가?
⑨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는가?

기존 품사론의 대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범주 내의 모든 구성원이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서 보조사로 통칭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조사들끼리의 결합 관계, 조사 결합체 내에서의 서열만 고려하더라도 최소 세 종류(임홍빈, 송철의 1998), 또는 5 종류(목정수 1998)까지 하위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격조사-보조사 구분은 여러 측면에서 타당한 근거를 갖지만 이 두 범주를 서로 구분시켜 주는 기준과 조사 결합체 내에서의 서열이라는 기준은 교차 분류(cross-classification)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격조사 중에서도 조사 결합체 내에서의 서열이 서로 다른 것이 있고 보조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사나 동사 같은 그야말로 대부류(major class)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명사를 보통명사·고유명사, 자립명사·의존명사 등으로 분류하거나, 동사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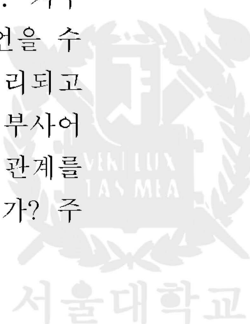
를 자동사·타동사 등으로 분류하는 하위분류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하위부류 내에서의 추가적인 하위분류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그런 분류는 분류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서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교차 분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통사론 논의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한국어의 각 품사들을 이렇게도 분류해 보고 저렇게도 분류해 보고, 하위부류의 하위부류로, 거기서 또 하위부류로 계속 세분해 들어가는 식의 연구는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 본 연구는 어미나 보조용언과의 결합 양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한국어의 동사들을 분류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혹자는 "그런 식으로 하위부류들을 계속 세분해 나가다 보면, 모든 단어들은 각각 자기 고유의 특징이 있고 어떤 두 단어도 통사적 특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부류가 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본고는 결국 통사 분석의 깊이가 그와 비슷한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통사적 특성이 완전히 똑같은 단어는 없겠지만 특성이 매우 비슷한 몇 개의 단어들이 매우 작은 부류를 형성하고, 그런 소부류 몇 개가 모여서 조금 더 큰 부류를 형성하는 식으로, 통사 범주의 이론은 그런 위계적인(hierarchical) 구조를 발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통사 범주 이론은 이 위계 구조의 맨 위 일부만 밝혀 놓은 상태이다.

2.1.2. 통사적 관계

통사 범주에 대해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통사적 관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기존의 통사론 연구는 전통 문법에서 설정한 통사적 관계의 목록에서 거의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같은 통사 관계의 명칭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 애용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니기 때문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의를 정교화할 여지가 많이 있다.

우선 기존의 통사 관계 어느 하나에 소속시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 '겨우 500원', '바로 여기', '맨 처음', 'exactly three o'clock' 같은 예에서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겨우', '바로', '맨', 'exactly' 같은 요소들은 흔히 부사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럼 이들 부사는 피수식 체언에 대해 관형어의 자격을 갖는가, 부사어의 자격을 갖는가? '생선은 도미가 맛있다'에서 '생선은'은 어떤 요소와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의 성격은 무엇인가? 주어인가? 주어라면 무엇의 주어인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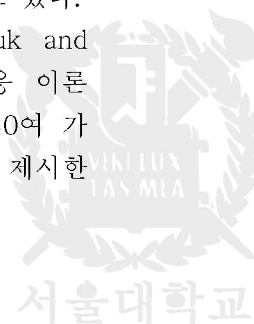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어가 아니라면 부사어인가? 주제라고 답하는 것은 다른 층위의 개념을 끌어들임으로써 논의에 혼란을 더 가져오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관형절의 경우 관계절과 보문으로 2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서 '때'를 수식하는 관형절은 관계절인가 보문인가? 영문법에 경도된 사람들은 이런 문장이 영어에서는 관계 부사를 사용하여 표현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에 내가 그곳에 도착했다'와 같이 head noun이 관형절 내의 하나의 문장 성분에 대응하기 때문에 관계절이라고 답할 듯하지만, '때'라는 명사가 관형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앞의 관형절은 핵 명사인 '때'를 보충해 주는 보문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통사 관계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내부에서도 많은 이질적인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 '나는 가을이 좋다' 같은 심리 형용사 구문의 경험주 논항은 선어말어미 '-시-'와의 일치, 주어 지향적인(subject-oriented) 재귀사를 결속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주어로 처리될 수 있지만. 격표지 '-이/가'와의 결합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제약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주어와는 차이가 있다. 이 밖에도 주어를 더 하위분류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중주어문의 대주어와 같이 논항의 전수 현상에 의해 형성된 주어는, 용언이 어휘적 의미에 의해 본래적으로 요구하는 주어와는 차이가 있다. 동작주성(agentivity)를 갖는 주어는 재귀사 결속이나 통제(control) 같은 현상에 있어 동작주성을 갖지 않는 주어와는 상이한 행동을 보인다. 목적어의 경우에도 논항의 전수에 의해 목적어의 지위를 갖게 된 것과 동사가 본래적으로 요구하는 목적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벽을 뚫다'의 '벽을'처럼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affected object와 '구멍을 뚫다'의 '구멍을'처럼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로 인해 새로이 창조되는 effected object를 구분할 수도 있다. 관형어의 경우에도 '조폭 마누라'가 "조폭의 마누라" 또는 "조폭인 마누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보면 하위분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사어의 경우 '치열하게 싸우다'의 '치열하게'는 싸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나타내는 데 반해 '꽃이 예쁘게 피다'의 '예쁘게'처럼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종결된 뒤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통사 관계를 세분하려는 시도로, 영어의 경우 Mel'čuk and Pertsov(1987)을 특기할 만하다. 이것은 Mel'čuk의 의미-텍스트 대응 이론(Meaning-Text Theory)에 입각해서 현대 영어의 표면 통사 관계를 40여 가지로 세분하고 각각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한 연구이다. 참고로 여기서 제시한 표면 통사 관계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Ⅰ. Subordinate SSyntRel's (=Surface Syntactic Relations)
- A. Sentential SSyntRel's
  - *1.* Valence-controlled SSyntRel's
    - \- Actantial SSyntRel's
    - 1. Predicative
    - 2. Completive (1st, 2nd, 3rd, 4th completive)
    - 3. Agentive
    - \- Absolute SSyntRel's
    - 4. Absolute-predicative
    - \- Copredicative SSyntRel's
    - 5. Subjective-copredicative
    - 6. Pronominal-subjective-copredicative
    - 7. Objective-copredicative
    - \- Comparative SSyntRel's
    - 8. Comparative
  - *2.* Adverbial SSyntRel's
    - 9. Adverbial
    - 10. Modificative-adverbial
    - 11. Appositive-adverbial
    - 12. Attributive-adverbial
    - 13. Parenthetical
    - 14. Adjunctive
- B. Phrasal SSyntRel's
  - *1.* General
    - 15. Restrictive
  - *2.* Verb phrase
    - 16. Auxiliary
  - *3.* Word-like phrases
    - 17. Phrasal-junctive
    - 18. Numeral-junctive
    - 19. Binary-junctive
    - 20. Colligative
  - *4.* Expletive phrases
    - 21. Expletive
  - *5.* Conjunctional phrases
    - 22. Subordinate-conjunctional
    - 23. Coordinate-conjunctional
    - 24. Predicative-conjunctional
    - 25. Completive-conjunctional
    - 26. Absolute-conjunctional
  - *6.* Noun phrase
    - 27. Prepositional
    - 28. Determinative
    - 29. Quantitative
    - 30. Modificativ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1. Descriptive-modificative
32. Possessive
33. Compositive
34. Elective
35. Appositive
36. Descriptive-appositive
37. Sequential
38. Attributive
39. Descriptive-attributive

Ⅱ. Coordinate SSyntR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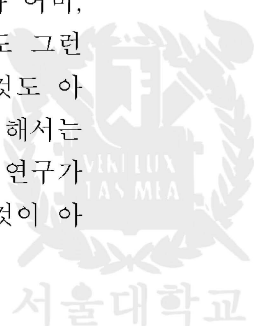
40. Coordinative

영어에 대해 설정한 각각의 통사 관계들을 살펴보면 한국어에 대해서도 설정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40개 이상의 하위분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2.1.3. 결합 제약

통사론은 기본적으로 결합 제약에 대한 학문이다. 무엇과 무엇은 결합할 수 있고 무엇과 무엇은 결합할 수 없다는 식의 진술이 통사론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된다', '어미는 용언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뒤에 결합된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과 결합된다', '보조용언은 보조적 연결어미를 매개로 해서 용언 뒤에 결합된다'는 식의 진술이 통사 기술의 핵심을 이룬다.

그런데 과거의 통사 기술에서는 이런 결합 제약에 대한 진술이 매우 거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데 그쳤다. 앞에서 말한 거친 수준의 통사 범주와 거친 수준의 통사 관계만을 사용해서 거친 수준의 결합 제약만 진술하는 데 그친 것이다. 한국어에서 용언이 어미와 결합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모든 용언이 모든 어미와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용언이 모든 보조용언 구성과 결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어에 대한 통사 기술이 좀 더 완전해지려면 이런 세밀한 수준에서의 제약까지도 기술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동사와 어미, 동사와 보조용언 사이의 결합 제약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체언의 경우도 그런 제약이 있어서 개별 단어에 따라서는 모든 조사와 다 결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종류의 관형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의존명사에 대해서는 그런 제약이 어느 정도 연구된 바 있지만, 자립 명사에 대해서도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사적 성분도 모든 용언을 다 수식할 수 있는 것이 아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니라 특정 의미 속성을 지닌 용언과만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는 동사와 어미, 동사와 보조용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결합의 제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통사 기술의 한 측면을 정교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통사론, 어휘론, 어휘문법

통사 기술이 여러 측면에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는 본고의 주장에 대해, 혹자는 "그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의 개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통사론 내지 문법의 영역이 아니라 어휘론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 그런 단어 개별적인 특성은 통사론 연구자의 몫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한 본고의 입장은, 통사론의 소관임이 분명한 영역도 있고 어휘론의 소관임이 분명한 영역도 있지만, 이 둘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영역이 있으며, 통사 기술을 정교화하다 보면 그런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언어 현상을, 기억되는 것(memory)과 연산(computation)에 의해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2분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그것이 진리의 일면을 담고 있고 언어 이론의 발전에 하나의 밑받침이 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억되는 것은 어휘부로 돌리고, 규칙부(그것이 통사 규칙이든 음운 규칙이든)에서는 인간이 문장을 형성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발화할 때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지를 탐구한다는 식으로 분업을 하게끔 언어 이론을 구성해 왔다. 그러나 점차 그 둘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부분적으로 기억되면서 부분적으로 연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연산을 할 때, 어떤 규칙을 적용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산, 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단어의 의미, 그 단어의 개별적 특성이 규칙 적용 방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에서 바로 이러한 주장들을 펴고 있으며, 프랑스의 Maurice Gross로 대표되는 이른바 어휘문법(lexico-grammar)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전제 아래 통사론 연구 및 통사 기술을 행해 오고 있다. 본고도 이런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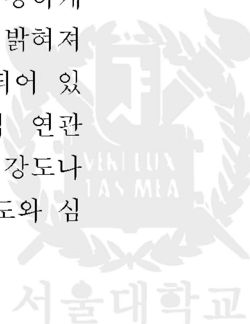
2.3. 빈도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결합 제약에 대한 기존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무엇과 무엇은 결합할 수 있고 무엇과 무엇은 결합할 수 없다는 식의 2분법적인 진술에 그쳤다는 것이다. 결합 가능한 것들 중에서도 더 자주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결합 가능하기는 해도 매우 드물게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빈도상의 차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Chomsky의 이른 시기의 언명 이후로 생성문법 학계에서는 빈도라는 것이 언어 이론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설사 빈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 학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런 빈도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 빈도가 언어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많은 학자들이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 형태론 내지 어휘부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인식이 먼저 싹텄다. 파생접사들의 생산성이라는 개념은 빈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형태론 학자들은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다. 생산적인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접사를 포함한 단어는 유형 빈도(type frequency)가 매우 높으며, 특히 새로 만들어진 단어의 경우 말뭉치에 단 한 번만 출현하는 것들(hapax legomena)이 많다. 그 단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언중들에게 온전한 등재소(listeme)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접사를 가진 단어들의 빈도 분포를 그래프로 그리면 매우 넓게 퍼져 있는 모양이 된다. 반면에 생산성이 낮은 접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단어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유형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의 단어들이 이미 만들어진 지 꽤 오래 되어서 각 단어의 빈도는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말뭉치에 단 한 번 출현하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접사를 가진 단어들의 빈도 분포를 그래프로 그리면 상대적으로 덜 퍼져 있는 모양이 된다(Baayen 2001, 강범모·차준경 1996).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빈도 조사가 파생접사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굴절 패러다임이 평준화(leveling)를 겪을 때 어떤 굴절형으로 단일화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은 굴절형이 화자들에게 가장 강하게 인식되고 따라서 이런 굴절형 쪽으로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Bybee 1985). Bybee(1988)의 어휘부 모형에서는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는 각 단어의 어휘 강도(lexical strength)와 단어들 사이의 어휘적 연관(lexical connec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인데, 각 단어의 어휘 강도나 단어들 사이의 어휘적 연관의 강도 모두 빈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빈도와 심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리적 현저성(psychological prominence)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많은 심리언어학적 연구들도 있다. 최근에는 음운론이나 통사론에서도 빈도가 음운 구조, 통사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Bybee 2001, Bybee and Hopper (ed.) 2001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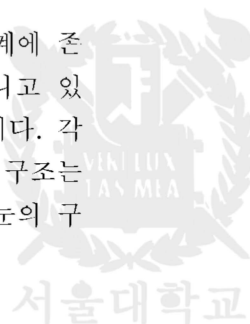
때마침 빈도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빈도 조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여러 언어에서 대규모의 말뭉치가 구축되고 있고, 원시 말뭉치(raw corpus)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첨가한 주석 말뭉치(annotated corpus)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말뭉치를 이용하여 언어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이론적 전제와 연구 여건을 바탕에 깔고서, 한국어 동사와 어미의 결합 양상,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양상에 대해, 단순히 어떤 것은 결합 가능하고 어떤 것은 결합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뭉치에서 어떤 결합 양상은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고 어떤 결합 양상은 얼마나 드물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빈도 패턴에 대한 조사는 이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자연언어처리 등의 응용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합 제약의 문제를 가능과 불가능의 2분법적인 문제로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다. 수십 년 동안의 생성문법 연구에서 명백하게 밝혀졌듯이, 누구나 다 비문이라고 판단하는 문장도 있고 누구나 다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문장도 있지만, 비문인지 정문인지 알쏭달쏭한 문장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실제로 어떤 동사와 어떤 보조용언의 결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스스로 물어 보면, 가능한 것도 같고 불가능한 것도 같은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이 있다. 여기에도 뚜렷한 경계선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도 유효하고 진실에도 더 부합된 처리일 것이다.

2.4. 구조와 기능, 통사와 의미

인간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제작한 인공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도 생물체의 어떤 부위는 고도의 정교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눈[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각막과 수정체, 망막, 그리고 망막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 등, 눈의 내부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 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눈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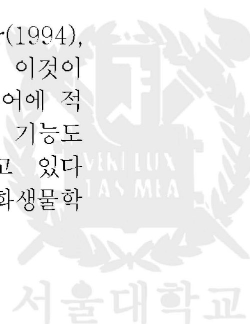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조에 대해 매우 정밀한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정밀하게 기술했다고 치자. 이 연구는 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얼마나 깊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진정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눈의 구조를 자세하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눈의 이러이러한 구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눈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은 그저 눈 연구자들에게 미학적인 쾌감을 주기 위해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눈은 생물체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물체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발달시킨 감각 기관 중 하나로서, 빛의 반사와 전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부 세계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장치인 것이다. 아주 먼 옛날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장치, 한 가설에 따르면 외부의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 조직의 일부가 눈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초보적인 수준의 기관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엄청나게 정교한 구조로 발달하게 된 것은 순전히 생명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adaptation), 환경에 잘 적응한 자의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는 기제에 의해 진화된 것이다.[2] 요컨대, 인공물은 물론이려니와 생명체가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갖게 된 기관이나 능력(faculty)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기능을 긴밀하게 관련지어서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기관은 생물체의 생존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달된 것으로서 그 기능을 더 잘 수행하는 쪽으로 진화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식으로 기술을 해야 그 기관에 대한 온전한 기술이 되는 것이다.

언어는 인간이 지닌 여러 능력 중 어느 것 못지않게 고도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시켜 온 진화의 산물이다. 언어가 그토록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언어학자들의 미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오랜 진화의 기간 동안 언어가 인간의 생존에 보탬이 되는 어떤 기능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진정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언어 구조와 언어 기능을 서로 밀접히 관련

2)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약간의 논란이 있다. Pinker and Bloom(1990), Pinker(1994), Hurford(1990) 등에서는 언어가 적응(adaptation)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대다수 진화생물학자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S. J. Gould의 exaptation 개념을 언어에 적용하여 언어가 의사소통 외의 다른 기능을 위해 발달되었다가 나중에 의사소통의 기능도 일종의 부산물로서 갖게 되었다는 식의 주장도 생성문법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Uriagereka 1998, Chomsky 1988, Piattelli-Palmerini 1989). 본고에서는 진화생물학자들의 통설을 따른다.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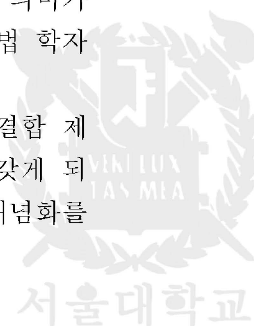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시켜서 연구해야 한다. 기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 구조의 복잡성만 강조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에 대한 반대 편향으로서 언어가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는 도구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언어가 그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떠어떠한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두 가지 편향 모두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의 학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기능만을 고려할 때, 언어가 이토록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언어 구조는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도의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적응이라는 진화론적 기제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생각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는 언어가 가진 어떤 복잡한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언어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언어의 복잡한 구조가 아무런 기능도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도대체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복잡한 구조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는 부담은 적응설을 믿지 않는 학자들에게 있지 적응설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구조와 기능의 문제를 조금 비틀어서 표현하면 통사와 의미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언어는 인간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발달시킨 도구인데, 정보를 타인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그 정보가 타인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잘 표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0미터 떨어진 곳에 사자가 있다는 정보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부족은 그렇지 못한 부족보다 생존에 유리할 것이고 자연선택에서 승자가 되었을 것이다. 언어가 세계를 직접 표상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를 잘 표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언어 기능의 핵심은 언어의 표상 능력, 즉 의미 작용(signification)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근저에는 그 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기능이 도사리고 있듯이, 통사 구조가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는 현상의 근저에는 의미가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구조에만 집착해 온 생성문법 학자들도 점차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동사와 어미의 결합 제약,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제약은 일종의 구조적 제약, 통사적 제약이다. 한국어는 왜 그런 제약을 갖게 되었을까?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세계와 그에 대한 우리의 개념화를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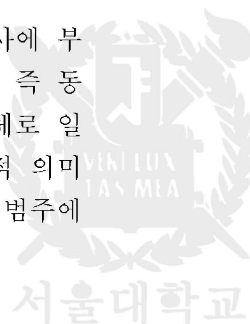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더 잘 표상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떤 사태들을 원활히 표상하고 그에 수반될지도 모르는 오해의 소지는 줄이는 방향으로 발달하다 보니 그런 구조적 제약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좀 더 언어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동사가 나타내는 어떤 의미는 어미나 보조용언이 나타내는 어떤 의미와는 잘 어울리고 어미나 보조용언이 나타내는 어떤 의미와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동사가 특정 어미, 특정 보조용언과는 잘 결합하고 어떤 어미, 보조용언과는 잘 결합하지 않는 경향성을 점차 지니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면 하나의 구조적 제약으로 굳어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경향성이 제약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연속적인 것이고, 동사와 어미,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양상도 그렇게 스펙트럼 상의 다양한 지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결합 제약이라는 구조적 양상을, 그 밑에 깔려 있는 의미와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조용언과 어미는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요소인가? 특히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 흥미로운 제약을 보이는 보조용언이나 어미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러한 결합 제약을 의미나 기능에 입각해서 설명 또는 이해할 수 있는가? 다른 여러 언어에서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요소들도 비슷한 제약을 보이는가? 본고에서 살펴볼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범언어적으로 동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기능적 범주로 상(aspect), 시제(tense), 서법(mood)이 흔히 거론된다. 상, 시제, 서법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꼭 동사에 붙어야 한다는 필연적 이유는 없지만, 세계 여러 언어에서 이들 범주와 관련된 요소들이 동사에 부착되어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평서문-의문문-명령문의 구분 같은 문장 유형(sentence type, 의향법, 문체법)도 동사 활용형에 의해 표현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한국어도 이런 범언어적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한국어에서는 이 외에도 청자 대우법(상대 높임법), 절 접속 및 내포 등의 기능까지 동사 활용형이 담당하고 있어서, 동사 활용형의 통사적 기능 부담량(functional load)이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Bybee(1985)에서 여러 언어를 자료로 하여 실증적으로 밝혔듯이, 동사에 부착되어 나타나는 여러 기능 범주들이 서로서로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가, 즉 동사에 얼마나 밀착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일정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즉 기능 범주의 의미가 동사의 어휘적 의미(lexical meaning)에 얼마나 관여적(relevant)인가 하는 것이 그 기능 범주에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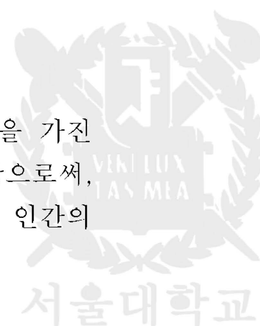
속하는 요소가 동사와 얼마나 밀접하게 나타나는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든, 한국어의 동사와 관련된 기능 범주들을 이 기준에 따라 배열해 보면 대체로 '상, 시제, 서법, 절 접속/문장 유형/청자 대우법'의 순서가 되는데, 이는 한국어의 동사 구조체(verbal complex) 내에서 이들 기능 범주에 속하는 요소가 출현하는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 즉, 상은 주로 보조용언 구성으로 실현되고, 시제나 서법은 주로 선어말어미 또는 '-을 것이-' 같은 迂說的 구성(periphrastic construction)으로 실현되고, 절 접속은 연결어미에 의해, 문장 유형과 청자 대우법 등은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동사 구조체 내지 절이 이러한 계층적인 구조(layered structure)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동사에 대한 관여성이 높은 기능 범주, 다시 말하면 동사와 밀접히 관련되는 기능 범주가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와의 거리가 먼 범주일수록, 다시 말해 동사와의 관여성이 낮을수록 그 기능 범주는 절 전체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동사와의 결합 제약 같은 것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문법화의 진척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 어휘 요소가 문법 요소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어휘 요소일 때 지니고 있던 결합 제약을 거의 그대로 지니다가, 문법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많은 요소들과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보조용언은 어미에 비해 문법화 정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즉, 어미로 발달해 가는 중간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미에 비해 보조용언이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 더 많은 제약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제나 서법, 문장 유형, 청자 대우법과 관련된 요소들은 문법화가 거의 완전히 완료된 요소들이고, 해당 범주의 성격상 거의 모든 동사와 결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어미는 본고의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절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는 연결어미들 중에는 동작주성(agentivity) 또는 상적 특정과 관련된 제약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동사와 보조용언, 동사와 어미의 결합 제약에 관심을 갖는 본고에서는 자연스럽게 주로 상 또는 동작주성과 관련된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2.5. 유형론적 접근

인간의 눈을 이용한 비유를 조금 더 진행해 보자. 인간의 눈에 관심을 가진 학자는, 인간의 눈뿐 아니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체의 눈도 관찰함으로써, 또는 카메라와 같이 눈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공물도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눈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다.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구조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두루 관찰하다 보면, 인간의 눈이 지닌 구조적 특징 중 어떤 것은 외부 세계를 본다는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이고 어떤 구조적 특징은 그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지는 않은 비본질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기능을 다양한 구조가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폭넓게 관찰하는 것 자체가 해당 기관의 구조와 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가 지닌 다양한 구성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 그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는 여러 언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절과 절을 접속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언어는 접속사를 사용하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동사의 활용형으로 절 접속을 나타낸다. 어떤 절이 어떤 명사를 수식함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언어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반면에, 어떤 언어에서는 수식절의 동사를 특정 활용형으로 함으로써 그 사실을 나타낸다.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가 시간축의 어떤 지점에서 발생했는가(또는 발생할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 동사에 활용형을 이용하는 언어가 많지만, 즉 시제 표지가 동사에 붙어서 나타나는 언어가 많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문두에 시제 particle을 사용하기도 한다. 의문문을 표시하기 위해서 평서문과 다른 어순을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 의문 particle을 문두나 문말에 두는 언어도 있고, 동사의 활용형을 사용하는 언어도 있다. 동사의 여러 논항들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case particle을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 어순을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 동사 일치(verbal agreement)를 사용하는 언어도 있다. 이렇게 어떤 기능을 여러 언어에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는가를 관찰하는 것 자체가 그 언어 기능과 구조의 관계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한국어의 보조용언과 어미는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가?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특별히 흥미로운 제약을 보이는 것들은 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인가? 그 기능을 다른 언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조를 사용하여 수행하는가? 한국어와 비슷한 구조를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제약이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보는 것 자체가 기능과 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해 주리라고 믿는다.

2.6. 설명과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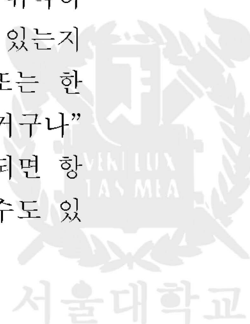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생성문법에서는 언어 현상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만으로 언어학자들의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 언어학이 좀 더 성숙한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현상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학 같은 성숙한 자연과학이나 수학 같은 엄밀한 학문을 학문의 전범으로 삼는 논리실증주의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런 성숙한 분과 학문에서는 설명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이 현 단계에서 그런 설명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학문인가?

이 문제는 과연 '설명(explanation)'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게 한다.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이론이나 학문적 진술이 설명력(explanatory power)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러 가지 요건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력(predictive power)일 것이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항상 이러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식의 인과적인 진술이 반복적으로 참인 것으로 밝혀질 때,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고리를 설득력 있게 완성했을 때, 그 이론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언어 이론이 설명력이 있는 이론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매우 미시적인 영역에서 설명력이 있는 듯이 보였던 이론들도 자료를 좀 더 폭넓게 관찰하다 보면 예외를 만나게 되고, 진정한 설명력은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어떤 이론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은 지니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언어학 이론이 수학이나 물리학의 이론이 성취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설명력을 획득하려고 시도하거나 그런 설명력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모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현 단계에서 언어 이론이 추구해야 할 것은, 섣부르고 오만하게 설명력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겸허하게 좀 더 나은 이해(understanding)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현상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항상 언어 현상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과감한 주장을 하기에는 언어학은 아직 기반이 취약하다. 언어 현상이 이러이러하게 나타나는 근저에는 어떠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찾아 보고, 그런 요인으로 추측되는 것 중 일부를 여러 언어에서, 또는 한 언어 내의 여러 구성에서 찾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 아주 겸허한 수준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런 요인이 충족되면 항상 언어 현상이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을지 모르지만, 그런 요인이 충족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일이 많이 있구나" 정도의 깨달음만으로도 현 단계의 언어학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의 이해가 더 나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료를 폭넓게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런 점에서도 여러 언어의 관련 현상을 두루 살펴보는 유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동사와 어미,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제약이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그런 결합 제약이 존재하는 원인이라고 추측되는 몇 가지를 찾아 보고, 그 원인이 다른 언어에서도 비슷한 제약을 낳는 일이 많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좀 더 나은 이해를 추구할 뿐이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양상

이 장에서는,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양상을 말뭉치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유형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다. 이에 앞서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말뭉치의 개략적인 사항 및 말뭉치에서 빈도를 추출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3.1. 조사 대상 말뭉치의 개요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삼은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 기초 자료 구축 분과에서 구축한 형태 분석 말뭉치(tagged corpus)로서 1999년 구축분 127개 텍스트 약 150만 어절, 2000년 구축분 81개 텍스트 약 200만 어절, 2001년 구축분 92개 텍스트 약 200만 어절, 총 300개 텍스트 약 55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이다. 말뭉치를 구성하는 텍스트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소설 등의 상상적 텍스트, 신문기사, 잡지, 인문사회과학 서적, 실용 서적 등 대부분 문어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3)]

전체 말뭉치의 정확한 어절 토큰의 수는 5,576,035개, 어절 타입의 수는 947,038개, 형태(morph) 토큰의 수는 11,882,633개, 형태 타입의 수는 184,918개이다. 어절의 타입-토큰 비율(type-token ratio)은 5.88, 형태의 타입-토큰 비율은 64.25이다. 즉 똑같은 어절(표면적인 문자열이 동일할 뿐 아니라 형태들의 구성까지 똑같은 어절)이 평균 약 6회 사용되었고, 똑같은 형태가 평균 약 64회 사용된 것이다.

어절 타입 중 최상위 빈도 50 가지, 형태 타입 중 최상위 빈도 50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	어절 타입	빈도
1	그/MM	39980
2	수/NNB	32716
3	이/MM	25739
4	것/NNB+이/VCP+다/EF+./SF	22172
5	있/VX+다/EF+./SF	16917
6	있/VX+는/ETM	16375

순위	형태 타입	빈도
1	./SF	421881
2	의/JKG	286329
3	ㄴ/ETM	273941
4	을/JKO	269540
5	다/EF	263609
6	이/VCP	239548

3) 말뭉치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들의 구체적인 목록은 21세기 세종계획 기초 자료 구축 분과의 보고서(김홍규, 강범모 외 1999, 2000, 2001)를 참고하기 바란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7	한/MM	15937
8	그러나/MAJ	13846
9	것/NNB+ 은/JX	13524
10	있/VV+ 는/ETM	13018
11	나/NP+ 는/JX	13018
12	있/VV+ 다/EF+ ./SF	12746
13	것/NNB+ 이/JKS	12573
14	대하/VV+ ㄴ/ETM	11666
15	같/VA+ 은/ETM	10044
16	또/MAJ	9688
17	등/NNB	9414
18	우리/NP	9357
19	그리고/MAJ	8996
20	그/NP+ 는/JX	8905
21	것/NNB+ 을/JKO	8699
22	있/VX+ 었/EP+ 다/EF+ ./SF	8601
23	없/VA+ 는/ETM	8032
24	더/MAG	7914
25	때/NNG	7841
26	하/VV+ 는/ETM	7739
27	나/NP+ 의/JKG	7694
28	다시/MAG	7152
29	것/NNB	7088
30	하/VX+ ㄴ다/EF+ ./SF	7048
31	하/VV+ ㄹ/ETM	6852
32	두/MM	6738
33	하/VV+ 고/EC	6577
34	것/NNB+ 으로/JKB	6500
35	위하/VV+ 아/EC	6487
36	그런/MM	6446
37	때문/NNB+ 에/JKB	6415
38	없/VA+ 다/EF+ ./SF	6218
39	그/NP+ 의/JKG	6196
40	이런/MM	5917
41	내/NP+ 가/JKS	5851
42	다른/MM	5748
43	어떤/MM	5742
44	잘/MAG	5738
45	//SP	5708
46	하/VX+ 았/EP+ 다/EF+ ./SF	5293
47	안/MAG	5250
48	함께/MAG	5216
49	아니/VCN+ 라/EC	5188
50	하/VV+ 았/EP+ 다/EF+ ./SF	5142

7	에/JKB	218159
8	이/JKS	186460
9	는/ETM	180017
10	고/EC	171614
11	는/JX	170689
12	,/SP	165248
13	를/JKO	153562
14	었/EP	139524
15	은/JX	136510
16	가/JKS	119742
17	것/NNB	115890
18	어/EC	115532
19	았/EP	115315
20	아/EC	106082
21	ㄹ/ETM	92452
22	도/JX	89421
23	들/XSN	85712
24	"/SS	81997
25	으로/JKB	81258
26	하/VV	74693
27	에서/JKB	74001
28	있/VX	69197
29	있/VV	66178
30	게/EC	65144
31	로/JKB	59181
32	'/SS	53825
33	)/SS	52853
34	은/ETM	52671
35	ㄴ다/EF	52373
36	(/SS	51758
37	기/ETN	51491
38	지/EC	50938
39	그/MM	46232
40	하/VX	44436
41	수/NNB	42169
42	없/VA	37412
43	과/JC	36627
44	않/VX	36163
45	나/NP	32475
46	이/MM	31291
47	그/NP	30235
48	되/VV	29493
49	면/EC	26553
50	던/ETM	26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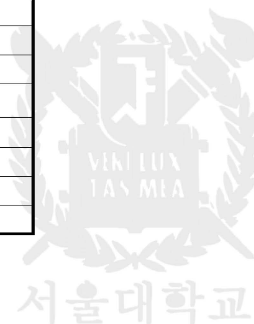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이 말뭉치에 사용된 형태 분석 표지의 목록(tagset)은 다음과 같다(김흥규, 강범모 외 2000).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1) 체언	명사NN	일반명사NNG 고유명사NNP 의존명사NNB
	대명사NP	
	수사NR	
(2) 용언	동사VV	
	형용사VA	
	보조용언VX	
	지정사VC	긍정지정사VCP 부정지정사VCN
(3) 수식언	관형사MM	
	부사MA	일반부사MAG
		접속부사MAJ
(4) 독립언	감탄사IC	
(5) 관계언	격조사JK	주격조사JKS
		보격조사JKC
		관형격조사JKG
		목적격조사JKO
		부사격조사JKB
		호격조사JKV
		인용격조사JKQ
	보조사JX	
	접속조사JC	
(6) 의존형태	어미E	선어말어미EP
		종결어미EF
		연결어미EC
		명사형전성어미ETN
		관형형전성어미ETM
	접두사XP	체언접두사XPN
	접미사 XS	명사파생접미사XSN
		동사파생접미사XSV
		형용사파생접미사XSA
	어근XR	
(7) 기호	마침표,물음표, 느낌표	SF
	쉼표, 가운뎃점, 콜론, 빗금	SP
	따옴표, 괄호표, 줄표	SS
	줄임표	SE
	붙임표(물결, 숨김, 빠짐)	SO
	외국어	SL
	한자	SH
	기타 기호(논리 수학기호, 화폐 기호) 등)	SW
	명사추정범주	NF
	용언추정범주	NV
	숫자	SN
	분석불능범주	NA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2. 보조용언의 결합 제약의 정도

3.2.1. 보조용언의 일반적인 빈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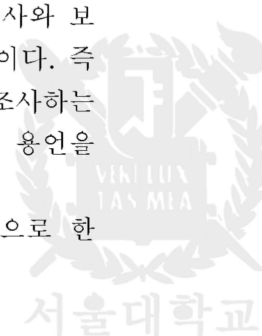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이 말뭉치에 보조용언이 몇 종류나 나타나는지, 그리고 각 보조용언이 어떤 빈도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뭉치에서 보조용언(VX)으로 태깅된 형태는 타입이 128개, 토큰이 282,271개로 나타난다. 이들 중 빈도가 낮은 것들은 태깅 오류인 것도 있고, 오류가 아니더라도 빈도가 너무 낮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려우므로 주로 고빈도의 보조용언들을 검토 대상으로 하게 된다. 빈도 순위 상위 20개의 보조용언은 다음과 같다.

순위	보조용언	빈도
1	있	69197
2	하	44436
3	않	36163
4	지	20622
5	주	15659
6	보	14243
7	되	13191
8	못하	10088
9	오	9177
10	싶	6070

순위	보조용언	빈도
11	가	5744
12	버리	5573
13	놓	5043
14	말	4739
15	내	3690
16	듯하	2441
17	나가	2421
18	두	2254
19	나	2254
20	만하	1775

그런데 하나의 보조용언이 항상 한 가지 종류의 보조적 연결어미와만 공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보조적 연결어미와 공기하는 경우도 있다. 빈도 제1위인 '있-'만 해도 '-아/어 있-'과 '-고 있-'으로 나타난다. 이 때 두 구성은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따로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을 하나의 기능 단위로 생각하여, 이것을 '보조용언 구성'이라고 부른다면, 본 연구는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기보다는 동사와 보조용언 구성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즉 본고에서는 보조용언 '있-' 앞에 결합된 용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어 있-' 앞에 결합된 용언과 '-고 있-' 앞에 결합된 용언을 따로 조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본고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연결되는 보조용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다.[4] 따라서 '듯하-', '만하-'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뒤에 출현하는 것이라든지, '-ㄴ가/ㄹ까 싶-'처럼 종결어미 뒤에 출현하는 것, '-기+는/도/만 하-'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은 보조적 연결어미에 의해 연결되는 보조용언 구성과는 상당히 다른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보이는 제약의 정도도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본고에서는 위의 고빈도 보조용언들 중 '듯하-', '만하-'는 제외하며, '있-'을 '-아/어 있-'과 '-고 있-'으로, '말-'을 '-지 말-'과 '-고 말-'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또한 보조용언 '하-', '보-', '되-', '싶-'의 용법 중에서 보조적 연결어미와 연결되는 용법만을 대상으로 한다.

3.2.2. 결합 제약의 계량화 방법

그런데 본고는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제약에 관심을 가지므로, 보조용언 중에서도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 흥미로운 제약을 많이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어떤 동사든지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는 보조용언은 상대적으로 본고의 관심 밖에 놓이는 것이다. 어떤 보조용언이 그런 제약을 많이 보여 줄지는 선험적으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런 제약의 정도를 어느 정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우선 결합 제약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임홍빈 외 2002: 169-78).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instance)의 수를 통틀어서 사건 공간(event spac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1번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눈이 1이 나오는 경우부터 6이 나오는 경우까지 모두 6개의 경우가 있는데, 이 6개의 경우를 모아 놓은 것이 사건 공간의 예가 된다. 사건 공간 내의 각 경우가 발생할 확률을 표시하는 변수를 확률 변수(random variable)라고 하고, 확률 변수가 각 경우에 취하는 확률값을 명시해 주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또는 확률 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라고 한다. 확률 변수가 각 경우에 취하는 값을 모두 더하면 1이 된다.

이 개념을 이제 언어 현상에 적용해 보자. 한국어의 문장 내에서 문법 규칙에 따라 동사가 출현할 수 있는 위치가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이 위치에는 이론상

4)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 사이에 보조사가 들어간 경우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조사의 개입 여부는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제약과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한국어의 모든 동사가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어에 존재하는 동사의 수만큼의 경우의 수를 갖는 사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동사이든지 상관 없이) 동사가 출현하는 사건을 V라 하고, 특정 동사 v_i(예를 들면 '가-'나 '먹-')가 출현하는 사건을 v_i라고 하면, 동사가 출현할 수 있는 위치에 v_i라는 특정 동사가 출현할 확률은 조건부 확률 $P(v_i|V)$로 나타낼 수 있는데

$$\sum_{vi \in V} P(v_i|V) = 1$$

의 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의 문장 내에 vx라는 특정 보조용언이 출현했다고 할 때, 이 보조용언 구성 앞에는 동사 또는 형용사가 출현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형용사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동사에만 초점을 맞춰 보자. vx라는 보조용언이 출현했고 그 앞에 동사가 온다고 가정하자. 이 때 vx 앞에 v_i라는 특정 동사가 출현할 확률은 조건부 확률 $P(v_i|vx,V)$로 나타낼 수 있고 역시

$$\sum_{vi \in V} P(v_i|vx,V) = 1$$

의 식이 성립한다. 본고에서는 이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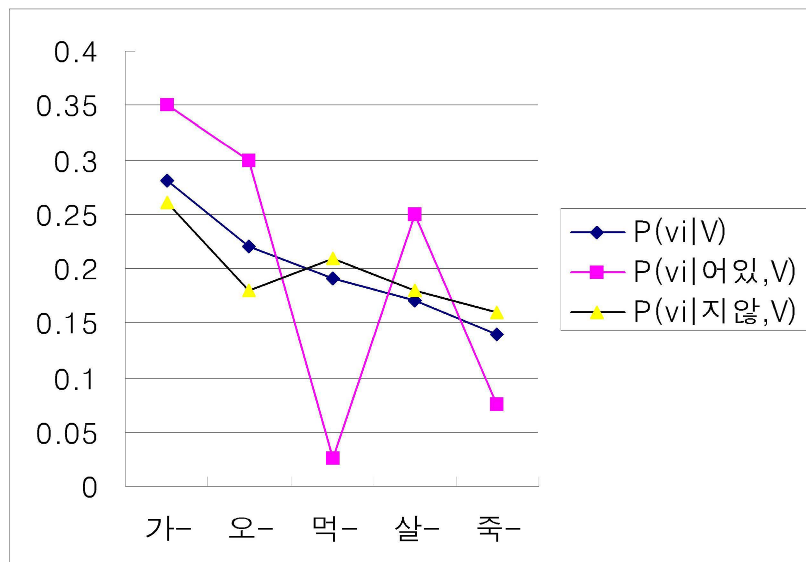
몇 개의 동사만을 가지고 간단한 예를 만들어서 본고에서 하려는 작업을 예시해 보이겠다. 한국어에 동사는 '가-', '오-', '먹-', '살-', '죽-' 5개밖에 없다고 하고, 보조용언은 '-어 있-'과 '-지 않-' 둘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5개 동사의 말뭉치 전체에서의 출현 빈도, 두 보조용언 앞에서의 출현 빈도가 다음 표와 같다고 가정하자.

	가-	오-	먹-	살-	죽-	합
말뭉치 전체 빈도	100	80	70	60	50	360
$P(v_i\|V)$	0.28	0.22	0.19	0.17	0.14	1
'-어 있-' 앞 빈도	14	12	1	10	3	40
$P(v_i\|$어있$,V)$	0.35	0.30	0.025	0.25	0.075	1
'-지 않-' 앞 빈도	20	14	16	14	12	76
$P(v_i\|$지않$,V)$	0.26	0.18	0.21	0.18	0.1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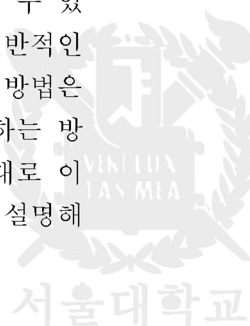
이 표에 나타난 수치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위 그래프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듯이, '-지 않-' 앞의 동사의 확률 분포[P(v_i|지않,V)]는 말뭉치 전체에서의 동사의 확률 분포[P(v_i|V)]와 매우 비슷하고, 반면에 '-어 있-' 앞의 동사의 확률 분포[P(v_i|어있,V)]는 말뭉치 전체에서의 동사의 확률 분포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지 않-'은 자신과 결합하는 동사에 대해 별다른 제약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에 '-어 있-'은 상대적으로 심한 제약을 부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두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의 정도를 계량화할 수 있다면, 보조용언이 자신과 결합하는 동사에 대해 부과하는 제약의 정도를 계량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기에 앞서, P(v_i|V)나 P(v_i|vx,V) 같은 구체적인 확률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자. 사실 한국어라는 모집단(population) 전체에 대해 이러한 확률값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sample)으로부터 모집단의 모수(母數, parameter)를 추정(estimation)할 수 있을 뿐이다. 모수 추정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최대 가능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다. 이 방법은 표본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최대로 만들어 주게끔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즉 표본(우리의 경우에는 말뭉치)에서 추출한 빈도의 비율을 그대로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동사의 빈도 분포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해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보자.

어떤 위치에 동사가 출현했음을 전제로 할 때 v라는 특정 동사가 출현할 확률은 조건부 확률 P(v|V)로 나타낼 수 있다. 조건부 확률의 공식에 따라

$$P(v|V) = \frac{P(v, V)}{P(V)}$$

라고 할 수 있는데, P(v,V) [말뭉치에서 동사가 출현하며 동시에 그 동사가 v일 확률]는 P(v)와 동일하며, P(V)는 최대 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따르면

P(V) = f(V) / n , f(V) : 동사의 출현 횟수, n : 말뭉치의 어절 수

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P(v|V)는

$$P(v|V) = \frac{P(v)}{P(V)} = \frac{f(v)/n}{f(V)/n} = \frac{f(v)}{f(V)}$$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한편 보조용언 '-아/어 있-'이 출현했고 그 앞에 동사가 왔다고 가정할 때 그 동사가 특정 동사 v일 확률은 조건부 확률 P(v|어있,V)로 나타낼 수 있으며, 조건부 확률의 공식에 따라

P(v|어있,V) = P(v,어있) / P(어있,V) = f(v,어있) / f(어있,V)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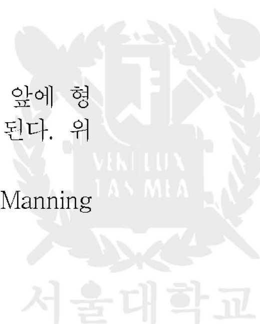
P(v|V) = f(v) / f(V) = 3480 / 1488248 = 0.002338
P(v|어있,V) = f(v) / f(어있,V) = 1256 / 22948 = 0.054732

와 같이 된다.[5]

이제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량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척도로 교차 엔트로피(cross entropy)와 상대적 엔트로피(relative entropy)라는 것이 있다.[6] 동일한 사건 공간에 대해 정의된 두 개의 확률 분포 p(x)와 q(x)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교차 엔트로피 및 상대적 엔트로피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5) 말뭉치에서 '-아/어 있-'은 모두 23497회 출현한다. 그런데 이 중 '-아/어 있-' 앞에 형용사가 출현한 경우를 제외하면, 즉 동사가 출현한 경우만 따지면 22948회가 된다. 위 식에서 f(어있,V)이 22948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6) 상대적 엔트로피는 Kullback-Leibler divergence(KL divergence)라고도 한다(Manning 1999: 60-80 참조).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교차 엔트로피 $H(p,q) = -\sum_{x} p(x) \log q(x)$

상대적 엔트로피 $D(p||q) = \sum_{x} p(x) \log (p(x)/q(x))$

둘 모두 값이 클수록 두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가 큰 것이다.

그런데 교차 엔트로피와 상대적 엔트로피 모두 유사성 내지 차이의 척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둘 모두 비대칭적이다. 즉 $H(p,q) \neq H(q,p)$이고 $D(p||q) \neq D(q||p)$인 것이다. 둘째, 상대적 엔트로피의 경우 q(x)가 0인 경우가 존재하면 분모가 0이 되어 계산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유사성 척도로 information radus(IRAD)라는 것이 있다(Manning 1999: 304).

$$IRad(p,q) = D(p||\frac{p+q}{2}) + D(q||\frac{p+q}{2})$$

IRad는 대칭적이며, p나 q 둘 중 하나라도 0이 아니면 (p+q)/2는 0이 아니므로 분모가 0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IRad는 0과 2log2 사이의 값을 갖는다. 두 확률 분포가 완전히 일치할 때에는 0이 되고, 최대한도로 차이가 나면 2log2가 된다.[7] 그래서 본고에서는 특정 보조용언 앞에 출현하는 동사의 확률 분포와 말뭉치 전체에서의 동사의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량화하기 위해 IRad를 사용한다.

각 보조용언에 대해 IRad를 구하는 과정을 예시해 보자.



7) 로그의 밑(base)을 2로 하면 최대값은 2가 된다. 정보 이론(information theory)에서는 로그의 밑을 2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고에서도 이 방법을 따른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동사	f(v)	f(v,고있)	P(v|V)=p	P(v|고있)=q	(p+q)/2=r	log(p/r)=pl	log(q/r)=ql	p*pl	q*ql
……									
가늠하	98	3	6.58498e-05	6.34988e-05	0.0001293492	-0.974021	-1.02647	-6.4139e-05	-6.51796e-05
가다듬	118	4	7.92885e-05	8.4665e-05	0.0001639542	-1.04811	-0.953455	-8.3103e-05	-8.07243e-05
가담하	96	3	6.45059e-05	6.34988e-05	0.0001280052	-0.988699	-1.0114	-6.37769e-05	-6.42228e-05
가당	2	0	1.34387e-06	0	6.71936e-07	1	NaN	1.34387e-06	0
가동그리	1	0	6.71936e-07	0	3.35968e-07	1	NaN	6.71936e-07	0
가동되	25	1	1.67984e-05	2.11663e-05	3.79647e-052	154.954	155.288	0.00260299	0.00328686
가동시키	9	1	6.04743e-06	2.11663e-05	2.72137e-052	153.961	155.768	0.000931066	0.00329703
가동하	31	3	2.083e-05	6.34988e-05	8.43288e-052	154.113	155.721	0.00321018	0.00988811
가두	182	4	0.000122292	8.4665e-05	0.0002069572	-0.758997	-1.28949	-9.28196e-05	-0.000109175
……	…	……	……	……	……	……	……	……	……
합								0.224171	0.295387
								0.519558	

위 표에서 보듯이 각각의 동사에 대해 말뭉치 전체에서의 빈도[f(v)], '-고 있-' 앞에서의 빈도[f(v,고있)]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점차 오른쪽 컬럼에 있는 값들을 구해 나간다. 최종적으로 맨 오른쪽 두 컬럼의 값들을 다 더해서 D(p|| $\frac{p+q}{2}$)와 D(q|| $\frac{p+q}{2}$)를 구하고 이 두 값을 더한 값이 IRad가 된다.[8)]

이런 식으로 상위 빈도 보조용언들에 대해 구해진 IRad 값은 다음과 같다.

8) 실제로는 위와 같은 표를 다 작성할 필요는 없다. 위의 표에서 셋째 컬럼까지만 있으면 다음과 같은 AWK script로 IRad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

```
{       p=$2/N; # $2=f(v), N=f(V)
        if($3) # $3=f(v,vx)
        {       q=$3/n; # n=f(vx,V)
                sum_p+=p*(log(2*p/(p+q))/log(2));
                sum_q+=q*(log(2*q/(p+q))/log(2)); }
        else    sum_p+=p; }
END { print sum_p+sum_q }
```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순위	동사	IRad
1	어대	1.64429
2	어내	1.52416
3	어지	1.44851
4	어나가	1.37813
5	어두	1.37584
6	어놓	1.31072
7	어있	1.17653
8	어버리	1.14612
9	어가	1.08832
10	고말	1.06176

순위	동사	IRad
11	어주	0.963209
12	지말	0.956601
13	고나	0.930968
14	어보	0.926729
15	어하	0.911776
16	어오	0.824471
17	고싶	0.770086
18	지못하	0.718582
19	게되	0.567095
20	고있	0.518725
21	지않	0.437864

이 결과는 보조용언이 갖는 결합 제약의 강도에 대한 우리의 선험적인 직관과 대체로 부합된다. '-지 않-', '-지 못하-' 등의 부정 보조용언은 그 기능상 모든 용언과 결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IRad 값이 낮은 것이 당연하다. '-지 않-'에 비해서 '-지 못하-'가 유표적이므로 IRad 값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아/어 있-'과 '-고 있-'의 비교도 흥미롭다. 널리 알려진 대로 '-고 있-'에 비해 '-아/어 있-'은 결합할 수 있는 용언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IRad 값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본고에서는 당연히 IRad 값이 높게 나타난 보조용언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것이다.[9)]

3.3. '-아/어 있-'의 결합 양상

3.3.1. '-아/어 있-'과 결합하는 동사의 빈도 분포

이 말뭉치에서 보조용언 구성 '-아/어 있-'은 23,497회 출현한다. 이 중 '-아/어 있-' 앞에 형용사가 결합된 예가 517회 있다. 이것을 제외하면 '-아/어 있-' 앞에 결합되는 동사는 타입이 1,652개, 토큰은 22,980개이다. '-아/어 있-' 앞에 결합된 상위 빈도 100개의 동사는 다음과 같다.



9) IRad 값 1위부터 8위까지의 보조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 있-'은 IRad 값이 낮지만 '-아/어 있-'과의 상적 의미의 비교를 위해 논의에 포함시킨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순위	동사	빈도
1	되	1438
2	지/VX	1319
3	서	1256
4	남	1054
5	앉	869
6	들	761
7	살	624
8	놓이	399
9	되/VX	349
10	눕	333
11	붙	304
12	숨	235
13	빠지	233
14	달리(懸)	225
15	걸리	218
16	나오	201
17	포함되	184
18	차	184
19	담기	180
20	떨어지	178
21	나	178
22	오	174
23	깔리	173
24	구성되	160
25	뜨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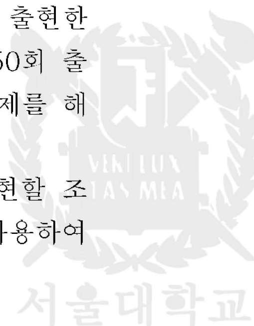
순위	동사	빈도
26	비	148
27	이루어지	147
28	머무르	130
29	모이	123
30	쌓이	114
31	갇히	114
32	잠기	110
33	젖	109
34	가	108
35	적히	107
36	열리	103
37	섞이	101
38	실리	97
39	널리	97
40	퍼지	95
41	연결되	88
42	박히	85
43	나타나	83
44	죽	82
45	묻히	82
46	배	79
47	알리	77
48	관련되	77
49	흩어지	76
50	들어가	75

순위	동사	빈도
51	처하	74
52	덮이	73
53	설치되	72
54	마련되	72
55	펼쳐지	71
56	기록되	71
57	매달리	70
58	속하	67
59	끼	67
60	뻗	65
61	몰리	65
62	규정되	61
63	묻	59
64	피	58
65	얽히	56
66	쓰이	56
67	드러나	56
68	나가	56
69	집중되	55
70	깨	55
71	서리	53
72	묶이	53
73	사로잡히	51
74	하	50
75	변하	49

순위	동사	빈도
76	끼이	49
77	보이	47
78	단히	46
79	꽂히	46
80	들리	45
81	솟	44
82	형성되	43
83	들어오	43
84	늘어서	43
85	잠들	42
86	이어지	42
87	쓰	42
88	걸치	42
89	준비되	38
90	발달되	38
91	기울어지	38
92	제한되	37
93	예정되	37
94	들뜨	37
95	한정되	36
96	취하	36
97	잡히	36
98	부풀	36
99	밝히	35
100	그리	35

이 표를 보면 보조용언 구성 '-아/어 있-' 앞에 어떤 용언들이 자주 결합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어 있-' 앞에 단순히 어떤 용언 몇 번 출현했다는 식의 절대 빈도만 가지고 그 현상의 비중을 논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어 있-' 앞에 '되-'는 1438회, '서-'는 1256회 출현해서 '되-'가 '서-'보다 '-아/어 있-'과 일견 더 친근성을 지니는 듯이 보이지만, '되-'는 '서-'에 비해 '-아/어 있-'과의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원래 빈도가 높은 동사라서 '-아/어 있-' 앞에도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말뭉치 전체에서 10,000회 출현한 동사가 '-아/어 있-' 앞에 100회 출현한 사실보다는, 말뭉치 전체에서 100회 출현한 동사가 '-아/어 있-' 앞에 50회 출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절대 빈도가 지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검정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위치에 동사가 출현했음을 전제로 할 때 v라는 특정 동사가 출현할 조건부 확률 $P(v|V)$는 앞서의 논의한 대로 최대 우도 검정법을 사용하여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P(v|V)=f(v)/f(V)로 구할 수 있다. 한편 보조용언 '-아/어 있-'이 출현했고 그 앞에 동사가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위치에 특정 동사 v가 출현할 조건부 확률 P(v|어있,V) 역시 앞서의 논의에 따라 P(v|어있,V)=f(v,어있)/f(어있,V)로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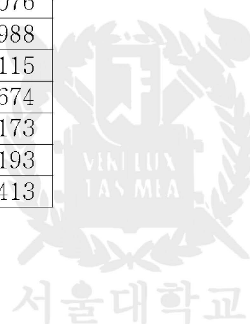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가 검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동사 v가 말뭉치 전체에서 출현하는 확률[P(v|V)]에 비해 '-아/어 있-' 앞에 출현하는 확률[P(v|어있,V)]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더 높은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비율의 검정'에 해당하는데, n×P(v|V)가 5 이상일 때에는 정규분포에 의한 Z 검정을 사용할 수 있고, n×P(v|V)가 5 이하일 때에는 포아송 분포에 의한 이항검정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동사가 '-아/어 있-' 앞에 특정 횟수 출현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하는 문제 그 자체보다는 여러 동사들의 빈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비교하는 데 관심이 있으므로, Z 검정만 사용해서 Z-score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만 이용하도록 한다. Z-score를 구하는 공식

$$Z = \frac{P(v|eiss,\ V) - P(v|V)}{\sqrt{P(v|V)(1 - P(v|V))/n}}$$

에 의해 '-아/어 있-' 앞에 출현하는 동사들의 Z-score를 구해 본 결과 상위 100개 용언은 다음과 같다.

순위	동사	f(v,어있)	f(v)	Z
1	서	1256	3480	164.21
2	남	1054	2832	152.927
3	앉	869	3330	114.15
4	놓이	399	931	101.479
5	눕	333	988	81.3811
6	깔리	173	325	74.9976
7	숨	235	606	73.7825
8	붙	304	1112	69.2492
9	널리	97	134	66.0016
10	포함되	184	480	64.8771
11	담기	180	523	60.5122
12	적히	107	194	60.0979
13	지/VX	1319	20622	56.4681
14	머무르	130	354	53.2743
15	구성되	160	591	49.9561
16	들	761	10021	48.9059
17	갇히	114	336	47.7789
18	되	1438	29493	46.5111

순위	동사	f(v,어있)	f(v)	Z
51	집중되	55	216	28.293
52	뜨	150	1356	28.2196
53	잠재되	23	41	28.1125
54	명시되	24	46	27.6358
55	함유되	23	43	27.4131
56	얽히	56	241	27.104
57	발달되	38	117	26.9298
58	기울어지	38	118	26.8041
59	진열되	17	26	26.1979
60	처박히	28	70	25.8942
61	분포되	17	27	25.6843
62	단히	46	184	25.6076
63	보관되	21	41	25.5988
64	잠재하	19	35	25.1115
65	싸이	32	96	25.0674
66	매달리	70	418	25.0173
67	스미	31	92	24.8193
68	수록되	27	71	24.7413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9	달리	225	1291	45.9515
20	잠기	110	364	44.035
21	비	148	645	43.7524
22	기록되	71	163	43.1711
23	살	624	8793	42.027
24	덮이	73	183	41.7503
25	배	79	221	40.9229
26	박히	85	271	39.5121
27	걸리	218	1571	39.3594
28	쌓이	114	480	39.1598
29	차	184	1179	38.8749
30	섞이	101	390	38.7105
31	서리	53	116	38.266
32	젖	114	545	36.4052
33	꽂히	46	100	35.7786
34	내포되	33	53	35.576
35	빠지	233	2174	34.4481
36	실리	97	458	33.8229
37	끼이	49	128	33.451
38	연결되	88	418	32.1037
39	처하	74	305	31.9337
40	펴지	95	493	31.6796
41	규정되	61	218	31.4168
42	늘어서	43	112	31.3854
43	설치되	72	304	31.07
44	흩어지	76	352	30.2726
45	묻히	82	406	30.2518
46	묶이	53	180	30.1268
47	깃들	34	82	29.0926
48	펼쳐지	71	337	28.8481
49	준비되	38	106	28.4253
50	마련되	72	356	28.3694

69	뻗	64	370	24.3896
70	들어차	27	73	24.371
71	비치되	13	18	24.1326
72	들뜨	37	142	23.5087
73	지정되	34	122	23.4014
74	부풀	36	137	23.2993
75	모이	121	1246	23.2106
76	소장되	11	14	23.1948
77	내재하	23	59	23.144
78	켜지	26	75	23.0858
79	사로잡히	51	270	22.9389
80	둘러싸이	30	101	22.7757
81	가로놓이	17	35	22.3908
82	뒤덮이	22	59	22.0962
83	내재되	16	32	22.06
84	떨어지	178	2577	21.9302
85	보존되	22	60	21.8953
86	몰리	65	455	21.8766
87	전시되	22	63	21.3207
88	밀집하	12	21	20.5049
89	둘리	9	12	20.4785
90	예정되	37	182	20.3971
91	솟	44	251	20.384
92	가입되	11	18	20.3387
93	결여되	25	89	20.1551
94	노출되	32	142	20.1317
95	얹히	27	104	20.0407
96	연관되	27	105	19.9329
97	배치되	28	113	19.878
98	관련되	77	714	19.8756
99	함축되	9	13	19.6407
100	제한되	37	197	19.4725

절대 빈도로는 1위였던 '되-'는 말뭉치 전체 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Z-score 순위는 18위로 밀려났다. 절대빈도 2위였던 보조용언 '지-'도 Z-score 순위는 13위로 밀려났고, '들-'도 6위에서 16위, '살-'도 7위에서 23위로 밀려나 있다. 이렇듯 절대 빈도에 의한 순위와 통계적 검정법을 적용한 이후의 순위는 달라지게 된다.



3.3.2. '-아/어 있-'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아/어 있-'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빈번히 결합하는 동사들을 의미에 따라 몇 가지 부류로 묶어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10]

피동적 놓기(putting): 놓이-, 깔리-, 널리-, 담기-, 갇히-, 달리-(懸), 덮이-, 쌓이-, 걸리-, 박히-, 섞이-, 꽂히-, 실리-, 끼이-, 묻히-, 파묻히-, 진열되-, 처박히-, 보관되-, 매달리-, 비치되-, 소장되-, 가로놓이-, 보존되-, 전시되-, 얹히-, 배치되-, 산적하-, 시설되-, 방치되-, 매이-, 배열되-, 안치되-, 뒤섞이-, 혼합되-, 수감되-, 간직되-, 늘어놓이-, 저장되-, 예치되-

존재: 남-, 숨-, 잠재되-, 잠재하-, 내재하-, 내재되-, 잠복하-, 위치하-, 개재되-, 뿌리박히-

머무름, 자리잡기: 머무르-, 틀어박히-, 정박하-, 정지하-, 주차하-, 정체되-, 정체하-, 붙박히-, 정차하-, 포진하-

확산, 散在: 분포되-, 퍼지-, 흩어지-, 산재되-, 산재하-

피동적 포함: 포함되-, 들-, 내포되-, 함유되-, 수록되-, 함축되-, 속하-, 끼-, 가입되-, 소속되-, 편제되-, 편성되-, 편입되-, 망라되-, 예속되-, 종속되-, 내장되-, 전재되-, 등재되-, 첨부되-

접촉: 붙-, 접합되-, 맞닿-, 늘어붙-, 고정되-, 부착되-, 밀착되-, 달라붙-, 밀착하-

관련: 연결되-, 연관되-, 관련되-, 직결되-, 인접하-, 인접되-, 결부되-, 맞물리-, 개입되-, 연계되-, 관계되-, 근접하-, 연하-

피동적 포위: 싸이-, 둘러싸이-, 둘리-, 휩싸이-, 포위되-

상태 변화: 지/VX, 켜지-, 되-, 되/VX, 잠기-, 비-, 처하-, 직면하-, 차-, 들어차-, 꽉차-, 묶이-, 발달되-, 단히-, 열리-, 지정되-, 뒤덮이-, 잘못되-, 구비되-, 노출되-, 뚫리-, 등록되-, 보편화되-, 정돈되-, 정리되-, 가로막히-, 낙후되-, 보급되-, 팽배하-, 만연하-, 치중되-, 봉쇄되-, 무장되-

생리적 상태 변화: 젖-, 살-, 잠들-, 깨-, 상기되-, 충혈되-, 피-, 지치-, 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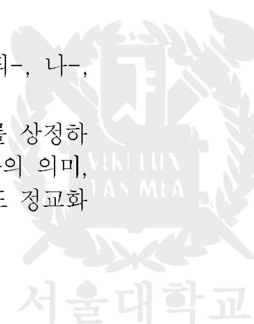
심리적 상태 변화: 들뜨-, 사로잡히-, 주눅들-, 긴장되-, 몰입하-, 심취하-, 응어리지-, 곤두서-

물리적 상태 변화: 굳-, 물들-, 용해되-, 얼룩지-, 부풀-, 녹-

위상적 상태 변화: 펼쳐지-, 기울어지-, 얽히-, 뭉치-, 치우치-, 쏠리-, 늘어지-, 처지-, 맺히-, 헝클어지-, 흐트러지-, 엉기-, 감기-, 함몰되-

발생, 피동적 창조: 구성되-, 서리-, 설치되-, 준비되-, 마련되-, 이루어지-, 형성되-, 나-,

10) 본고에서 사용하는 동사 부류는 매우 거칠고 잠정적인 것이다. 특정 동사 부류를 상정하는 근거나 그에 관한 논의는 본고에서 빠져 있다. 본고와 같은 연구, 그리고 동사의 의미, 논항구조 및 그 통사적 실현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된 뒤에야 동사 부류도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찍히-, 각인되-, 조각되-, 조성되-

결여, 소멸, 이탈: 빠지-, 결여되-, 결핍되-, 생략되-, 이탈되-, 구분되-, 괴리되-, 동떨어지-, 배제되-, 분리되-, 유리되-

이동: 배-, 깃들-, 뜨-, 스미-, 뻗-, 떨어지-, 솟-, 깃들이-, 가라앉-

집중: 집중되-, 모이-, 몰리-, 밀집하-, 밀집되-, 고이-, 괴-, 편중되-

제한: 제한되-, 금지되-, 한정되-, 국한되-, 억압되-

피동적 말하기, 쓰기, 표상: 적히-, 기록되-, 규정되-, 명시되-, 묘사되-, 소문나-, 표기되-, 나열되-, 열거되-, 암시되-, 기재되-, 씌-, 쓰이-, 보장되-, 해설되-, 반영되-, 소개되-, 인쇄되-, 기술되-, 표현되-, 투영되-, 입력되-, 표시되-, 언급되-, 서술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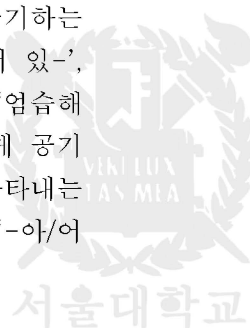
규정, 계획: 예정되-, 정해지-, 설정되-, 계획되-, 전제되-, 점지되-, 책정되-

자세 취하기(posture): 서-, 앉-, 눕-, 드러눕-, 늘어서-, 널부러지-, 엎드리-, 걸터앉-, 도열하-, 둘러서-, 마주앉-, 쓰러지-, 나자빠지-, 가로눕-

'-아/어 있-'과 결합하는 동사들의 전체적인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피동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다. 'X-되-' 형식의 용언이 매우 많고 접미사에 의해 형성된 피동사도 상당수 있다. 형태론적으로 피동사로서의 특징을 갖지 않더라도 의미상 피동적인 것도 많이 있다. 그리고 '-아/어 있-'과 결합하는 동사들 중 보조용언 '지-'를 대표로 하는 상태 변화 동사 및 '놓이-'를 대표로 하는 피동적 놓기 동사("무엇이 어디에 놓임"을 의미하는 동사), 자세 취하기 동사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아/어 있-'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를 고려할 때, 일견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아/어 있-'은 완료상의 표지로 흔히 간주되며, 내재적인 시간적 끝점을 갖는 자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제약을 지닌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임홍빈 1975, 정태구 1994). 따라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는 '-아/어 있-'과 결합함으로써 상태 변화가 이미 완결점에 도달했음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되며, 이런 의미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빈번하게 표현될 법한 의미이므로 말뭉치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피동적 놓기 동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듯이 '-아/어 있-'이 일부 타동사와 공기하는 예도 말뭉치에서 관찰된다. '향해 있-', '떠나 있-', '떠나와 있-', '넘어서 있-', '넘어가 있-', '건너와 있-', '초과해 있-', '초월해 있-', '빗나가 있-', '엄습해 있-' 등이 그 예인데, 이들이 타동사이면서도 '-아/어 있-'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전형적인 타동사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가 실현되면서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변화를 겪는다. 그런데 '-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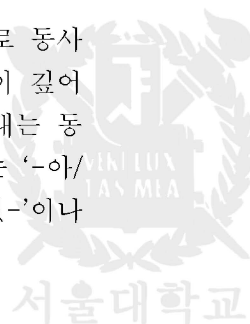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있-'과 결합하는 동사들은 타동사이면서도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가 실현되면서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변화를 겪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태가 종결된 뒤에 그 결과 상태를 목적어의 지시 대상이 담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담지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들 타동사는 자동사와 비슷한 점이 있으며 '-아/어 있-'과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런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아/어 있-'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1) a. 이미 밤은 깊을 만큼 깊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b. 용술은 이미 통로의 어둠에도 그만큼 익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c. 그런 서양식 파티에 익숙해 있는 닥터 오가 ……
d. 그날은 하루 내내 하늘이 싸늘하니 흐려 있었다.
e. 나는 그후 5년이 지나서야 옛 애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낯설어 있었다.
f.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겨우 떠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분의 병이 깊어 있었고,
g. 줄기는 네모져 있고, 마디마디 좌우로 가지를 치며 온몸에 부드러운 털이 돋았다.
h. 남쪽 사람은 저간의 남쪽 세상답게 꽤나 세련되어 있었다.
i. 미라는 배가 남산만 하게 불러 있었고
j. 물론 우연을 바라는 만남도 좋지만 케케묵어 있던 수첩과 앨범을 뒤적여 잊었던 친구를 찾아보는 행복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k. 현의 아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처럼 며칠이나 얼굴이 붉어 있었으나
l. 정작 저 혼자 따져 생각할 때는 너무나 정보에 어두워 있으므로 막연하고 불안하였다.

이 예들 중 '밤이 깊어 있-', '병이 깊어 있-' 같은 예는 '깊-'이 단독으로 동사로 사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밤이 깊어져 있-', '병이 깊어져 있-'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서의 '깊-'에 '-어 있-'이 결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예는 '-아/어 있-'의 일반적인 결합 제약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모져 있-'이나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세련되어 있-', '정보에 어두워 있-' 같은 예는 그런 식의 분석이 어려워 보인다. 네모진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에서 네모진 모양으로의 상태 변화, 세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련된 상태로의 변화, 정보에 어둡지 않다가 어두워지는 변화가 일어난 뒤 그 결과 상태가 성립한다는 식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예들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것이다. 한편 '-아/어 있-'의 예 중에는 '충만되어 있-', '착란되어 있-', '경직되어 있-', '흐드러져 있-'처럼 활용이 제약되어 있어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용언에 결합된 것들도 꽤 있다.

3.3.3. '-아/어 있-'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

'-아/어 있-' 앞에 어떤 용언들이 나타났는가, 어떤 용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주 나타났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용언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도 중요하다. 이 경우에 '-아/어 있-' 앞에 나타나지 않은 용언의 절대 빈도는 모두 0으로 동일하지만, 통계적 검정법을 적용하여 그 사실의 통계적 유의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절대 빈도가 모두 동일하므로, 말뭉치 전체에서 많이 출현하는 동사일수록 '-아/어 있-'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그토록 빈도가 높은 동사가 말뭉치에서 '-아/어 있-'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것이다. 반면에 말뭉치 전체에서 빈도가 매우 낮은 동사는 '-아/어 있-'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우연의 소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뭉치에서 '-아/어 있-' 앞에 한 번도 출현하지 않은 동사들 중 Z-score 상위 100개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위	동사	f(v)	Z
1	있/VX	69197	-33.4516
2	주/VX	15659	-15.6212
3	보/VX	14243	-14.891
4	받	11523	-13.3815
5	알	11241	-13.2155
6	싶/VX	6070	-9.6943
7	가지	6024	-9.65735
8	버리/VX	5573	-9.2874
9	놓/VX	5043	-8.83316
10	주	4869	-8.67893

순위	동사	f(v)	Z
51	거치	1052	-4.02899
52	쉬	1038	-4.00207
53	시키	1023	-3.97303
54	겪	1011	-3.94964
55	죽이	1002	-3.93201
56	만들/VX	999	-3.92612
57	불구하	997	-3.92218
58	나아가	994	-3.91627
59	달/VX	991	-3.91036
60	마치	988	-3.90443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1	말/VX	4739	-8.56191
12	시작하	4665	-8.49459
13	갖	4146	-8.00673
14	찾	4026	-7.88969
15	그러	3690	-7.55244
16	내/VX	3690	-7.55244
17	두	3143	-6.96893
18	맞	2903	-6.69703
19	관하	2605	-6.34336
20	다니	2488	-6.19902
21	듯하/VX	2441	-6.1401
22	두/VX	2254	-5.89985
23	입	2236	-5.87621
24	바라보	2143	-5.75253
25	사용하	2010	-5.57091
26	만하/VX	1775	-5.23472
27	주장하	1727	-5.16337
28	배우	1608	-4.9821
29	놓	1601	-4.97123
30	이해하	1601	-4.97123
31	마시	1595	-4.9619
32	비하	1515	-4.83573
33	낳	1509	-4.82614
34	이용하	1484	-4.78595
35	당하	1480	-4.77949
36	자	1392	-4.63508
37	놀라	1339	-4.54591
38	일으키	1330	-4.53059
39	일하	1313	-4.50152
40	팔	1311	-4.49808
41	요구하	1307	-4.49121
42	좋아하	1269	-4.42538
43	강조하	1258	-4.40614
44	인하	1242	-4.37801
45	놀	1205	-4.31225
46	어쩌	1197	-4.2979
47	사랑하	1186	-4.27809
48	존재하	1088	-4.0974
49	즐기	1088	-4.0974
50	발견하	1068	-4.05953
61	지나가	987	-3.90245
62	대답하	972	-3.87266
63	확인하	949	-3.82654
64	살펴보	944	-3.81644
65	발표하	932	-3.79209
66	보여주	928	-3.78394
67	뛰	917	-3.76143
68	비롯하	914	-3.75527
69	싸우	870	-3.66371
70	깨닫	856	-3.6341
71	발생하	847	-3.61493
72	원하	840	-3.59995
73	참여하	839	-3.59781
74	찾아오	837	-3.59352
75	빼	830	-3.57845
76	안	822	-3.56115
77	계속되	818	-3.55247
78	유지하	812	-3.53941
79	해결하	803	-3.51973
80	살아가	802	-3.51754
81	생각되	796	-3.50435
82	포함하	770	-3.44661
83	파악하	769	-3.44437
84	쳐다보	767	-3.43989
85	따지	762	-3.42865
86	등장하	738	-3.3742
87	내놓	734	-3.36504
88	해보	729	-3.35355
89	줄이	720	-3.33278
90	규정하	717	-3.32582
91	데리	715	-3.32118
92	의미하	710	-3.30954
93	물	704	-3.29552
94	찾아가	694	-3.27202
95	더불	692	-3.2673
96	가져오	686	-3.2531
97	기대하	685	-3.25072
98	심	675	-3.2269
99	부리	672	-3.21972
100	가리키	670	-3.21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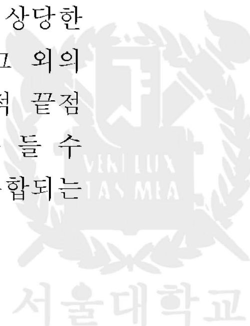
이 동사들을 의미 부류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보조용언: 있-, 주-, 보-, 싶-, 버리-, 놓-, 말-, 내-, 듯하-, 두-, 만하-, 달-
수여: 주-
수령: 받-
인지: 알-
소유: 가지-, 갖-
신체 소지: 안-, 물-
착용: 입-
지식 습득: 배우-, 이해하-, 깨닫-, 파악하-
인지적 활동: 확인하-, 살펴보-, 생각되-, 살피-, 조사하-
섭취: 마시-
상 동사: 시작하-, 마치-, 계속되-, 유지하-
찾기: 찾-, 발견하-
놓기: 두-, 놓-, 심-
대동사: 그러-, 어쩌-
피해: 맞-, 당하-
후치사적 동사: 관하-, 비하-, 인하-, 거치-, 불구하-, 비롯하-, 데리-, 더불-
이동: 다니-, 나아가-, 지나가-, 찾아오-, 찾아가-, 가져오-
신체 동작: 뛰-
지각: 바라보-, 쳐다보-
사용: 사용하-, 이용하-, 부리-
말하기, 쓰기: 주장하-, 요구하-, 강조하-, 대답하-, 따지-, 규정하-
보여주기: 발표하-, 보여주-, 내놓-
창조: 낳-, 만들-
정적 관계: 포함하-, 의미하-, 가리키-
사역: 시키-
사역적 상태 변화: 일으키-, 죽이-, 빼-, 해결하-, 줄이-, 뽑-, 고치-
생리현상: 자-
심리현상: 놀라-
감정: 좋아하-, 사랑하-, 즐기-, 원하-, 기대하-
상업 행위: 팔-
경험: 겪-
존재, 발생: 존재하-, 발생하-, 등장하-
일상적 인간 활동: 일하-, 놀-, 쉬-, 살아가-, 싸우-, 참여하-

이들 중 후치사적 동사는 활용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으므로 '-아/어 있-'과 결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보조용언도 역시 보조용언끼리의 중첩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아/어 있-'과 결합하지 않는 것이 쉽게 이해된다. 그 외의 동사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을 찾아 보면 타동사이거나 내재적으로 시간적 끝점을 함축하지 않는 사태를 나타내는 동사, 즉 비한계동사(atelic)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아/어 있-'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결합 제약과 부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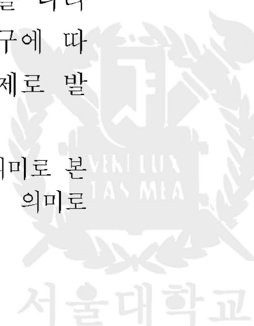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3.4. '-아/어 있-'의 상적 의미: 결과상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은 왜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 많은 제약을 보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사의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 Aktionsart)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state-of-affairs) 또는 상황(situation)은 내적 시간적 속성(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다.[11]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 중에는 내재적인 시간적 끝점(temporal endpoint)을 갖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전자를 한계동사(telic verb), 후자를 비한계 동사(atelic verb)라고 한다. 또한 사태가 성립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동질적(homogenious), 靜態的(static)인 것도 있고 動態的(dynamic)인 것도 있다. 동사가 지니는 이런 상적 의미와 보조용언 또는 어미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가 서로 어울릴 수도 있고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바로 결합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태가 완결되었음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은 완결될 수 있는 사태, 즉 내재적으로 시간적 끝점을 갖는 사태를 나타내는 동사와는 결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사와는 결합한다고 해도 어떤 의미를 나타내게 될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런 동사와의 결합은 정합적(coherent)인 의미를 나타낼 수 없을 것이고, 화자가 애초에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 욕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적 의미를 갖는 보조용언이 그런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 경향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경향성이 하나의 통사적 제약으로 굳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동사의 상적 특성과 보조용언 및 어미의 상적 의미가 상호작용하여 빚어내는 결합 제약을 탐구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아/어 있-'의 상적 의미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가 종결된 뒤 그 결과 상태가 주어 논항이 가리키는 대상에게 성립됨"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어떤 상 범주에 해당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흔히 완료상(perfect aspect)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본고에서는 결과상(resultative aspect)에 더 가깝다고 본다. 완료상은 흔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까지 relevance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된다. Bybee et al.(1994) 등 문법화에 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결과상은 완료상으로, 완료상은 완결상(perfective) 내지 과거 시제로 발

11) 동사나 형용사가 나타낼 수 있는 사건, 행위, 과정, 상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로 본고에서는 사태 또는 상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부 학자들은 비슷한 의미로 eventu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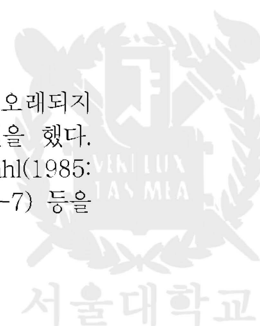
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결과상과 완료상이 의미적으로나 통시적으로나 서로 매우 가까운 범주이기는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있다. Nedjalkov and Jaxontov(1988), Nedjalkov(2001)에서는 완료상과 결과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2)]

	완료상	결과상
사건의 효과	과거 사건의 효과는 특정적이지 않으며, 어기 동사(base verb)가 나타내는 사건의 참여자에 한정되지도 않음	과거 사건의 효과는 어기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어기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참여자에 한정됨
어휘적 제약	어기 동사의 의미, 결합가, 상적 특성과 관련 없이 모든 동사로부터 형성될 수 있음	어휘적으로 제약됨
결합가 변화	어기 동사의 결합가를 바꾸지 않음	타동사의 결과상은 자동 구문을 형성하는 일이 많음
기간 부사구	기간 부사구와 잘 결합하지 않음. 결합하는 경우는 어기 동사가 지속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며, 기간 부사구는 어기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의 지속 시간을 나타냄	기간 부사구와 자유롭게 결합하며, 어기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종결된 후 결과 상태의 지속 시간을 나타냄
순간 시점 부사구	완료상이 순간 시점 부사구와 결합하면, 그 부사구는 어기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가 일어난 시점을 나타냄	결과상이 순간 시점 부사구와 결합되면, 그 부사구는 결과 상태가 성립되는 시점을 나타냄

이들 기준을 염두에 두고서, 완료상임이 분명한 영어의 'have+과거분사' 구성과 한국어의 '-아/어 있-' 구성을 비교해 보자.

(2) a. He has gone.

12) 학계에서 결과상이 완료상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Nedjalkov(1983/1988)가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결과상과 완료상의 차이 및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위의 두 논문 외에도 Dahl(1985: 133-5), Bybee and Dahl(1989: 68), Bybee, Perkins and Pagliuca(1994: 63-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b. 그는 서울을 떠나 있다.

(2a)가 나타내는 사태가 종결되었다는 것이 누구에게 relevance를 갖는가, 다시 말해 (2a)가 나타내는 사태가 종결된 뒤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문맥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주어 'he'가 가리키는 대상일 수도 있지만 화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반면에 (2b)가 나타내는 사태가 종결된 뒤 그 결과 상태를 지니는 것은 반드시 '그'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따라서 사건의 효과가 갖는 특정성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한국어의 '-아/어 있-'은 결과상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둘째, 영어의 완료상이 거의 모든 동사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의 '-아/어 있-' 구성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어휘적으로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세계 여러 언어에서 결과상을 나타내던 요소가 완료상 표지로 발달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결과상일 때에는 한계 동사와만 결합하는 제약을 지니다가 완료상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제약이 없어지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한다(Lindstedt 2000: 368). 한국어의 '-아/어 있-' 구성이 한계 동사와의 결합 제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결과상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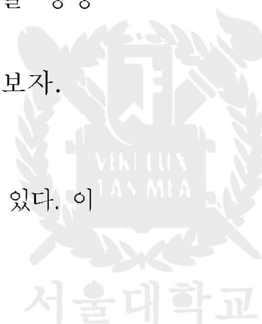
셋째, 중세 한국어에서는 폭넓게 관찰되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보다는 드물게 관찰되지만 타동사에 '-아/어 있-'이 결합되어 자동 구문을 형성하는 일이 있다(박진호 1994).

(3) a. 이상한 글씨가 종이 위에 써 있다.
b. 방에 불이 켜 있다.

이런 구문은 '-아/어 있-'이 결합됨으로써 어기 동사의 결합가가 바뀐 예가 된다. 범언어적으로 타동사에 결과상 표지가 결합되면 자동 구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13] 현대 한국어에서 '-아/어 있-'이 타동사에 결합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명확한 결론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드물지만 타동사에 '-아/어 있-'이 결합되어 자동 구문을 형성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아/어 있-'이 결과상에 가까움을 시사한다.

넷째, 기간 부사구나 순간 시점 부사구와 공기할 때의 해석을 검토해 보자.

13) 타동사에 결과상 표지가 결합되어 타동 구문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4) a. 그는 3시간 동안 기절해 있었다.
b. 그는 7시 정각에 기절해 있었다.

(4a)에서 보듯이 기간 부사구가 '-아/어 있-' 구성과 결합할 때 이 부사구는 결과 상태의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 반면에 (4b)에서 보듯이 순간 시점 부사구는 기절한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절한 뒤 결과 상태가 7시 정각에 성립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대 한국어의 '-아/어 있-'은 결과상 표지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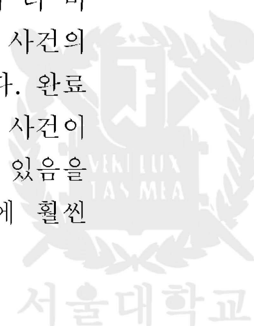
3.3.5. 정태상의 '-아/어 있-'

'-아/어 있-'의 일부 용법 중에서는 결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결과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또 다른 용법이 있다.

(5) a. 우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b. 이 길은 바닷가까지 뻗어 있다.
c. 그 지역은 중국에 인접해 있다.

이들 예문들은 '-아/어 있-' 앞에 결합되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다는 함축을 갖지 않는다. 산이 마을을 둘러싸는 사건이나, 길이 뻗어 나가는 사건, 어떤 지역이 중국에 인접해 있지 않다가 인접하게 되는 변화 등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런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다면 그 결과로서 성립됨직한 상태가 현재 성립됨을 나타낼 뿐이다. 결과상이 과거에 사건이 발생하여 종결되었고 그 결과 상태가 성립됨을 나타내는 것에 대비해서, 과거 사건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함축도 갖지 않고 현재 상태만 나타내는 상 범주를 靜態相(stative aspect)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위의 예들은 정태상이라고 간주할 만한 것이다.

과거 사건과 그 결과 상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여러 시제, 상 범주가 구분된다. 과거 시제는 과거 사건의 발생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함축도 갖지 않는다. 완료상은 과거에 사건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점은 과거 시제와 같지만, 그 사건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과상은 완료상과 비슷하지만, 과거 사건보다는 결과 상태에 훨씬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정태상은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함축도 갖지 않고 현재 상태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과거 시제와는 반대편 극단을 보여 준다. 정태상은 결과상의 한 파생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과상 구문의 비유적 용법이 정태상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어 있-'이 결과상으로 해석되는지 정태상으로 해석되는지를 결합하는 동사가 무엇인가만 보고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6) 그는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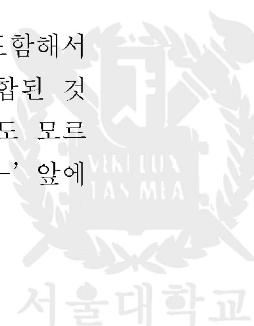
(5a)와 (6)에서 보듯이 동일한 동사 '둘러싸이-'가 '-어 있-'과 결합되어 있지만 전자는 정태상으로 후자는 결과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동사의 논항까지, 때로는 더 큰 문맥까지 고려해야 어느 쪽으로 해석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두 해석 다 가능하여 중의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어떤 동사는 '-아/어 있-'과 결합할 때 거의 항상 정태상으로만 해석되는 것들도 있는 듯하다. '인접하-', '결부되-', '맞물리-', '직결되-' 등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라든가 '잠재하-', '내재하-', '개재되-', '위치하-' 등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그런 예이다. 이들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상으로 해석되기는 어렵고 정태상으로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또한 활용이 극히 제약되어 있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아/어 있-', 관형사형 어미 '-(으)ㄴ', 연결어미 '-아/어' 등 몇 개의 어미나 보조용언과 결합해서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어 있-'과 결합하는 동사들 중 이런 동사들의 Z-score가 당연히 높게 나타난다.

3.4. '-고 있-'의 결합 양상

3.4.1. '-고 있-'과 결합하는 동사

보조용언 구성 '-고 있-'은 변이형 '-구 있-'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말뭉치에 모두 47,198회 출현한다. 이 중 '-고 있-'이 형용사와 결합된 것이 22회 있다. '-고 있-'이 형용사와 결합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실제로 충분히 쓰일 법한 예들이다.[14] 이것을 제외하면 '-고 있-'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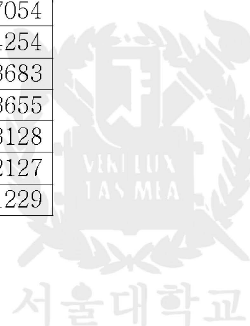
14) 구체적인 예들은 3.4.3.에서 제시될 것이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출현하는 동사의 타입은 3,810개, 토큰은 47,176개이다. '-아/어 있-'과 비교할 때 결합되는 용언의 타입이 많은 편이다. 이것은 '-고 있-'이 '-아/어 있-'에 비해서 동사와의 결합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 심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3.2.2.에서 보았듯이 IRad도 '-아/어 있-'이 '-고 있-'에 비해 현격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3.3.1.에서 제시한 과정에 따라 '-고 있-' 앞에 나타나는 동사들 중 통계적 유의성(statistical significance)이 큰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위	동사	f(v, 고있)	f(v)	Z
1	갖	1040	4146	79.3636
2	가지	1096	6024	65.6261
3	지니	470	1711	56.4858
4	알	1400	11241	55.4976
5	자리잡	189	412	48.6907
6	기다리	453	2267	44.9942
7	안	240	822	41.923
8	내포하	76	122	36.6809
9	규정하	194	717	35.9335
10	이루	355	2180	34.4164
11	담	234	1069	34.3885
12	도사리	51	68	33.2691
13	살	810	8793	31.9152
14	보유하	78	165	31.8201
15	대기하	52	84	30.2355
16	가/VX	579	5744	29.4714
17	일	111	411	27.1462
18	차지하	171	934	25.9932
19	벌이	222	1569	24.4388
20	겪	169	1011	24.1996
21	품	89	343	23.696
22	진행되	126	687	22.3384
23	말	185	1308	22.3008
24	띠	132	760	21.9902
25	소장하	24	36	21.3982
26	간직하	65	234	21.1439
27	앓	91	430	20.9588
28	두	308	3143	20.8971
29	갖추	158	1104	20.8
30	늘	111	639	20.1665
31	계속되	126	818	19.6569

순위	동사	f(v, 고있)	f(v)	Z
51	빚	61	347	15.0774
52	작용하	81	561	14.9934
53	벼르	28	92	14.6886
54	속출하	20	51	14.4583
55	내다보	57	332	14.3277
56	고조되	29	104	14.1565
57	끌	127	1293	13.4406
58	자생하	11	19	13.3978
59	믿	173	2077	13.2155
60	소유하	40	206	13.0985
61	못하/VX	552	10088	13.0295
62	전망하	33	149	13.0115
63	검토하	70	543	12.7255
64	의존하	54	357	12.6895
65	머물	52	336	12.6711
66	좇	25	96	12.5869
67	급증하	26	105	12.4272
68	시달리	56	390	12.4122
69	주장하	146	1727	12.3404
70	추산하	10	19	12.1093
71	빛나	57	418	12.0203
72	가로막	37	208	11.8423
73	계획하	30	146	11.7942
74	쏠리	28	130	11.7634
75	쥐	64	520	11.7054
76	입	167	2236	11.4254
77	뒤덮	19	69	11.3683
78	담당하	48	339	11.3655
79	기록하	66	568	11.3128
80	둘러싸	62	520	11.2127
81	나타내	102	1124	11.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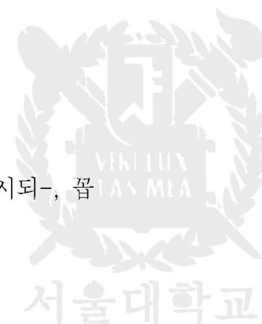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2	제기되	78	367	19.4598
33	추진하	105	628	19.0754
34	함유하	26	53	18.763
35	곤두세우	31	77	18.2802
36	확산되	54	215	18.0752
37	운영하	72	372	17.535
38	반발하	41	138	17.5119
39	되어가	27	65	17.3745
40	벌어지	122	927	17.0901
41	받	689	11523	17.0038
42	내려다보	56	259	16.6799
43	떨	100	698	16.559
44	기억하	74	430	16.3536
45	바라보	200	2143	16.0349
46	주시하	25	65	15.9811
47	지적되	50	229	15.8646
48	점하	21	48	15.791
49	자리하	26	74	15.4445
50	지켜보	66	387	15.3428

82	점유하	12	31	11.114
83	함축하	13	36	11.1011
84	주목되	34	200	10.9859
85	사용되	69	634	10.9106
86	제시하	99	1096	10.9055
87	다물	40	266	10.8721
88	우려되	23	105	10.7827
89	유지하	80	812	10.6976
90	고심하	18	69	10.6921
91	권장하	17	63	10.6166
92	분포하	29	161	10.5782
93	늘어나	82	853	10.5722
94	흐르	119	1483	10.5047
95	공유하	23	110	10.45
96	예상되	49	391	10.3988
97	서성거리	17	66	10.3068
98	뒹굴	24	121	10.2962
99	치단	23	113	10.2601
100	대두되	19	81	10.2551

'-고 있-'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빈번히 결합하는 동사들을 의미에 따라 몇 가지 부류로 묶어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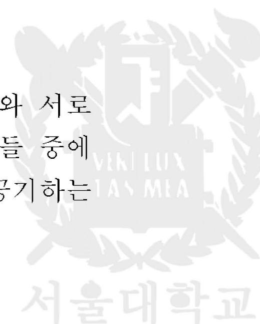
소유, 소지: 갖-, 가지-, 지니-, 보유하-, 차지하-, 점하-, 점유하-, 소장하-, 간직하-, 두-, 갖추-, 소유하-, 공유하-, 구비하-, 보관하-, 확보-
통제: 장악하-, 거느리-, 지배하-, 지키-
포함: 내포하-, 담-, 함유하-, 함축하-, 뒤덮-, 둘러싸-, 에워싸-, 포함하-
신체 소지: 안-, 품-, 띠-, 쥐-, 입-, 감-, 머금-
신체부위를 움직이는 동작: 다물-
자세 취하기(posture): 도사리-, 웅크리-, 마주하-
반복적 신체 동작: 서성거리-, 뒹굴-, 울-, 꿈틀거리-, 허덕이-, 건들거리-, 걷-
반복적 동작; 흔들리-, 펄럭이-, 일렁거리-, 웅성거리-
담당: 맡-, 담당하-, 대행하-, 다루-, 종사하-
존재, 소재: 살-, 자생하-, 분포하-, 위치하-, 감돌-, 거주하-, 상존하-, 뿌리박-, 재직하-, 몸담-, 재학하-, 공존하-, 맴돌-, 내재하-, 동거하-
머무름, 자리잡기: 자리잡-, 자리하-, 머물-, 주둔하-
돌아다님: 표류하-, 나돌-, 동분서주하-, 헤매-, 떠돌-
확산: 확산되-, 번지-
인지: 알-, 기억하-, 인식하-, 인식되-, 잊-, 착각하-
인지적 활동: 검토하-, 검토되-, 고심하-, 부심하-, 분석하-, 집중하-, 열중하-
사유: 믿-, 전망하-, 추산하-, 우려되-, 우려하-, 예상되-, 예상하-, 평가되-, 유력시되-, 꼽히-, 꼽-, 추정되-, 추정하-, 낙관하-, 인정받-, 전망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지각: 내려다보-, 바라보-, 주시하-, 지켜보-, 내다보-, 주목되-, 노려보-, 굽어보-, 응시하-, 쳐다보-, 들여다보-, 엿보-
바람: 희망하-, 기다리-, 대기하-, 기대하-, 고대하-, 갈망하-
말하기, 쓰기, 표상: 지적되-, 주장하-, 기록하-, 나타내-, 제시하-, 권장하-, 서술하-, 강변하-, 강조하-, 요구하-, 풀이되-, 적-, 반영하-, 요청되-, 금지하-, 논의되-, 보도되-, 명시하-, 거론되-, 지적하-, 보고되-, 독려하-, 예고하-, 회자되-, 거명되-, 얘기되-
보여주기: 선보이-, 보이-, 드러내-, 보여주-
규정: 규정하-, 못박-
계획: 계획하-, 준비하-, 추진하-, 추진되-, 노리-, 예정하-, 꾀하-
창조: 구성하-, 이루-, 빚-, 형성하-
발생: 일-, 제기되-, 벌어지-, 속출하-, 대두되-, 빈발하-
사태의 진행: 가/VX, 진행되-, 전개되-, 전개하-
상태의 유지: 끌-, 유지하-, 유지되-, 살아가-, 계속되-, 계속하-, 지속되-, 답습하-
상태 변화: 늘-, 고조되-, 급증하-, 늘어나-, 치닫-, 커지-, 가속화되-, 가중되-, 증가하-, 악화되-, 심화되-, 여성화되-, 증폭되-, 나타나-, 기울-, 둔화되-, 확대되-
심리적 상태 변화: 곤두세우-
생리현상: 떨-, 졸-
심리현상: 긴장하-
물리현상: 빛나-, 반짝이-
기상현상: 몰아치-
사역적 상태 변화: 삼-, 긴장시키-, 펴-, 가중시키-, 가로막-
놓기: 벌이-, 드리우-
경험: 겪-, 앓-, 받-, 시달리-
태도: 반발하-, 벼르-, 일관하-, 버티-, 전전긍긍하-, 안타까워하-, 각오하-, 자학하-
관계: 의존하-, 기반하-, 기초하-, 웃돌-
이동: 흐르-, 다가오-, 걸어오-, 흘러나오-, 걸어가-, 흘러가-
집중: 쏠리-, 붐비-, 바글거리-, 집중되-
성행: 성행하-, 범람하-, 유행하-
사용: 사용되-, 사용하-, 이용되-, 애용되-, 활용되-, 할애하-
거래: 판매되-, 판매하-, 팔리-, 거래되-, 유통되-, 시판되-
부정: 못하/VX, 결여하-
참여: 동참하-, 참여하-, 관여하-
시행: 실시하-, 운항하-, 취항하-, 이루어지-
노력: 기울이-, 주력하-
일상적, 반복적 활동: 일하-, 근무하-, 활동하-, 운영하-, 운영되-, 운용되-
작용하-, 재배되-, 맺-, 채택하-

'-고 있-'과 자주 결합하는 동사는 '-아/어 있-'과 자주 결합하는 동사와 서로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 준다. 앞에서 '-아/어 있-'과 자주 결합하는 동사들 중에는 피동적인 것이 많다고 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고 있-'과 자주 공기하는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동사들 중에는 그에 형태상으로든 의미상으로든 대응되는 능동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X-하고 있-'과 'X-되어 있-'이 서로 짝을 이루어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이다.

'-아/어 있-'과 자주 결합하는 동사 부류와 '-고 있-'과 자주 결합하는 동사 부류를 비교해 보면 양쪽에 공통된 것도 있다. 그런데 양쪽과 다 잘 결합되는 동사들도 다시 몇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동사의 상적 의미가 정말 양쪽과의 결합을 다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경우이다. '성장하-' 같은 상태 변화 동사를 예로 들면, '성장해 있-'은 성장이라는 상태 변화가 어떤 완결점에 이미 도달해서 그 결과 상태가 성립됨을 나타내고, '성장하고 있-'은 성장이라는 상태 변화가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데, '성장하-'의 어휘적 의미는 이러한 두 가지 상적 의미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해당 동사가 다의어여서 한 쪽 의미일 때에는 '-아/어 있-'과 결합하고 다른 한 쪽 의미일 때에는 '-고 있-'과 결합하는 경우이다. '살-'을 예로 들면, '살-'은 "생존하다, 살아남다, 살아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한계동사로서 '살아 있-'과 같은 구성이 가능하고, "거주하다" 정도의 의미일 때에는 비한계 동사로서 '살고 있-'과 같은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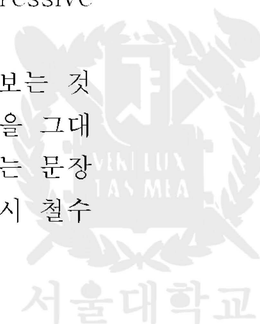
3.4.2. '-고 있-'의 상적 의미 1: 결과상

현대국어의 '-아/어 있-'이 대체로 단일한 상적 기능을 지님에 비해(결과상 및 이로부터 파생된 정태상) '-고 있-'은 이보다 다양한 상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7) 철수는 흰 셔츠를 입고 있다.

이 문장은 철수가 흰 셔츠를 착용하는 동작을 완결한 뒤 그 결과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철수가 현재 흰 셔츠를 착용하는 동작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전자는 대개 완료상, 후자는 진행상(progressive aspect)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전자의 상적 의미는 완료상보다는 결과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데, 이는 '-아/어 있-'에 대해 적용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그대로 적용해 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철수는 흰 셔츠를 입고 있다'라는 문장은 철수가 흰 셔츠를 착용하는 동작을 완료한 뒤 그 결과 상태를 반드시 철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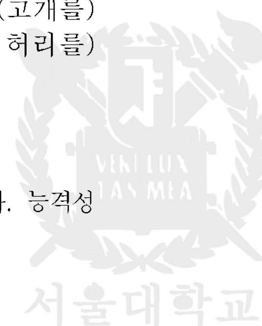
가 지녀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 사태가 관여성(relevance)을 갖는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는 없다. 완료상 내지 결과상을 나타내는 '-고 있-'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매우 제약되어 있으며, '철수는 2시간 동안 모자를 쓰고 있었다'에서 기간 부사구는 결과 상태의 성립 기간을 나타내며 '철수는 7시 정각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에서 순간 시점 부사구는 모자를 쓰는 동작이 일어난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상태가 7시 정각에 성립됨을 나타낸다.

Nedjalkov(2001)에서는 여러 언어의 결과상을 유형론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과상을 S-결과상, A-결과상, P-결과상의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15] S-결과상은 어기 자동사의 주어가 결과상 동사의 주어가 되는 구문이고, A-결과상은 어기 타동사의 주어가 결과상 동사의 주어가 되는 구문이고, P-결과상은 어기 타동사의 목적어가 결과상 동사의 주어가 되는 구문이다. '누워 있-' 같은 것이 S-결과상의 예이고, '옷을 입고 있-' 같은 것이 A-결과상의 예이며, 위에서 본 '써 있-' 같은 것이 P-결과상의 예이다. P-결과상은 중세국어에서는 꽤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국어에 와서는 매우 위축되어 있다. 결과상을 이렇게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현대 한국어에서 대체로 S-결과상은 '-아/어 있-'으로, A-결과상은 '-고 있-'으로 표현된다고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대로 일부 타동사, 주로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의 지시 대상이 변화를 입는 사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아/어 있-'으로 결과상을 나타낼 수 있다.

S-결과상이나 P-결과상에 비해서 A-결과상을 갖는 언어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또한 A-결과상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는 많은 언어에서 어휘적으로 매우 제약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동사는 여러 언어에서 놀랄 만한 공통성을 보인다고 한다. Nedjalkov(2001)에 제시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to take', 'to lose', 'to receive'를 의미하는 동사; '가지다, 지니다, 취하다, 띠다'
② 'to put on (clothes)'를 의미하는 동사; '입다, 착용하다, 쓰다, 신다, 차다, 두르다, 끼다, 걸치다, 달다, 베다, (이불을) 덮다'
③ 'to lower one's head'처럼 신체부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고개를) 숙이다, 들다, (손을) 내리다, (눈)을 뜨다, 감다, (다리를) 꼬다, (다리, 허리를) 펴다, 구부리다, (팔장을) 끼다, (입을) 벌리다, 다물다, (무릎을) 꿇다"
④ 신체부위에 대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15) 여기서 S, A, P는 각각 자동사 주어, 타동사 주어, 타동사 목적어를 나타낸다. 능격성 등에 관한 유형론적 논의에서 이러한 표기법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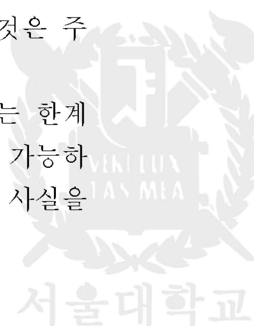
⑤ 'to surround', 'to follow (sb)'처럼 인접성(affinity), 접촉(contact), 부착(attachment)을 나타내는 동사; '둘러싸다, 뒤따르다'
⑥ 'to eat', 'to drink'를 의미하는 동사
⑦ 'to see', 'to learn', 'to study (sth)'처럼 정신적 획득(mental acquisition)을 나타내는 동사
⑧ 'to make a mistake', 'to perform a deed', 'to win a victory' 같은 동사 연어

이 목록은 한국어에서 '-고 있-'과 자주 공기하는 동사들의 목록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일치를 보여 준다. '소유, 소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①에 해당하며, '신체 소지'를 의미하는 동사들이 ②에 해당하고, '자세 취하기'를 의미하는 동사들이 ③에 해당한다. '들다, 안다, 끌어안다, 껴안다, 떠안다, 메다, 둘러메다, 지다, 짊어지다, (머리에) 이다, (장갑을) 끼다, 쥐다, 잡다, (입에) 물다, 휴대하다, 지니다, 맡다, 담당하다, 붙이다, 데리다, 거느리다, 모시다' 등도 ②와 매우 밀접히 관련된 의미 부류로서 '-고 있-'과 높은 빈도로 공기하는 동사들이다. ④는 중세국어에서는 '안할 닶기-', '고할 셕히 ᄒᆞ-'와 같은 예가 꽤 있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타동 구문으로 잘 실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⑤는 '포함' 및 '관계' 동사에 해당한다. ⑥-⑧은 한국어에 정확히 대응되는 예는 별로 없는 듯하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알고 있-' 같은 예가 ⑦에 대응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한국어의 결과상 '-고 있-' 구문은 A-결과상이 보여 주는 범언어적인 특징을 거의 그대로 보여 준다.

3.4.3. '-고 있-'의 상적 의미 2: 진행상 대 연속상

다음으로 진행상으로 간주되어 온 '-고 있-'에 대해 살펴보자. 진행상은 흔히 동적인 사태가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상 범주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정의에도 이미 함축되어 있듯이 많은 언어에서 진행상은 정태 술어(static predicate)와는 결합하지 않는 제약을 보인다고 한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어에서 정태 술어라고 할 수 있는 '알-', '모르-', '사랑하-', '미워하-', '좋아하-' 등이 '-고 있-'과 매우 높은 빈도로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알고 있-'의 경우에는 '알-'을 "깨닫다, 알게 되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한계동사로 보고 이것과 결합하는 '-고 있-'을 결과상 표지로 보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세국어에서는 더 분명하지만 현대국어에서도 '그는 그제서야 그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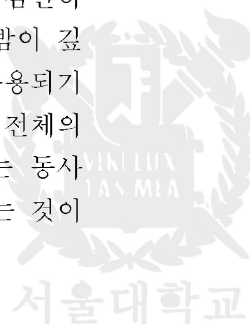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알았다' 같은 예를 통해 '알-'이 그러한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알고 있-'을 결과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즉 '알고 있-'은 어떤 사실을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 결과 상태가 성립됨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모르고 있-'이나 '사랑하고 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듯하다. '알-'과 달리 '모르-'는 한계 동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예들을 고려하여 한국어의 '-고 있-'을 진행상이라기보다는 연속상(continuous aspect)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연속상은 진행상이 비완결상(imperfective aspect)으로 발전하는 문법화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진행상이 동태 술어(dynamic predicate)와만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연속상은 그런 제약을 갖지 않는다. 즉 문법화의 진척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결합 제약이 느슨해지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고 있-'이 '알-', '모르-', '사랑하-' 같은 정태 술어와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매우 높은 빈도로 결합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면 '-고 있-'을 진행상보다는 연속상 표지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비견할 수 있는 현상이 중세국어의 '-아/어 잇-' 구성에서도 관찰된다. 중세국어의 '-아/어 잇-'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현대국어의 '-아/어 있-'과 같이 S-결과상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 외에도 A-결과상, P-결과상도 나타낼 수 있었고, 문법화된 '-았/었-'의 전신으로서 과거 시제에 가까운 의미도 나타낼 수 있었고, 현대국어의 연결어미 '-고'의 기능을 당시에 주로 '-아/어'가 담당했음을 상기할 때 진행상 내지 연속상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런데 더욱 주목되는 것은 중세국어의 '-아/어 잇-'이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국어에도 잔재가 남아 있어서, '-아/어 있-'이 형용사와 공기하는 예가 말뭉치에서 꽤 발견된다(3.3.2. 참조). 이에 대해 중세국어에서는 형용사가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자동사로 전용되는 일이 많이 있었으므로 '-아/어 잇-'과 결합된 형용사는 형용사 자체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자동사로 전용된 것이고 이 때의 '-아/어 잇-'은 결과상 표지로 보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분석이 가능하다. 현대국어의 '날이 밝아 있-' 같은 예도 '날이 밝는다'같이 '밝-'이 동사로도 쓰이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슷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날이 어두워 있었다'나 '밤이 깊어 있었다' 같은 예를 보면 '어둡-'이나 '깊-'이 독자적으로는 동사로 사용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분석을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그래도 문장 전체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런 경우의 '어둡-'이나 '깊-'이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 사용되었고 '-아/어 있-'이 결과상 표지로서 여기에 결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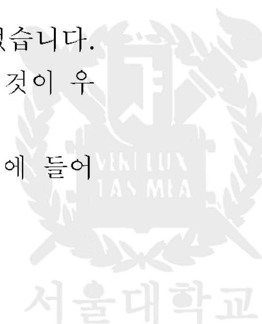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3.3.2.의 (1)에서 살펴본 예들 중에는 상태변화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그러한 분석을 모든 경우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도 형용사에 '-아/어 잇-'이 결합된 모든 예가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설명은, 중세국어의 '-아/어 잇-' 역시 현대국어의 '-고 있-'처럼 연속상의 표지로 보는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에 '-아/어 잇-'이 결합되면 형용사가 나타내는 속성 내지 상태가 영구적으로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의 상태를 현장감 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8) a. ᄀᆞᄅᆞᄆᆞᆫ 치운 묏 閣ᄋᆞ로 디나가고 城은 먼 ᄀᆞᆺ 樓에 노팟도다 (江度寒山閣 城高絶塞樓) <杜詩14:7b-8a>
b. ᄇᆞᄅᆞᄆᆞᆫ 蛟龍의 비를 보내오 하ᄂᆞᆯᄒᆞᆫ 驃騎ㅅ 兵營에 기렛도다 (風送蛟龍雨 天長驃騎營) <杜詩24:45b-46a>

(8a)에서 화자는 성이 항구적으로 높이가 높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를 읊던 그 당시 상황에서 매우 높게 느껴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며, (8b)에서도 하늘이 항구적으로 길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시인에게 느껴지는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예들에서 '높-'이나 '길-'이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로 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의 높이가 높아진다거나 하늘이 더 길어지는 따위의 일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어 있-'만큼은 아니지만 '-고 있-'도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들이 말뭉치에서 발견된다.

(9) a. 이는 공리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아퀴나스, 칸트 등 대부분의 의무론자들도 공유했던 생각이며 오늘날까지도 건재하고 있는 윤리학적인 전통이다.
b. 감을 다 담은 어머니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c.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개력이었는가.
d. 이 씨름이 있기 때문인지 다른 스포츠 종목들은 이미 개화기에 들어왔는데 레슬링만은 굉장히 뒤늦고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e. 그런데 어미벌은 그 널찍한 집 구멍을 앞에 두고, 애벌레 그놈을 앞에 두고, 출입구를 찾는 데만 골똘하고 있다.
f. 외무부측에서는 최근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g. 현재 우리 나라의 법 집행이 과연 여기에 충실하고 있는가.
h. 칫째는 언제까지나 잠잠하고 있다.
i. 초의선사는 한양으로 가고자 남산의 재를 넘다가 바위벼랑에 뿌리를 박고 독야청청하고 있는 소나무를 보고,

여기서 '-고 있-'과 결합된 용언은 '-고 있-'과의 결합을 제외한 활용 양상을 고려할 때 동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용사적 용법뿐 아니라 동사로서의 용법이 이들의 어휘 내항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특정 문맥에서는 동사 비슷하게 전용된 용법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런데 본고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위의 예들에서 문제의 용언을 형용사로 보든 동사로 보든 정태 술어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이 예들 역시 정태 술어에 '-고 있-'이 결합된 예로서, '-고 있-'을 진행상으로 보기보다는 연속상으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연속상의 '-고 있-'이 정태 술어에 결합되면 어떤 의미를 덧보태는가? '좋아하-'와 '좋아하고 있-'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어떤 사람의 비교적 항구적인, 최소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嗜好를 나타내고 있음에 반해, 후자는 지속성이나 항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차이가 있다. 요컨대 중세국어든 현대국어든 소위 진행상 표지로 알려진 보조용언이 정태 술어와 결합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 사실을 중시할 때 그 보조용언은 진행상보다는 연속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4.4. '-고 있-'의 상적 의미 3: 정태상

앞서 3.3.5.에서 결과상의 '-아/어 있-'에서 파생된 용법으로 정태상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결과상의 '-고 있-'에서 파생된 용법으로 정태상을 나타내는 용법이 존재한다.

(10) a. 이 도시를 여러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b. 그는 선천적으로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c. 한국은 수출품 중에서 반도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고 있-'과 결합하고 있는 동사들의 어휘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들은 정태 술어가 아니다. '깡패들이 그를 순식간에 둘러쌌다' 같은 예에서 보듯이 '둘러싸-'는 어떤 대상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자리를 잡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태 술어이다. '이건 네가 가져라', '모든 재산을 그가 차지했다' 같은 예에서 보듯이 '가지-'나 '차지하-'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동작, 또는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었던 것을 자신의 통제권 내에 들어오게 만드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역시 동태 술어이다. 그러나 위의 예문들을 그러한 동태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함축하지 않는다. 단지 그러한 사건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 결과로서 성립됨직한 상태가 성립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이다. 이것은 3.3.5.에서 밝힌 정태상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된다. 정태상이 결과상에서 파생된 용법임을 상기할 때, 결과상을 나타낼 수 있는 '-고 있-'이 정태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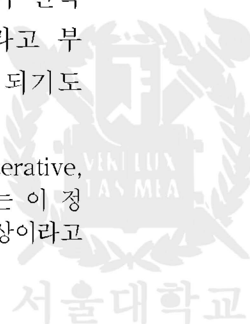
3.4.5. '-고 있-'의 상적 의미 4: 반복상

진행상 내지 연속상을 나타내는 요소가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일이 범언어적으로 많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이른바 사태의 복수성(plurality of situations)이라 불리는 의미 범주이다.

(11) a.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b. 지금 전쟁터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적의 총칼에 쓰러지고 있다.
c. 전국에서 국민들이 많은 성금을 보내 오고 있다.
d. 그는 20년 전부터 해마다 추석에 고아원을 방문하고 있다.

(11)에 제시된 예들은 '-고 있-'과 결합하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그 사태가 반복해서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흔히 반복상(iterative aspect)이라고 부른다.[16] 결합하는 동사가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어서 연속상으로 해석되기도

16) 이 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최근의 유형론적 연구인 Xrakovskij(1997)에서는 iterative, multiplicative, distributive로 의미 범주를 더 세분하여 다루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 정도의 세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여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반복상이라고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어렵고, 또한 결과상으로 해석되기도 어려울 때 반복상으로의 해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어나 목적어 등의 논항이 복수라는 것도 반복상으로의 해석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사태의 복수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반복상 표지 외에도 부사 등 다른 방법들이 여러 언어에서 관찰된다고 한다. 한국어에서 사태의 복수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대표적인 문법요소는 '-들2'이다.[17]

3.4.6. '-고 있-'의 상적 의미와 결합 제약

'-고 있-'이 4가지 상적 의미 중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동사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적 의미에 따른 결합 제약의 차이를 정밀하게 밝혀낸다면, 거꾸로 어떤 동사와 결합했는가를 보고서 '-고 있-'의 상적 의미를 추론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결과상의 '-고 있-'은 A-결과상에 해당하는데, 범언어적으로 A-결과상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는 극히 제약되어 있고, 그 동사의 목록은 여러 언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한국어도 이러한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가지-', '취하-' 등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입-', '신-', '쓰-'(冠) 등 신체 착용을 나타내는 동사, '쥐-', '들-', '품-', '안-', '잡-' 등 신체에 지님을 나타내는 동사, '눈을 뜨-', '눈을 감-', '입을 벌리-', '입을 다물-', '고개를 숙이-', '고개를 젖히-', '손을 들-', '주먹을 쥐-' 등 신체부위를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등이 그러한 범언어적 경향성에 일치되는 동사 부류이다. 이 밖에도 '장악하-', '맡-', '자리잡-', '잊-', '형성하-', '곤두세우-' 등도 '-고 있-'과 결합했을 때 결과상으로 해석된다. 말하기-쓰기 동사나 규정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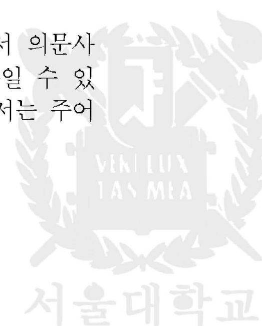
하겠다.

17) 체언에 직접 결합되는 '-들1'이 대상(object)의 복수성을 나타낸다면, 부사나 용언의 활용형 뒤에 붙는다든지 문말에 나타나기도 하여 보조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들2'는 사태의 복수성을 나타낸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아래 예문 i)이 이것을 보여 준다.

i) 어서들 들어오너라.

한편 한국어에서 의문사의 복수는 중첩(reduplication)에 의해 표현된다. 따라서 의문사에 '-들'이 붙으면 이것은 '-들2'로 해석된다. 아래 예문에서 ii)의 주어는 단수일 수 있고, 그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갔었던 장소가 복수임을 함의하는 반면에, iii)에서는 주어가 복수임을 함의한다.

ii) 어디어디 갔었니?
iii) 어디들 갔었니?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미를 갖는 동사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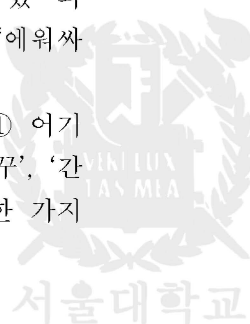
(12) a. 이 책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이 책의 필자는 이 사건이 그 해 10월 15일에 일어난 것으로 적고 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한 차례 기록(규정, 주장)했고 그 결과물이 책이라는 텍스트 속에 담겨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들은 결과상의 예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의 피동형 '적혀 있-', '규정되어 있-', '기록되어 있-' 등은 이론의 여지 없이 결과상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타동 구문의 결과상은 '-아/어 있-' 대신 '-고 있-'으로 표현된다는 일반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결과상으로 보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 번 기록된 텍스트는 많은 독자들에 의해 반복해서 읽히며, 독자에 의해 읽힐 때마다 필자가 동일한 내용을 독자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반복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한편 자세 취하기(posture) 동사는 대개 결과상의 '-아/어 있-'과 매우 높은 빈도로 결합함을 앞에서 보았는데, '-아/어 있-'과는 오히려 결합하지 않고 '-고 있-'과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것들도 있다. '몸을 웅크리/도사리-', '가슴/허리를 펴-' 등이 그런 예이며, '-을/와 마주하-'도 이와 비슷한 범주에 든다. 이들이 결과상의 의미를 '-아/어 있-' 대신 '-고 있-'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역시 타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부위를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고 있-'의 정태상적 해석을 낳는 동사는 '-고 있-'의 결과상적 해석을 낳는 동사와 일치하거나 그 부분집합이며, 어기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가 과거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맥적 요인이 존재할 때 정태상으로의 해석이 촉진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고 있-'과 결합하는 동사가 무엇인가만 보고서 정태상으로의 해석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기는 해도 '-고 있-'과 결합했을 때 정태상으로 빈번히 해석되는 동사들이 있는데, '둘러싸-', '에워싸-', '차지하-', '점하-', '점유하-', '갖추-' 등이 그러한 예이다.

'-고 있-'의 반복상적 해석을 촉진하는 요인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① 어기 동사가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 ② 논항이 복수인 경우, ③ '자꾸', '간헐적으로' 등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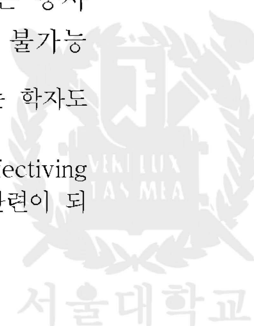
지적할 것은 동사의 어휘적 의미 자체에 반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반복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꿈틀거리-', '건들거리-' 등 접미사 '-거리/대/이-'에 의해 형성된 동사는 이 접미사에 의해서 동사의 어휘적 의미 자체에 반복성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동사에 '-고 있-'이 결합되었을 때 전체 구성이 반복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고 있-'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동사와 결합하는 '-고 있-'은 반복상이 아니라 연속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동사 자체는 1회적인 사태를 나타내지만 '-고 있-'과 결합해서야 비로소 반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만 반복상에 해당한다.

이것은 동사의 어휘적 의미로서의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 Aktionsart, actionality)과 문법 요소에 의해 표시되는 상(aspect)을 구분해서 논의해야 함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이다.[18] 이와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동사 부류로 앞에서 살펴본 '눕-', '앉-', '서-' 등의 자세 취하기 동사를 들 수 있다. 이들 동사는 신체 부위의 일정한 형상(configuration)에 의해 정의되는 특정 자세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그런 자세를 취하는 동태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정의된 특정 자세(신체 부위들의 특정 형상)가 만들어지면 그 동작이 완료된다. 즉 이들은 정태 술어가 아니다. '-아/어 있-'과 결합해서야 비로소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이들과 결합하는 '-아/어 있-'은 전형적인 결과상 표지라 할 수 있다. 이들 동사가 정태 술어라는 오해가 생기는 데에는, 영어의 'stand', 'sit', 'lie' 등이 정태 술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영어의 이들 동사는 'up', 'down' 등의 소위 bounder(동사가 나타내는 사태의 끝점 내지 완결점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요소)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동태 술어가 된다.[19] 요컨대 한국어의 '서-', '앉-', '눕-'의 번역 대당어(translational equivalent)는 'stand', 'sit', 'lie'가 아니라 'stand up', 'sit down', 'lie down'이다.

연속상은 '-고 있-'의 가장 무표적이고 중심적인 의미이다. 텍스트의 토큰 빈도로 보나 결합 가능한 동사의 타입 빈도로 보나 연속상적 해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사실 앞에서 결과상, 정태상, 반복상적인 해석을 촉진하는 동사들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그런 동사들의 경우에도 연속상적 해석이 전혀 불가능

18) 전자를 상황상(situation aspect), 후자를 관점상(viewpoint aspect)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Smith 1991).

19) 독일어의 'aus-' 같은 소위 분리 전철 접두사, 러시아어의 'pro-' 같은 perfectiving prefix도 영어의 이러한 첨사(particle)와 기능도 거의 비슷하고 기원적으로도 관련이 되어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 '옷을 입고 있-'이 결과상-연속상의 중의성을 보임은 앞에서도 지적했고,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에도 반복상으로의 해석이 장려되기는 하지만 적당한 문맥이 주어지면 연속상으로의 해석도 가능하다. '도착하-'가 대표적인 예인데, '도착하-' 자체는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열차가 도착하고 있-'은 반복상(여러 열차들이 반복해서 도착하는 의미)뿐 아니라 연속상적인 해석(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서고 있다는 의미)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고 있-'의 동사와의 결합 제약을 동사의 어휘 의미에 입각해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 있-'이 원칙적으로는 정태 술어든 동태 술어든, 자동사든 타동사든 모든 동사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말뭉치에서 '-고 있-'과 한 번도 결합하지 않는 동사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단순히 말뭉치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얼마든지 가능한 결합이 포착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고 있-'과의 결합을 원리적으로 거부하는 특수한 동사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말뭉치에서 '-고 있-'과 한 번도 결합하지 않은 동사들 중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동사	f(v)	Z
1	싶/VX	6070	-13.8997
2	의하	5157	-12.8078
3	관하	2605	-9.09509
4	듯하/VX	2441	-8.80366
5	비하	1515	-6.93347
6	인하	1242	-6.27719
7	어쩌	1197	-6.16233
8	불구하	997	-5.62362
9	달/VX	991	-5.60666
10	눕	988	-5.59816
11	마치	988	-5.59816
12	비롯하	914	-5.3843
13	터지	753	-4.88686
14	더불	692	-4.68465
15	비	648	-4.5332
16	재미있	648	-4.5332
17	어울리	616	-4.41981
18	관련하	602	-4.36927
19	구성되	591	-4.32915
20	담기	523	-4.0724
21	결혼하	493	-3.95383

순위	동사	f(v)	Z
51	내버리	232	-2.71207
52	망하	229	-2.69447
53	딸리	223	-2.65894
54	벗기	223	-2.65894
55	도와주	222	-2.65297
56	제거하	219	-2.63498
57	늘어지	216	-2.61686
58	끊어지	215	-2.6108
59	뻔하/VX	206	-2.55556
60	성립되	205	-2.54935
61	완성되	203	-2.53688
62	얼	196	-2.49275
63	맛있	195	-2.48639
64	적히	194	-2.48
65	존중하	194	-2.48
66	오래되	192	-2.46718
67	넘어지	191	-2.46075
68	낫	190	-2.4543
69	응하	189	-2.44783
70	절리	188	-2.44135
71	덜	185	-2.42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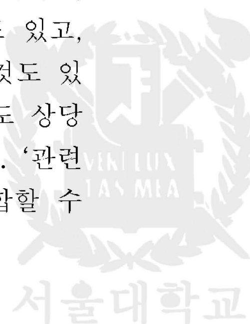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2	아니하/VX	403	-3.57466
23	틀리	402	-3.57022
24	계시/VX	400	-3.56132
25	계시	398	-3.55241
26	해당하	398	-3.55241
27	쏘	385	-3.49389
28	집	372	-3.43438
29	생각나	367	-3.41122
30	들르	352	-3.34076
31	졸업하	345	-3.30737
32	털	345	-3.30737
33	갇히	336	-3.26394
34	헤어지	335	-3.25907
35	설치되	304	-3.10459
36	모자라	298	-3.07379
37	다치	290	-3.03224
38	감안하	288	-3.02177
39	사로잡히	270	-2.9258
40	합치	267	-2.90949
41	돌아가시	254	-2.83777
42	나뉘	252	-2.82657
43	갚	246	-2.79271
44	주저앉	243	-2.77563
45	얽히	241	-2.76418
46	넓히	239	-2.75269
47	입히	237	-2.74114
48	어찌하	235	-2.72955
49	깨어나	233	-2.71791
50	꺼지	232	-2.71207

72	개선하	182	-2.40207
73	묶이	180	-2.38883
74	바로잡	180	-2.38883
75	뽑히	176	-2.36214
76	뵈	173	-2.34192
77	구별되	167	-2.30094
78	선정하	166	-2.29404
79	말씀드리	163	-2.27321
80	주의하	163	-2.27321
81	주되	159	-2.24515
82	익	157	-2.23098
83	찢어지	154	-2.20956
84	확정되	154	-2.20956
85	멎	153	-2.20237
86	성숙하	153	-2.20237
87	신나	153	-2.20237
88	위로하	153	-2.20237
89	뭉치	152	-2.19516
90	부러지	151	-2.18793
91	식	150	-2.18067
92	씌우	149	-2.17339
93	조르	149	-2.17339
94	쫓겨나	149	-2.17339
95	구분되	148	-2.16608
96	기소되	148	-2.16608
97	되돌아가	148	-2.16608
98	성립하	148	-2.16608
99	타고나	148	-2.16608
100	두들기	147	-2.15875

이들 중 보조용언 '싶-'과 '듯하-', '재미있-', '맛있-' 등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고 있-'과 결합하지 않는다. 이 말뭉치에서 보조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지 않고 태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에 포함된 것이고 '재미있-'과 '맛있-'이 동사로 태깅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다음으로 '-고 있-'과 결합하지 않는 원리적인 이유를 찾자면 활용의 제약성을 들 수 있다. 이 부류에는 '의하-', '관하-', '비하-', '인하-', '불구하-', '비롯하-' 등 소위 후치사적 동사도 있고, '더불-'이나 보조용언 '달-'과 같이 소위 불구동사로 많이 논의되어 온 것도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기존 논의에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정도의 활용상의 제약을 갖는 동사들을 여기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관련하-', '감안하-' 등은 연결어미 '-아/어'나 관형사형 어미 '-ㄴ'과만 결합할 수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있고, '오래되-', 보조용언 '뻔하-'는 선어말어미 '-었-'이나 관형사형 어미 '-ㄴ'과만 결합할 수 있고, '주되-'와 '타고나-'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만 결합한다. 보조용언 '계시-'와 본용언 '계시-'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도 문제가 되지만, 어휘 의미상 '-고 있-'과의 결합이 원리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이들이 '-고 있-'과 결합하지 않는 것은 원리적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원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고 있-'과의 결합이 현실 언어 상황에서 발생할 것 같지 않은 동사들도 있다. '눕-', '주저앉-', '비-', '담기-', '딸리-', '적히-', '멎-'; '틀리-', '해당하-', '생각나-', '신나-' 등이 그런 예이다. 앞의 6개는 '-아/어 있-'과 매우 높은 빈도로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역시 활용이 원리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도, 실제 쓰임을 보면 몇몇 활용형만으로 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나머지 동사들은 '-고 있-'과의 결합이 원리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그렇더라도 주로 반복상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들이 많다.

'-고 있-'의 네 가지 상적 의미 중 결과상과 정태상이 비교적 가까워서 하나의 상위부류로 묶일 수 있으며 연속상과 반복상도 하나로 묶일 수 있다. 범언어적으로 하나의 표지가 연속상 내지 진행상과 반복상을 나타내는 일도 흔히 있고, 하나의 표지가 완료상 내지 결과상과 정태상을 나타내는 일도 흔히 있다. 한국어에서 특이한 점은 결과상-정태상을 하나의 표지로 다 나타내고 진행상-반복상을 다른 표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상-정태상의 경우 자동 구문과 타동 구문을 구분하여 전자는 '-아/어 있-', 후자는 '-고 있-'으로 나타내고 있고, 후자가 연속상-반복상의 표지와 형태상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h>상적 의미</th><th>타동성</th><th>표지</th></tr>
<tr><td rowspan="2">결과상-정태상</td><td>자동</td><td>-아/어 있-</td></tr>
<tr><td>타동</td><td rowspan="2">-고 있-</td></tr>
<tr><td>연속상-반복상</td><td>자동-타동</td></tr>
</table>

3.5. '-아/어 버리-'의 결합 양상

3.5.1. '-아/어 버리-'와 결합하는 동사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말뭉치에서 보조용언 구성 '-아/어 버리-'는 5,538회 출현하는데, 이 중 형용사나 계사와 결합한 예가 5개 있다.

(13) a. 어서 -- 차라리 -- 어두워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겠을 만치 긴다.
b. 또 이러한 성격은 …… 자신에게 필요한 불교의 한 부분만 취하고 불교 전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해 버리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c. 그 층층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한국의 강물은 유속이 빨라 버렸다 하면 삽시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d. 수필 <城>에서 정말로 그런 상태는 오직 황폐해버린 그래서 텅 빈 옛 성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

이들은 '-아/어 버리-' 앞에 결합된 용언이 독자적으로는 동사로 쓰이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 문맥에서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 전용된 것으로 생각된다.[20)]

'-아/어 버리-' 앞에 출현하는 동사의 타입은 935개, 토큰은 5,533개이다. '-고 있-'이나 '-아/어 있-'에 비해 토큰의 절대 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타입의 수가 적은 편이다. 이것은 '-아/어 버리-'와 결합할 수 있는 용언에 더욱 심한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어 버리-' 앞에 출현한 동사들 중 출현 횟수 1회인 것을 제외하고 통계성 유의성이 높은 최상위 100개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위	동사	f(v, 어버리)	f(v)	Z
1	떨치	86	235	91.0373
2	사라지	150	1200	68.8986
3	날아가	49	286	46.4705
4	그르	7	7	43.2106
5	끊	56	483	40.4368
6	없애	49	432	37.3843
7	달아나	49	456	36.319
8	굳	20	98	32.5161
9	지우	39	390	31.1731

순위	동사	f(v, 어버리)	f(v)	Z
51	가	167	13677	16.3501
52	유배당하	2	4	16.2711
53	불사르	6	36	16.0272
54	쫓	16	239	16.0243
55	질리	14	188	15.9028
56	늙	34	988	15.8199
57	포기하	25	595	15.3163
58	허물	9	87	15.2491
59	무시하	22	484	15.0535

20) 전라 방언에서도 형용사에 '-아/어 불-'(표준어의 '-아/어 버리-'에 대당하는 형태)이 결합되는 일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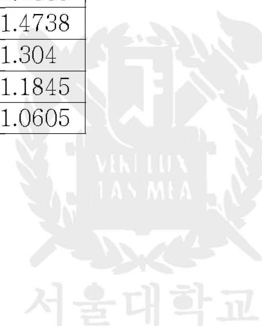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0	치부하	14	54	30.7836
11	꺼지	29	232	30.2846
12	식	23	150	30.0396
13	덮	37	379	29.9722
14	날리	35	343	29.8536
15	되	416	29493	29.5273
16	죽	127	3950	29.3307
17	찢	25	195	28.4983
18	떠나	92	2316	28.4249
19	불타	18	104	28.3133
20	놓치	34	372	27.7249
21	털	31	345	26.2297
22	다물	27	266	26.1457
23	닫	31	354	25.865
24	벗	42	634	25.8136
25	죽이	52	1002	25.007
26	증발하	9	34	24.947
27	묻히	32	406	24.8086
28	던지	53	1090	24.3111
29	숨	37	606	23.1421
30	삼키	22	231	22.8034
31	끄	22	237	22.4892
32	망치	16	134	21.9531
33	매장시키	3	5	21.8572
34	지나치	28	411	21.4073
35	소멸하	9	47	21.1027
36	전락하	15	128	21.0451
37	변하	47	1132	20.8555
38	헐	13	102	20.4856
39	쓸어가	3	6	19.9279
40	자르	26	433	19.2162
41	마르	27	465	19.2132
42	낡	2	3	18.8234
43	빠지	61	2174	18.616
44	녹	19	256	18.4923
45	폭파시키	3	7	18.4266
46	치우	17	223	17.7523
47	부수	13	144	17.0279
48	시들	10	89	16.8016
49	지치	23	437	16.7635
50	내던지	12	132	16.4218

60	나가	64	3230	15.0097
61	엎	7	56	14.8781
62	주저앉	15	243	14.8245
63	지나가	32	987	14.7859
64	소진시키	2	5	14.526
65	감추	23	560	14.492
66	도망치	14	229	14.2439
67	자살하	11	146	14.1873
68	넘기	25	684	14.0779
69	흘러가	13	220	13.464
70	떼치	2	6	13.2355
71	불태우	6	52	13.2002
72	매몰되	5	37	13.1041
73	씻	19	473	12.9967
74	숙청하	3	14	12.9155
75	사그라지	3	14	12.9155
76	뒈지	4	25	12.8095
77	봉하	5	39	12.7441
78	가라앉	13	245	12.6613
79	짓밟	7	76	12.6314
80	빼	25	830	12.4713
81	말라붙	3	15	12.4618
82	떼	21	630	12.1869
83	일축하	5	43	12.0997
84	얼	11	196	12.027
85	희화화되	1	2	11.5054
86	획일화시키	1	2	11.5054
87	짓부수	1	2	11.5054
88	제련하	1	2	11.5054
89	응결하	1	2	11.5054
90	양식화하	1	2	11.5054
91	실격하	1	2	11.5054
92	수몰되	1	2	11.5054
93	뭉개	1	2	11.5054
94	낙선시키	1	2	11.5054
95	경정하	1	2	11.5054
96	태우	17	473	11.4889
97	늦	9	146	11.4738
98	드러눕	8	120	11.304
99	무너지	17	494	11.1845
100	감	19	614	11.0605

이 동사들을 의미 부류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사역적 상태 변화: 덮-, 단-, 폭파시키-, 불사르-, 불태우-, 태우-, 엎-, 봉하-, 비우-, 구기-, 돌리-, 사르-
제거: 떨치-, 없애-, 지우-, 날리-, 죽이-, 끄-, 털-, 벗-, 치우-, 쫓-, 씻-, 숙청하-, 빼-, 떼-, 뽑-, 쓸-, 제거하-, 팔-
파괴: 찢-, 망치-, 헐-, 부수-, 허물-, 짓밟-, 밟-, 철거하-
절단: 끊-, 자르-, 막-
소진: 소진시키-, 탕진하-
상실: 상실하-
망각: 잊-, 망각하-
상태 변화: 굳-, 식-, 되-, 불타-, 전락하-, 변하-, 마르-, 낡-, 녹-, 시들-, 지치-, 절리-, 말라붙-, 얼-, 무너지-, 썩-, 막히-, 멀-, 허물어지-, 늙-, 기절하-, 차-, 퇴화되-, 단히-, 크-
소멸: 사라지-, 꺼지-, 숨-, 죽-, 증발하-, 소멸하-, 자살하-, 사그라지-, 뒈지-, 은둔하-, 횡사하-
떠남: 날아가-, 달아나-, 떠나-, 도망치-, 흩어지-, 도망가-
중단: 멎-, 끝나-, 두절되-, 끝장나-
이동: 가-, 나가-, 지나치-, 지나가-, 흘러가-, 가라앉-, 들어가-
실패: 그르-, 놓치-, 포기하-
경시: 치부하-, 무시하-, 넘기-, 일축하-
위임: 맡기-
함몰: 빠지-, 매몰되-, 함몰되-
독점: 쓸어가-
자세 취하기(posture): 다물-, 눕-, 드러눕-, 주저앉-
사역적 이동: 던지-, 내던지-, 팽개치-, 삼키-
놓기: 매장시키-, 감추-, 감-, 처박-
피동적 놓기: 묻히-, 파묻히-

'-아/어 버리-'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이미 보조동사적인 용법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문법화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되었다. 15세기 문헌 자료에서 보조동사 'ᄇᆞ리-'는 약 217회 출현하는데, 빈도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	빈도
ᄡᆞᆯ-	28
뻘-	19
싯-	19
놓-	17
긏-	14
덜-	12
지-	10
아ᇫ-	7
쟈-	6
ᄉᆞᆯ-	6

동사	빈도
걷-	5
묻-	5
밀-	4
버히-	4
잃-	4
펴-	4
헐-	4
ᄇᆞᅀᆞ-	3
ᄠᆞ리-	3
새혀-	3

동사	빈도
쌔혀-	3
그치-	2
밧-	2
벗-	2
벗기-	2
불-	2
ᄧᅳ-	2
ᅀᅳᆯ-	2
티-	2
져-	1

동사	빈도
그우리티-	1
ᄀᆞ리티-	1
ᄀᆞᆯ-	1
ᄀᆞᆰ-	1
내좇-	1
두위티-	1
드위티-	1
드위혀-	1
ᄆᆡ-(耘鋤)	1
바히-	1

동사	빈도
밧기-	1
ᄡᅧ히-	1
ᄢᅵ티-	1
ᄩᅳ-	1
사기-	1
ᅀᅳᆺ-	1
여희-	1
즈ᅀᅴ-	1
ᄑᆞ-	1
흗-	1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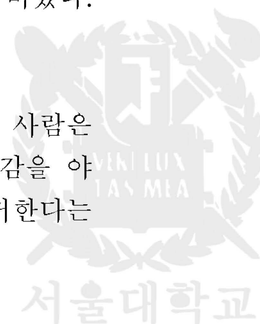
대체로 제거, 사역적 상태 변화, 파괴, 절단, 사역적 이동 동사들이며 모두 타동사이다. 현대국어에서 '-아/어 버리-'와 자주 결합하는 동사 부류의 부분집합이다. 15세기 문헌 자료가 양적으로도 많지 않고 장르도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현대국어와 비교할 때 15세기에는 '-아/어 버리-'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가 훨씬 더 제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법화가 진전되어 의미가 일반화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어휘요소의 수가 늘어난다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 또한 15세기에는 타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자동사와도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다. 위의 동사 부류들 중 상태 변화, 소멸, 떠남, 중단, 이동, 함몰, 자세 취하기, 피동적 놓기 등의 부류가 자동사이다.

이렇게 결합 가능한 동사의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어휘적 의미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화의 진척 정도가 높은 '-고 있-'이나 '-아/어 있-'에 비해서 결합되는 동사의 타입이 적은 것이다.

3.5.2. '-아/어 버리-'의 의미

보조동사 '-아/어 버리-'의 의미는 본동사로서의 '버리-'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어떤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긴장감을 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느 한 쪽으로 결정이 나서 그 긴장감이 사라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동사로서의 '버리-'가 자신의 소유 내지 통제 하에 있던 어떤 대상을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게끔 만드는 행위를 나타낸다면, 보조동사로서의 '-아/어 버리-'의 경우 버려지는 것은 심리적 부담감 또는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화자일 수도 있고 그 사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가리키는 사람일 수도 있다.

(14) a.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어느 쪽으로든 결정해 버려야겠다.
b. 나는 그가 여기 있어 주기를 바랐는데, 결국 오늘 그가 떠나 버렸다.
c. 오늘 소풍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 버려서 다 글렀다.



(14a)에서는 '결정하-'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화자가 일치한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가 그의 마음 속에서 긴장감을 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긴장감을 제거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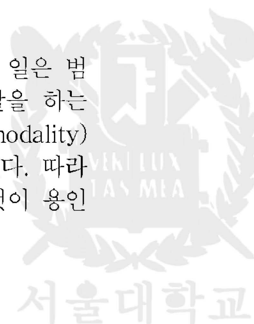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의미를 '-어 버리-'가 나타낸다. (14b)에서는 '떠나-'의 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화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정이 나기 전의 마음 속의 긴장감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한다. '떠나-'의 주어인 '그'가 지시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화자일 수도 있다. (14c)에서는 '오-'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무정물이기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어 버리-'가 지닌 이러한 두 해석을 각각 화자 지향적인 해석(speaker-oriented interpretation)과 주어 지향적인 해석(subject-oriented interpretation)이라고 부르기로 한다.[21)]

'-아/어 버리-'가 함축하는 심리적 긴장감을 지닌 사람이 꼭 어느 한 쪽으로의 결정을 바라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위의 (14b, c)가 바로 그런 예이다. (14b)에서 화자는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고, (14c)에서 화자는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런 경우 바라지 않는 쪽으로 결판이 나면, 심리적 긴장감이 해소되지만 그와 동시에 아쉬움의 감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아/어 버리-'가 아쉬움의 감정을 표현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흔히 일어나는 인과관계의 고리가 단축되어 환유에 의한 의미 확장이 일어난 예이다. 그런데 일어난 사태에 대한 아쉬운 감정의 표현이라는 확장된 의미가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제는 사태가 결판나기 이전의 심리적 긴장감이라는 요인은 덜 중요하게 된다. 즉 어떤 문제가 어떻게 결판날지에 대해 심리적 긴장감을 갖지 않더라도, 그냥 그 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잘 모르고 있었더라도 드러난 사태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아/어 버리-'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는 의미의 확장 방향이 "아쉬움"보다는 "체념" 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이미 결정이 난 결과에 대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아/어 버리-'의 이러한 의미를 고려할 때, 당연히 한계 동사와만 결합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어 버리-'와 자주 공기하는 동사들은 모두 한계 동사이다. '가-' 같은 동사는 언뜻

21) '화자 지향적인 해석'이라는 명칭이 꼭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심리적 긴장감을 지니는 사람이 상위문 주어의 지시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i) 그는 애인이 떠나 버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나의 문법 요소가 화자 지향적인 해석과 주어 지향적인 해석의 중의성을 갖는 일은 범언어적으로 흔히 있으며, 이 때 상위문 주어의 지시 대상이 화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흔히 목격한다. 영어 조동사 'may', 'must' 등이 갖는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적 의미와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적 의미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화자 지향적인 해석'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좀 느슨하게 사용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보기에 비한계 동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에 가-'처럼 목표 지점이 명시될 때나[22] "떠나다"의 의미일 때에는 한계 동사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계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결과상 내지 완료상 요소와 비슷한 점이다. 여기서 Bybee and Dahl(1989: 67-8)에서 지적한 완료상의 전형적인 기원 4가지 중 하나가 "finish" 또는 "cast aside"를 의미하는 동사 구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23] '버리-'는 완료상으로 발달하기에 적합한 의미를 지닌 동사인 것이다. 보조동사 '-아/어 버리-'의 문법화 과정은 완료상 표지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아/어 버리-'는 본동사일 때의 어휘적 의미가 문법화 과정에서 희석화(bleaching)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본격적인 상 표지의 단계로까지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어 버리-'가 완료상 내지 결과상 표지로 발달하는 데는 '-아/어 있-'과 '-고 있-'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아/어 버리-'는 그들과의 경쟁을 피하는 길을 택하다 보니 본동사일 때의 의미의 상당 부분을 오랫동안 잃지 않고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3.6. '-아/어 내-'의 결합 양상

보조용언 구성 '-아/어 내-'는 말뭉치에 3,652회 출현한다. '-아/어 내-'가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어 내-' 앞에 출현하는 동사의 타입은 382개, 토큰은 3,652개이다. '-아/어 놓-' 앞에 출현하는 동사들 중 빈도가 1인 것을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성의 상위 100개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위	동사	f(v, 어내)	f(v)	Z
1	만들	520	6390	127.638
2	토하	75	215	102.541
3	이끌	109	769	77.9974
4	끄집	20	29	74.7095
5	이기	97	667	74.5597

순위	동사	f(v| 어내,V)	f(v)	Z
51	헹구	5	23	20.8098
52	창조하	16	248	19.7324
53	깎	17	280	19.6826
54	빚	19	347	19.6705
55	이루	49	2180	18.8874

22) 동사의 상적 특성을 결정함에 있어 동사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이 동사의 어휘 의미만으로 결정될 수 없고 그 동사가 취하는 논항이나 부사구, 문맥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Verkuyl 1989, 1993 등 참조).

23) Bybee and Dahl(1989)에서 지적한 나머지 3개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① 계사+과거분사, ② 과거분사를 포함한 소유 구문, ③ 본동사 + "already"를 의미하는 첨사.

VERITAS LUX MEA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6	떼	89	630	70.3543
7	따	74	527	63.9493
8	우비	10	11	60.7043
9	견디	79	793	55.254
10	도리	9	11	54.6175
11	솎	11	17	53.6549
12	닦	61	553	52.01
13	고안하	17	52	47.2358
14	도출하	15	43	45.8549
15	씻	50	473	45.3416
16	소화하	21	86	45.2569
17	살리	66	828	44.891
18	그리	92	1691	43.1528
19	건지	24	132	41.6036
20	얻	109	2531	41.282
21	벗기	30	223	39.8195
22	털	37	345	39.2988
23	창출하	20	110	37.9784
24	꾸미	46	593	36.9357
25	자르	39	433	36.8109
26	생산하	35	391	34.758
27	발굴하	9	29	33.4725
28	엮	24	217	32.1631
29	오리	11	49	31.3774
30	훑	14	79	31.3588
31	밀치	12	61	30.6311
32	일구	14	85	30.1996
33	우리	3	4	30.1826
34	헐	15	102	29.484
35	기억하	31	430	29.1568
36	게우	5	12	28.9671
37	버티	28	367	28.5608
38	찍	36	660	27.0225
39	울구	3	5	26.974
40	쓸	21	244	26.3686
41	기르	39	826	25.978
42	쏟	26	380	25.9636
43	굽	20	232	25.7554
44	감당하	19	221	25.067
45	추출하	11	77	24.8727
46	양산하	8	42	24.5996
47	뱉	14	128	24.4217
48	산출하	7	35	23.5937
49	뽑	31	667	22.9577

56	덜	13	185	18.6225
57	배기	6	43	18.1471
58	뺨	10	120	17.8869
59	읽	55	2968	17.6997
60	되살리	10	129	17.2125
61	창안하	4	22	16.984
62	추리	5	36	16.5261
63	분리하	8	92	16.3631
64	구하	27	935	16.3161
65	밝히	59	3819	16.2334
66	발견하	28	1068	15.6834
67	걷	33	1497	15.3095
68	몰	16	457	14.0527
69	지키	33	1738	13.9231
70	개발하	15	456	13.1243
71	받	96	11523	12.7864
72	발명하	5	60	12.6477
73	생각하	73	7616	12.5962
74	키우	19	774	12.4122
75	찢	9	195	12.3202
76	밀	14	450	12.2743
77	구출하	3	24	12.1199
78	치르	17	713	11.5327
79	용접하	2	12	11.4839
80	베	9	229	11.2577
81	조작하	5	91	10.109
82	포착하	5	100	9.59886
83	검출하	2	17	9.58832
84	생성하	3	39	9.38867
85	계산하	7	197	9.3736
86	감지하	5	105	9.34337
87	이룩하	8	259	9.23887
88	베끼	4	72	9.09651
89	들추	4	75	8.89557
90	들치	2	20	8.80678
91	녹이	5	118	8.75443
92	해독하	2	21	8.58373
93	번역하	5	123	8.55233
94	떨치	7	235	8.45965
95	재현하	4	86	8.24848
96	허물	4	87	8.19563
97	교정하	2	23	8.18138
98	막	16	1086	8.1721
99	캐	6	198	7.9116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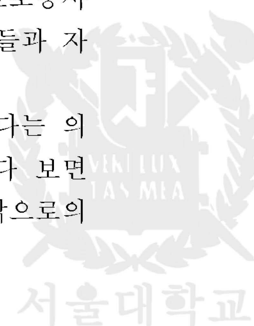
50	참	34	858	21.9881	100	유도하	7	269	7.80436

'-아/어 내-'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주 공기하는 동사들을 의미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창조: 만들-, 고안하-, 그리-, 창출하-, 꾸미-, 생산하-, 엮-, 일구-, 찍-, 기르-, 굽-, 양산하-, 산출하-, 창조하-, 빚-, 창안하-, 개발하-, 발명하-, 조작하-, 생성하-, 베끼-, 번역하-, 합성하-, 연출하-, 쪼-, 도안하-, 재현하-
사역적 상태 변화: 살리-, 되살리-, 구하-, 구출하-, 키우-, 녹이-, 꿰뚫-, 묶-, 교정하-
실현: 이루-, 이룩하-
획득: 따-, 소화하-, 얻-, 받-, 체화하-, 검출하-
지식 획득: 기억하-, 읽-, 생각하-, 포착하-, 계산하-, 해독하-, 감지하-, 유추하-, 캐-
발견: 발굴하-, 밝히-, 발견하-, 적발하-
도출: 이끌-, 도출하-, 추출하-, 유도하-
구분: 추리-, 분리하-, 식별하-, 구별하-, 고르-, 꼬집-
극복: 이기-
인내: 견디-, 버티-, 감당하-, 참-, 배기-, 감내하-
경험: 치르-
수호: 지키-, 막-
밖으로의 사역적 이동: 토하-, 끄집-, 떼-, 건지-, 우리-, 게우-, 울구-, 쏟-, 뱉-, 뽑-, 뿜-, 들추-, 들치-
제거: 우비-, 도리-, 솎-, 닦-, 씻-, 벗기-, 털-, 자르-, 오리-, 훑-, 밀치-, 헐-, 쓸-, 헹구-, 깎-, 덜-, 걷-, 몰-, 밀-, 찢-, 베-, 떨치-, 허물-, 움키-, 튀기-, 쫓-, 끌-

'-아/어 내-'와 자주 결합하는 동사들이 어떤 것인지 매우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난다. 창조(creation) 동사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본동사로서의 '내-'의 의미를 고려할 때 자연스럽다. 본동사로서의 '내-'는 안에 있던 대상을 밖으로 이동하게끔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창조 행위는 만드는 사람의 머리 속에 들어 있던 구상을 밖으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본동사 '내-'의 본래적 의미와 잘 어울린다. 본동사 '내-'의 의미로부터 흔히 도출되는 함축 중 하나는 지각할 수 없었던 대상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보조동사 '-아/어 내-'가 획득, 지식 획득, 발견, 구분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자주 결합하는 것도 따라서 이해할 수 있다.

'-아/어 내-'와 자주 결합하는 이 동사들은 모두 어떤 목표를 성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어 내-'가 이러한 동사들과 자주 결합하여 쓰이다 보면 "성취"의 의미가 '-아/어 내-'에도 스며들게 된다. 그러면서 "안에서 밖으로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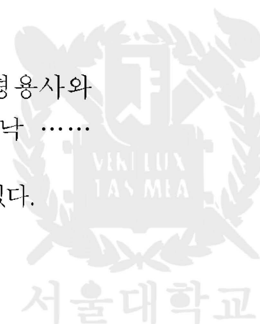
이동”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희석화된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결합 가능한 동사의 범위도 넓어져서 사역적 상태 변화, 극복, 수호, 경험, 인내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과도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되었다.

위에서 밖으로의 사역적 이동 또는 제거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결합한 ‘-아/어 내-’는 보조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을 야기한다는 본동사 ‘내-’의 의미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앞의 동사와 ‘-아/어 내-’가 하나의 합성 동사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보조동사로 보는 것도 가능한 듯하다. ‘-아/어 내-’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 부류가 어느 정도 열려 있어서 비슷한 의미를 지닌 신조어가 만들어지거나 외래어가 들어오면 ‘-아/어 내-’와 금방 결합해서 쓰일 수 있을 듯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동사로서의 용법임이 확실한 다른 예들과 명확한 구분이 힘들다. 어쩌면 보조용언 구문과 연속 동사 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 합성 동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의 성격을 조금씩 다 가지는 구성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아/어 내-’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어 내-’는 안에서 밖으로의 사역적 이동이라는 본래적 의미를 고려하든 “성취”라는 확장된 의미를 고려하든 한계 동사와만 결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어 내-’와 자주 결합하는 동사들은 대개 이 일반화에 부합되나 인내를 의미하는 동사들은 여기서 벗어난다. ‘참-’ 등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보면 비한계 동사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24] 비한계 동사라도 어려운 장애를 수반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는 “성취”를 의미하는 ‘-아/어 내-’와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법화의 진전에 따라 결합 가능한 동사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어 내-’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아직 초기 단계인 듯하다. 인내를 의미하는 동사 외에 ‘-아/어 내-’와 자유롭게 결합하는 비한계 동사는 아직 드문 것 같다. 또한 ‘-아/어 내-’는 타동사와만 결합 가능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어 버리-’에 비해 아직 문법화의 진척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3.7. ‘-아/어 놓-’의 결합 양상

보조용언 구성 ‘-아/어 놓-’은 말뭉치에 4,880회 출현한다. 이 중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가 5개 있다.[25] 형용사와 결합하는 ‘-아/어 놓-’은 대개 ‘워낙 ……



24) 예를 들어 기간 부사구 ‘… 만에’와는 공기하지 않고 ‘… 동안’과만 공기할 수 있다.
25) ‘가엾-’, ‘다르-’, ‘무식하-’, ‘승하-’, ‘우렁차-’가 각 1회씩 나타난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어 놔서'의 고정된 구문으로 쓰인다. 이 용법은 본고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을 제외하면 '-아/어 놓-' 앞에 출현하는 동사의 타입은 718개, 토큰은 4,875개이다. '-아/어 놓-' 앞에 출현하는 동사들 중 빈도가 1인 것을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성의 상위 100개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위	동사	f(v, 어놓)	f(v)	Z
1	빼	147	830	87.5304
2	쌓	85	514	64.223
3	앉히	41	137	60.5383
4	떼	81	630	54.9624
5	남기	96	1013	50.8985
6	엎	21	56	48.606
7	쏟	53	380	46.3965
8	제치	28	112	45.6251
9	깔	43	261	45.586
10	세우	113	1857	43.3791
11	털	46	345	42.2146
12	가두	33	182	41.9715
13	옮기	88	1266	41.196
14	묶	47	414	39.2022
15	모으	89	1468	38.4138
16	적	49	553	35.0689
17	틀	33	257	35.0533
18	뒤바꾸	10	26	33.9758
19	얹	28	204	33.4387
20	걸	67	1156	32.4988
21	펼치	38	455	29.9113
22	정하	59	1076	29.561
23	바꾸	71	1584	28.9084
24	비축하	8	23	28.8727
25	헝클	4	6	28.3931
26	만들	149	6390	28.0542
27	진열하	7	19	27.8107
28	흐리	15	92	26.7771
29	매달	15	92	26.7771
30	심	42	675	26.7656
31	붙이	58	1267	26.4453
32	열	83	2481	26.2872
33	대기시키	4	7	26.2653
34	뒤집	24	247	25.7853
35	드러내	48	953	25.4096

순위	동사	f(v, 어놓)	f(v)	Z
51	가르	16	206	18.6582
52	파	22	382	18.5517
53	맞붙이	3	8	18.371
54	고정시키	8	56	18.2514
55	그리	48	1691	18.0524
56	맡기	26	569	17.6833
57	도피시키	2	4	17.3585
58	뭉뚱그리	3	9	17.3013
59	긋	14	203	16.3548
60	숨기	21	456	15.9635
61	내깔기	2	5	15.5003
62	찢	13	195	15.4683
63	마련하	33	1105	15.4493
64	새기	14	230	15.2631
65	늘	24	639	15.1458
66	매	16	311	14.8451
67	포개	5	34	14.6494
68	꾸미	22	593	14.3948
69	벌리	15	294	14.3058
70	전시하	6	51	14.2718
71	띄우	11	165	14.2286
72	떼치	2	6	14.1265
73	달	25	773	14.1239
74	얽	6	53	13.9842
75	박	13	237	13.8749
76	온존시키	2	7	13.0569
77	던지	28	1090	12.934
78	발가벗기	3	16	12.8759
79	받치	9	136	12.8178
80	책정하	5	44	12.7913
81	뚫	14	320	12.6523
82	저축하	5	45	12.6398
83	묵히	3	17	12.4775
84	짓	50	3124	12.445
85	흔들	18	592	11.5362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6	밀	32	450	25.1476
37	망치	17	134	24.999
38	장치하	6	18	24.4678
39	되돌리	17	143	24.1565
40	뒤흔들	12	73	24.0523
41	펴	40	760	23.7807
42	벗	36	634	23.5458
43	켜	26	342	23.5099
44	차리	35	606	23.4386
45	올리	58	1640	22.7197
46	꽂	19	212	21.9692
47	눠	8	41	21.4644
48	꺼내	39	931	20.5937
49	흘	5	20	19.2795
50	예약하	5	21	18.8024

86	주저앉히	2	9	11.477
87	어지르	2	9	11.477
88	명기하	2	9	11.477
89	비치하	3	20	11.4653
90	싸	16	484	11.4504
91	끼우	10	211	11.1983
92	끄르	4	37	11.1422
93	설치하	15	452	11.1128
94	째	2	10	10.8699
95	들쑤시	2	10	10.8699
96	따	16	527	10.8662
97	담	23	1069	10.424
98	개키	2	11	10.3468
99	시키	22	1023	10.1915
100	준비하	17	658	10.114

'-아/어 놓-'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주 공기하는 동사들을 의미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외, 제거: 빼-, 떼-, 제치-, 떼치-, 닦-, 씻-, 밀-
놓기: 쌓-, 앉히-, 남기-, 깔-, 가두-, 얹-, 걸-, 진열하-, 매달-, 심-, 꽂-, 눠-, 장치하-, 숨기-, 전시하-, 달-, 둘러앉히-, 주저앉히-, 비치하-, 끼우-, 들여앉히-, 감추-, 담-, 쟁이-, 걸치-, 붓-, 덮-, 나열하-, 꿇어앉히-, 주차하-, 눕히-, 벌이-, 둘러치-, 신-, 수록하-
보유, 보관, 획득: 예약하-, 저축하-, 묵히-, 잡-, 비축하-, 예비하-, 꿍치-, 장만하-, 따-
고정, 부착: 묶-, 붙이-, 맞붙이-, 고정시키-, 매-, 박-, 대-, 달아매-, 잇대-, 비끄러매-, 잡아매-, 쑤셔박-, 맞대-
벗기, 풀기: 벗-, 풀-
지지: 받치-
사역적 상태 변화: 엎-, 세우-, 틀-, 펼치-, 열-, 뒤집-, 되돌리-, 펴-, 켜-, 올리-, 가르-, 파-, 뭉뚱그리-, 포개-, 꾸미-, 벌리-, 얽-, 발가벗기-, 끄르-, 개키-, 단-, 재우-, 비우-, 뒤섞-, 칠하-, 엮-, 고치-, 정리하-, 폐쇄시키-, 만들/VX, 굳히-, 트-, 막-, 가꾸-, 입히-, 탈바꿈시키-, 응축시키-, 합치-, 벗기-, 정돈하-, 역전시키-, 싸-, 다리-, 달구-, 젖히-, 접붙이-
파괴,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사역적 상태 변화: 헝클-, 흐리-, 망치-, 흔들-, 뒤흔들-, 찢-, 째-, 뚫-, 어지르-, 조각내-, 부스러뜨리-, 더럽히-, 끊-, 구기-, 꺾-, 찌그러뜨리-, 잡치-, 엎지르-, 흐트러뜨리-
영향 주기(affecting): 들쑤시-, 휘젓-
교체: 뒤바꾸-, 바꾸-
창조: 만들-, 차리-, 그리-, 긋-, 마련하-, 새기-, 짓-, 설치하-, 준비하-, 재현하-, 저지르-, 피우-, 지피-, 짜-
실현: 이루-, 이룩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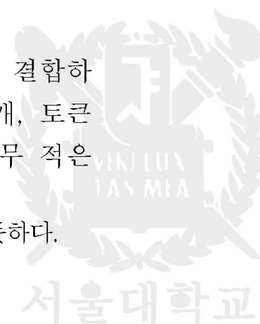
위임: 맡기-
사역적 이동: 쏟-, 옮기-, 모으-, 꺼내-, 흩-, 도피시키-, 내깔기-, 띄우-, 던지-, 제출하-
결정: 정하-, 책정하-, 규정하-
기재: 적-, 명기하-, 명문화하-, 낙서하-, 쓰-, 끄적이-, 기록하-
사역: 대기시키-, 시키-, 보관시키-
기타: 털-, 드러내-, 늘-, 들이-[26]

본동사로서의 '놓-'의 의미를 고려할 때, 보조동사 '-아/어 놓-'는 어떤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사태를 자신이 의도한 조건 하에 있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물체를 자신이 의도한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 본동사 '놓-'의 의미라면, 사태를 자신이 의도한 조건 하에 있게 하는 것이 보조동사 '놓-'의 의미인 것이다. 물론 물체를 의도한 위치에 있게 하는 것도 보조동사 '-아/어 놓-'의 의미 속에 얼마든지 포괄될 수 있다. 놓기 동사들이 '-아/어 놓-'과 자주 결합하는 동사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사역적 상태 변화, 보유/보관/획득, 고정/부착, 창조, 기재, 사역적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잘 결합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어 놓-'도 문법화의 초기 단계여서 어휘적 의미가 아직 상당 부분 살아 있고, 따라서 결합할 수 있는 동사의 범위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아/어 놓-'의 의미 속에 "의도(intention)"의 개념이 들어 있으므로 의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즉 동작주성(agentive) 동사와만 결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떤 행위를 수행하여 그 행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사태를 자신이 의도한 조건 하에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계 동사와만 결합할 것이다. 말뭉치에서 드러난 결합 양상은 이러한 예측과 대체로 부합된다. 또한 '-아/어 놓-'은 거의 타동사와만 결합한다. '일단 합격해 놓고 보자' 같이 일부 자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말뭉치에서 이런 자동사와 결합한 예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문법화의 진척 정도가 '-아/어 버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어 내-'보다는 조금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3.8. '-아/어 두-'의 결합 양상

보조용언 구성 '-아/어 두-'는 말뭉치에 2215회 출현하며,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는 하나도 없다. '-아/어 두-' 앞에 출현하는 동사는 타입이 337개, 토큰이 2215개이다. '-아/어 두-' 앞에 출현하는 동사들 중 절대 빈도가 너무 적은



26) 이들은 '털어놓-', '늘어놓-', '들여놓-'을 하나의 합성 동사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것을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성의 상위 100개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순위	동사	f(v, 어두)	f(v)	Z
1	내버리	180	232	305.758
2	남기	120	1013	96.5345
3	접	40	194	73.9078
4	제치	30	112	73.0731
5	방치하	23	96	60.4712
6	가두	31	182	59.0459
7	넣	83	1963	46.8803
8	묶	36	414	45.0831
9	쌓	38	514	42.5788
10	숨기	34	456	40.4534
11	염두하	3	4	38.8042
12	비우	28	375	36.7368
13	앙구	2	2	36.6031
14	꼬불치	4	8	36.5486
15	감추	31	560	33.0493
16	세우	57	1857	32.644
17	준비하	33	658	32.364
18	적	28	551	30.0194
19	맡기	28	569	29.5118
20	처박	8	50	29.0538
21	놓	46	1601	28.2712
22	그만하	5	23	26.8395
23	기억하	22	430	26.7042
24	걸	32	1154	23.1156
25	분산하	4	20	23.0119
26	보관하	11	150	22.8094
27	담그	13	210	22.6957
28	익히	17	360	22.4953
29	꽂	12	212	20.8028
30	담	27	1069	20.1513
31	새기	12	230	19.9265
32	모으	31	1468	19.5039
33	적립하	2	7	19.4923
34	저장하	7	85	19.3254
35	묵히	3	17	18.7012
36	갈무리하	3	17	18.7012
37	기록하	18	568	18.6612
38	비치하	3	20	17.2158
39	묻	43	3686	16.0363
40	점찍	2	11	15.503
41	덮	12	379	15.2285
42	붙잡	10	269	15.1728

순위	동사	f(v, 어두)	f(v)	Z
51	미루	11	442	12.753
52	싸	11	484	12.1137
53	붙들	7	215	11.8097
54	저축하	3	45	11.3335
55	눈여기	3	45	11.3335
56	마련하	16	1105	11.1981
57	채우	12	655	11.1688
58	찍	12	660	11.119
59	매	8	311	11.0795
60	오리	3	49	10.8391
61	비축하	2	23	10.6248
62	파묻	3	51	10.6136
63	켜	8	342	10.5009
64	썩히	2	24	10.3932
65	알	59	11241	10.3734
66	긋	6	203	10.3668
67	얹	6	204	10.3386
68	밝히	30	3819	10.2123
69	밀치	3	61	9.65536
70	안심시키	2	28	9.59311
71	모시	10	606	9.58187
72	달	11	773	9.18516
73	버리	15	1349	9.17326
74	지적하	12	962	8.83494
75	아끼	7	366	8.74734
76	녹음하	2	34	8.66592
77	봉하	2	39	8.06049
78	뉘	2	41	7.84939
79	유념하	2	42	7.74943
80	표시하	5	285	7.02647
81	지정하	3	114	6.87148
82	신청하	4	197	6.8461
83	엎	2	56	6.63906
84	끼우	4	211	6.57793
85	이야기하	8	808	6.2002
86	수집하	3	142	6.06625
87	열	15	2481	5.88928
88	깔	4	261	5.79508
89	재우	2	72	5.78239
90	잡	17	3141	5.70644
91	확보하	5	441	5.36226
92	붙이	9	1267	5.18294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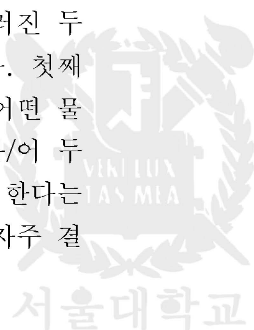
43	팽개치	5	70	15.1682
44	내팽개치	3	27	14.7651
45	간직하	9	234	14.6615
46	입금하	2	13	14.2393
47	보류하	3	33	13.3152
48	정하	18	1076	12.963
49	못박	3	35	12.9162
50	예치하	2	16	12.8062

93	척하/VX	3	188	5.14277
94	매달	2	92	5.03499
95	뿌리	5	503	4.91436
96	단	4	354	4.78542
97	정리하	5	539	4.68763
98	다짐하	3	222	4.64461
99	명심하	2	111	4.51431
100	박	3	237	4.45766

'-아/어 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주 공기하는 동사들을 의미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놓기: 남기-, 가두-, 넣-, 쌓-, 숨기-, 감추-, 처박-, 놓-, 걸-, 담그-, 담-, 비치하-, 묻-, 덮-, 뉘이-/뉘-, 파묻-, 얹-, 모시-, 달-, 장치하-, 깔-, 처넣-, 매달-, 뿌리-, 널-, 앉히-, 전시하-, 집어넣-
보유, 보관: 꼬불치-, 보관하-, 적립하-, 저장하-, 갈무리하-, 간직하-, 예치하-, 꿍치-, 저축하-, 비축하-, 예금하-, 녹음하-, 쟁이-, 녹화하-, 사-, 축적하--
창조, 준비: 준비하-, 새기-, 마련하-, 긋-, 가설하-, 확보하-, 장만하-
고정, 부착: 묶-, 꽂-, 붙잡-, 붙들-, 매-, 잡아매-, 끼우-, 잡-, 붙이-, 박-, 심-
말하기, 쓰기: 적-, 기록하-, 부언하-, 밝히-, 지적하-, 명기하-, 표시하-, 메모하-, 이야기하-
정보 습득: 기억하-, 익히-, 알-, 새겨듣-
유의: 유념하-, 명심하-, 다짐하-
결정: 점찍-, 정하-, 못박-, 눈여기-, 찍-, 지정하-
사역적 상태 변화: 접-, 비우-, 세우-, 냉동하-, 채우-, 오리-, 켜-, 봉하-, 엎-, 열-, 재우-, 말리-, 살리-, 얽-, 파-, 싸-
사역적 이동: 분산하-, 모으-, 입금하-, 수집하-, 띄우-
조처: 손쓰-
방치: 내버리-, 제치-, 방치하-, 팽개치-, 내팽개치-, 방임하-, 밀치-, 버리-, 제끼-, 묵히-, 썩히-
위임: 맡기-
보류: 유보시키-, 보류하-, 미루-, 아끼-
중지, 포기: 그만하-, 접-

본동사로서의 '두-'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지닌 다의어인데, 이 중 두드러진 두 개의 의미가 보조동사 '-아/어 두-'의 의미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의미는 '-아/어 놓-'과 별로 다르지 않은 듯하다. 본동사로서의 '두-'가 어떤 물체가 자신이 의도한 위치에 있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듯이, 보조동사 '-아/어 두-'는 어떤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사태를 자신이 의도한 조건 하에 있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놓기, 보유/보관, 고정/부착 등의 동사와 자주 결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합하는 것은 본동사일 때의 의미가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용법에서는 '두-'가 본동사인지 보조동사인지 자체가 분명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체를 어떤 위치에 있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의미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밖의 동사 부류와도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창조/준비, 말하기/쓰기, 정보 습득, 유의, 결정, 사역적 상태 변화, 사역적 이동, 조처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결합하는 것은 이런 약간 확장된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편 본동사 '두-'는 "내버려두다, 방치하다" 정도의 의미도 나타내는데, 위의 동사 부류들 중 방치, 위임, 보류, 중지/포기 등은 이 의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역시 보조동사 구성인지 연속 동사 구성인지 합성 동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27] 결합되는 동사의 범위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조동사 구성으로 보더라도 아직 문법화의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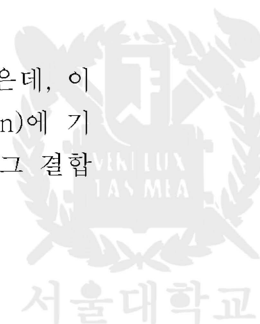
보조동사 '-아/어 두-'의 두 용법 중 첫째 용법은 '-아/어 놓-'과 의미가 매우 유사하다. 본동사로서의 '두-'와 '놓-'이 유의어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동사일 때도 의미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과 자주 결합하는 동사들도 상당 부분 겹칠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3.7.에서 살펴본, '-아/어 놓-'과 자주 결합하는 동사들과 이 절에서 살펴본, '-아/어 두-'와 자주 공기하는 동사들 중에는, 양쪽과 모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동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과의 결합이 어색하거나 불가능한 것들도 있다.

'-아/어 두-'와만 결합 가능한 동사: 넣-, 놓-, 처넣-, 집어넣-; 간직하-; 긋-; 부언하-, 밝히-, 이야기하-; 기억하-, 새겨듣-; 유념하-, 명심하-, 다짐하-

'-아/어 놓-'과만 결합 가능한 동사: 빼-, 떼치-, 밀-; 둘러앉히-, 주저앉히-, 들여앉히-, 끓어앉히-, 나열하-, 벌이-, 둘러치-; 대-, 잇대-, 맞대-; 받치-; 뒤집-, 되돌리-, 올리-, 가르-, 뭉뚱그리-, 꾸미-, 발가벗기-, 뒤섞-, 고치-, 폐쇄시키-, 만들/VX, 탈바꿈시키-, 합치-, 역전시키-; 헝클-, 흐리-, 망치-, 흔들-, 뒤흔들-, 찢-, 째-, 뚫-, 어지르-, 조각내-, 부스러뜨리-, 더럽히-, 끊-, 구기-, 꺾-, 찌그러뜨리-, 잡치-, 엎지르-, 흐트러뜨리-; 들쑤시-, 휘젓-; 바꾸-, 뒤바꾸-; 재현하-, 저지르-; 이루-, 이룩하-; 쏟-, 흩-, 제출하-; 대기시키-, 시키-, 보관시키-

동일한 의미 부류 내에서도 각 동사마다 행동 양상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의미에 입각한 설명이 어렵고 언어 사용의 관습(convention)에 기댈 수밖에 없다. 즉 A와 B라는 두 요소가 자주 결합해서 쓰이다 보니 그 결합

27) 위의 예들 중 '내버려두-', '눈여겨두-'는 합성 동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B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다른 요소 C는 A와 결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A와 B의 결합에 밀려 사용될 기회를 별로 얻지 못했고 결국 그 둘의 결합은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28] 한편, 동사의 의미 부류에 따라 어느 한 쪽과의 결합만 허용하는 듯한 흥미로운 양상도 나타나는데, 파괴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사역적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위에서 '헝클-'부터 '흐트러뜨리-'까지)은 '-아/어 놓-'과만 결합이 가능한 듯하고, '부언하-', '밝히-',[29] '이야기하-' 등의 말하기 동사 중에는 '-아/어 두-'와만 결합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 듯하다. 쓰기 동사들이 양쪽과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3.9. '-아/어 대-'의 결합 양상

3.2.2.에서 보았듯이 '-아/어 대-'는 보조용언들 중 IRad 값이 가장 높은 요소이다. 이것은 '-아/어 대-'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에 매우 심한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도 그런지 말뭉치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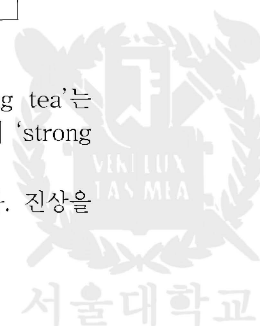
'-아/어 대-'는 말뭉치에 1,204회 출현하는데, 형용사와 결합한 예는 하나도 없다. 결합하는 동사의 타입은 170개, 토큰은 1,204개이다. '-아/어 대-'와 결합하는 동사들 중 빈도가 1인 것을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성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의 타입이 170개밖에 안 되어서, 1회 출현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이 표에 나타나는 88개가 전부이다. 여기서 Z-score가 음수인 것은 그 동사의 말뭉치 전체에서의 빈도를 고려할 때 '-아/어 대-' 앞에는 오히려 드물게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대값이 별로 크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순위	동사	f(v, 어대)	f(v)	Z
1	떠들	105	343	198.831
2	짖	36	133	109.43
3	외치	64	658	87.0115

순위	동사	f(v, 어대)	f(v)	Z
45	울부짖	3	79	11.6147
46	차	12	1179	11.3154
47	치	19	2739	11.2862

28) 연어에 대한 연구에서 'strong'과 'powerful'이 유의어임에도 불구하고 'strong tea'는 자연스러운데 'powerful tea'는 어색하고 반대로 'powerful tool'은 자연스러운데 'strong tool'은 어색하다는 식의 관찰이 많이 있어 왔다(Sinclair 1991 참조).

29) 여기서 '밝히-'는 진상을 밝힌다는 의미 말고 의견을 피력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진상을 밝힌다는 의미일 때에는 오히려 '-아/어 놓-'과만 결합 가능하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4	조르	29	149	83.1876
5	놀리	33	221	77.6304
6	지껄이	26	139	77.2049
7	뿜	22	120	70.3023
8	퍼붓	29	209	70.1224
9	울	72	1444	65.5687
10	쏘	35	387	62.0023
11	지르	45	725	58.0086
12	흔들	39	592	55.6756
13	비비	16	158	44.3989
14	꾸미	27	593	38.2982
15	두들기	13	147	37.3556
16	설치	10	103	34.3561
17	들쑤시	3	10	33.2653
18	휘두르	13	196	32.2519
19	긋	12	203	29.2092
20	긁	10	142	29.1675
21	얼르	3	13	29.1519
22	갈기	6	55	28.2349
23	우기	8	106	27.028
24	불	17	613	23.4419
25	빨	11	271	23.0274
26	부비	4	40	22.0571
27	부르	37	3502	20.3237
28	들볶	2	12	20.2008
29	피우	16	748	19.7959
30	웃	28	2197	19.6845
31	두드리	9	268	18.8654
32	찌르	9	303	17.6854
33	쪼	4	63	17.4933
34	어르	2	18	16.4537
35	후비	3	43	15.899
36	휘갈기	2	20	15.5966
37	떨	12	698	15.2218
38	껌벅이	2	22	14.8587
39	울리	11	639	14.5839
40	문지르	4	110	13.1114
41	읊	4	121	12.4729
42	찡	3	74	12.0172
43	누르	8	517	11.7258
44	지지	2	35	11.7179

48	주무르	3	91	10.7861
49	쑤시	3	91	10.7861
50	씹	5	256	10.5331
51	틀	5	257	10.5108
52	뿌리	7	503	10.3376
53	마시	13	1595	10.3143
54	뒹굴	3	121	9.27643
55	볶	2	67	8.35818
56	서두르	6	554	8.29476
57	찍	6	660	7.48243
58	외우	3	194	7.1772
59	추	4	339	7.11551
60	욕하	2	91	7.1003
61	외	2	98	6.82192
62	때리	4	422	6.26274
63	밟	4	453	6.00328
64	비웃	2	136	5.69835
65	굴리	2	168	5.05684
66	흘리	4	617	4.95639
67	비우	3	375	4.8967
68	쏟	3	380	4.85709
69	먹	15	5901	4.68991
70	소리치	3	444	4.40711
71	바르	2	245	4.04764
72	하	91	74691	4.03657
73	뽑	3	667	3.35033
74	훔치	2	344	3.26419
75	걸	4	1156	3.1706
76	붓	2	377	3.06974
77	빌	2	380	3.05323
78	비추	2	415	2.8728
79	앓	2	430	2.80169
80	부리	2	672	1.97575
81	물	2	704	1.89603
82	쓰	11	8634	1.52386
83	움직이	2	1260	0.971827
84	팔	2	1311	0.912674
85	그리	2	1691	0.540735
86	읽	3	2968	0.386998
87	잡	2	3141	-0.339686
88	묻	2	3686	-0.56926

'-아/어 대-' 앞에 높은 빈도로 출현한 동사들을 의미 부류에 따라 정리해 보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면 다음과 같다.

소리내기: 떠들-, 짖-, 외치-, 지껄이-, 지르-, 울리-, 울부짖-, 소리치-, 앓-, (음악) 틀-
괴롭히기: 조르-, 들볶-, 쪼-, 볶-
언어 행위: 꾸미-, 얼르-/어르-, 우기-, 부르-, 읊-, 외우-, 외-, (전화) 걸-, 빌-, 쓰-
공격적 언어 행위: 놀리-, 퍼붓-, 쏘-, 욕하-, 비웃-
사역적 이동: 뿜-, 쏘-, 휘두르-, 뿌리-, 흘리-, 쏟-, 뽑-, 붓-
섭취: 마시-, 먹-; (담배) 빨-, 피우-, (잔) 비우-
신체 동작(motion): 흔들-, 떨-, 껌벅이-, 뒹굴-, 추-, 굴리-
감정적 행위: 울-, 웃-
힘 가하기(impacting): 두들기-, 들쑤시-, 긋-, 긁-, 갈기-, 휘갈기-, 불-, 두드리-, 찌르-, 후비-, 찧-, 누르-, 차-, 치-, 쑤시-, 씹-, 때리-, 밟-, 물-; 비추-
접촉: 비비-, 부비-, 문지르-, 주무르-; 바르-, 훔치-
사역적 상태 변화: 지지-
태도: 설치-, 서두르-
창조: (사진) 찍-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리를 내는 행위, 언어 행위, 그 중에서도 특히 공격적 언어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많이 눈에 띈다.

다른 보조동사들과는 달리 '-아/어 대-'는 본동사 '대-'와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30] 따라서 '-아/어 대-'의 의미는 오로지 보조동사 구성에서의 쓰임으로부터 추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주 결합하는 동사들의 의미적 특징이 '-아/어 대-'의 의미 규정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어 대-'는 어떤 행위를 강도 높게[intensively] 행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강도가 높다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강도가 높을 수도 있고,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관찰자나 기술자에게 강도가 높게 느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는 동작을 "함부로, 마구" 수행하는 것도 그런 느낌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제시된 동사들은 이러한 의미 규정과 매우 잘 어울리는 의미를 지닌 것들이다. '-아/어 대-'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당연히 동작주성(agentive)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동사들도 모두 동작주성 동사이다.



30) '-거리-'와 흔히 대치되어 쓰이는 접미사 '-대-'와의 의미상의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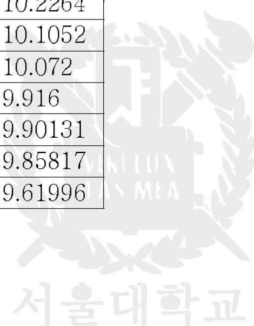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10. '-아/어 나가-'의 결합 양상

보조동사 '-아/어 나가-'는 말뭉치에 2,245회 출현하는데 형용사와 결합한 예는 하나도 없다. '-아/어 나가-'와 결합한 동사의 타입은 498개, 토큰은 2,245개이다. '-아/어 나가-'와 결합하는 동사들 중 빈도가 1인 것을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큰 것들은 다음 표와 같다.

순위	동사	f(v, 어나가)	f(v)	Z
1	퍼지	72	493	82.6453
2	꾸리	36	166	71.4476
3	헤치	33	170	64.6655
4	빠지	117	2174	62.8454
5	뻗	47	370	62.1741
6	잘리	21	118	49.3566
7	발전시키	27	269	41.7539
8	떨어지	84	2577	40.6694
9	풀	56	1186	40.5476
10	이끌	44	769	39.7874
11	완결하	2	2	36.3585
12	계발시키	2	2	36.3585
13	펴	40	771	36.0228
14	팔리	24	298	35.1303
15	개척하	12	77	34.8714
16	확대하	23	385	29.4234
17	퉁겨지	3	7	29.093
18	추진하	25	628	24.7185
19	전개하	16	272	24.3411
20	풀리	20	444	23.6242
21	지키	40	1738	23.0992
22	튕겨지	2	5	22.943
23	번지	14	242	22.5698
24	개선하	12	182	22.3804
25	밀리	16	347	21.3948
26	일반화시키	2	6	20.9282
27	확장하	7	72	20.9121
28	잇	30	1311	19.9362
29	가꾸	12	234	19.606
30	뻗히	10	176	18.8943
31	키우	21	774	18.3597
32	벋	2	8	18.0969

순위	동사	f(v, 어나가)	f(v)	Z
51	확충하	3	33	13.2236
52	실천하	9	281	13.1743
53	붕괴시키	2	15	13.1459
54	주도하	9	297	12.7785
55	미끄러지	5	98	12.6207
56	읽	31	2968	12.548
57	고양시키	2	17	12.3296
58	타개하	3	39	12.1266
59	재창조하	2	18	11.9731
60	싸우	15	870	11.9521
61	늘리	10	414	11.8659
62	벗어지	2	19	11.6448
63	줄이	13	720	11.4351
64	깨지	7	228	11.3509
65	축적하	3	47	11.0012
66	유지시키	3	47	11.0012
67	관철하	3	47	11.0012
68	비키	5	127	10.9867
69	갉	7	246	10.8833
70	창조하	7	248	10.8344
71	깎이	2	22	10.797
72	대처하	6	196	10.4919
73	주관하	4	91	10.4264
74	정복하	3	53	10.3278
75	해소시키	2	24	10.3215
76	조화시키	3	54	10.2264
77	뜯기	2	25	10.1052
78	더듬	6	211	10.072
79	엮	6	217	9.916
80	메꾸	2	26	9.90131
81	계승하	4	101	9.85817
82	발전하	10	594	9.61996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3	전개시키	3	18	18.042
34	영위하	6	71	18.0076
35	크	9	160	17.8298
36	펼치	15	455	17.2806
37	확산시키	4	35	17.1794
38	다지	10	218	16.8667
39	질식시키	2	10	16.1618
40	벌이	27	1569	16.0209
41	진행하	10	257	15.44
42	구현하	6	96	15.3874
43	해결하	18	803	15.2589
44	통기	3	25	15.2548
45	감당하	9	221	15.0118
46	육성하	5	72	14.8431
47	넓히	9	239	14.3903
48	극복하	14	595	13.8334
49	끌리	7	165	13.5333
50	보완하	6	126	13.3276

83	강화하	8	414	9.33469
84	적응하	5	175	9.21865
85	고치	10	658	9.04343
86	진행시키	2	31	9.03287
87	계속하	12	948	8.84215
88	버티	7	367	8.66534
89	해소하	4	128	8.66432
90	설득시키	2	34	8.60518
91	뻗치	4	130	8.59061
92	구축하	5	200	8.55467
93	완성시키	2	35	8.4748
94	형성하	7	399	8.24846
95	튕기	2	37	8.2298
96	관철시키	2	38	8.1145
97	승화시키	2	39	8.00357
98	집필하	2	41	7.7938
99	투쟁하	3	91	7.72717
100	바꾸	14	1584	7.51553

이 동사들을 의미 부류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행, 운영: 꾸리-, 이끌-, 펴-, 추진하-, 전개하-, 전개시키-, 가꾸-, 영위하-, 펼치-, 벌이-, 진행하-, 진행시키-, 감당하-, 주도하-, 주관하-
나아가기: 전진하-
지속: 잇-, 계승하-, 계속하-, 받들-
실현: 구현하-, 관철하-, 관철시키-, 실천하-, 완성시키-; 읽-
창조: 재창조하-, 창조하-, 엮-, 구축하-, 형성하-, 집필하-
극복: 헤치-, 개척하-, 극복하-, 정복하-
해결: 풀-, 완결하-, 해결하-, 타개하-, 갚-, 해소시키-, 해소하-
사역적 상태 변화: 질식시키-, 붕괴시키-, 줄이-, 바꾸-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사역적 상태 변화: 발전시키-, 계발시키-, 개선하-, 키우-, 다지-, 육성하-, 넓히-, 보완하-, 고양시키-, 늘리-, 조화시키-, 메꾸-, 강화하-, 고치-, 설득시키-, 승화시키-, 불리-, 높이-, 축적하-
유지, 수호: 지키-, 유지시키-
투쟁, 대응: 싸우-, 투쟁하-, 대처하-
인내: 버티-
탐색: 더듬-
피동적 해결: 풀리-
사역적 확산: 확대하-, 일반화시키-, 확장하-, 확산시키-, 확충하-
확산: 펴지-, 뻗-, 번-, 뻗치-, 번지-
상태 변화: 크-, 깨지-, 깨어지-, 발전하-, 적응하-, 확장되-, 확대되-
피동적 제거, 소멸: 잘리-, 떨어지-, 팔리-, 밀리-, 뽑히-, 끌리-, 벗어지-, 깎이-, 뜯기-,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씻기-
이동: 빠지-, 퉁겨지-, 튕겨지-, 퉁기-, 튕기-, 비키-, 미끄러지-, 새-

보조동사 '-아/어 나가-'의 의미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나-'(出)의 의미, 즉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나-'(出)의 의미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대신 "나아감(進)"의 의미가 두드러진 경우이다. 후자의 의미를 갖게 된 데에는 '나아가-'와의 발음상의 유사성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동사 부류들 중 진행/운영, 나아가기, 지속, 실현, 창조, 극복, 해결, 사역적 상태변화, 유지/수호, 투쟁/대응, 인내, 탐색, 피동적 해결 등은 후자의 의미를 갖는 '-아/어 나가-'와 결합한다. 반면에 피동적 제거/소멸, 이동 동사들은 전자의 의미를 갖는 '-아/어 나가-'와 결합한다. 이 때에는 '나가-'가 본동사인지 보조동사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확산이나 사역적 확산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은 '-아/어 나가-'의 두 의미 모두와 어울리는 것 같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아감"의 의미를 갖는 '-아/어 나가-'와 결합하는 동사는 대개 타동사이고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의 의미를 갖는 '-아/어 나가-'와 결합하는 동사는 자동사인 경향이 있다. 또한 전자의 동사들은 동작주성(agentive) 동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상태 변화를 야기하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 꽤 많은 것이 특징이다.

3.11. '-아/어지-'의 결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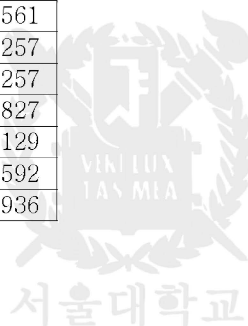
보조동사 '-아/어지-'는 말뭉치에 20622회 출현하는데, 이 중 형용사와 결합한 것이 7931회이고 동사와 결합한 것이 12691회이다. '-아/어지-'와 결합하는 형용사의 타입은 959개, 동사의 타입은 749개이다. '-아/어지-'와 결합하는 형용사의 타입이 더 다양하지만, 토큰으로 따지면 '-아/어지-'는 형용사보다는 동사와 결합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이다.

'-아/어지-' 앞에 출현한 동사들 중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순위	동사	f(v, 어지)	f(v)	Z
1	알리	1515	2386	331.537
2	느끼	843	4183	135.329
3	밝히	698	3819	116.723
4	잊히	125	134	115.842
5	여기	367	1214	110.862
6	행하	226	525	104.687
7	전하	320	1357	90.6849
8	짜이	88	113	88.6455
9	정하	281	1148	86.6914
10	씌	78	98	84.391
11	만들	640	6390	79.4655
12	길들이	79	122	76.4162
13	그리	260	1691	64.6899
14	받아들이	198	1127	60.7756
15	세우	256	1857	60.3727
16	숨기	121	456	59.3823
17	지우	97	390	51.3592
18	쓰이	173	1195	51.008
19	일컫	75	246	50.325
20	새기	67	230	46.4318
21	늦	52	143	45.9755
22	채우	110	655	44.1779
23	드리우	43	117	42.041
24	옮기	147	1266	41.4593
25	버리	143	1349	38.7763
26	좁히	39	119	37.6993
27	갖추	124	1104	37.3482
28	치르	96	713	36.4654
29	가하	68	393	35.3094
30	더럽히	26	70	32.8718
31	감추	76	560	32.59
32	가리	91	822	31.7232
33	다듬	42	199	30.9323
34	꾸미	74	593	30.656
35	쪼개	31	118	29.8938
36	짓	180	3124	29.7342
37	모으	113	1468	28.4048
38	합치	44	267	27.6458
39	담기	59	523	25.8229
40	믿	126	2077	25.7402
41	다루	83	995	25.582
42	비치	53	461	24.7449
51	나누	113	2073	22.6798
52	몸서리치	10	22	22.6487
53	불리	64	765	22.5023
54	긋	31	203	22.2411
55	찢기	14	46	21.7214
56	아로새기	9	23	19.8742
57	맺	49	602	19.3588
58	쏟	38	380	19.3063
59	닦이	7	15	19.2098
60	가리우	7	15	19.2098
61	심기	4	5	19.1602
62	찔끔하	5	8	18.8772
63	오싹하	5	8	18.8772
64	내던지	21	132	18.7281
65	무르춤하	3	3	18.5918
66	내동댕이치	9	27	18.2719
67	매기	18	105	18.0719
68	어지르	5	9	17.7668
69	치루	14	68	17.6191
70	켜	33	342	17.6127
71	지키	82	1738	17.4541
72	덧씌우	4	6	17.4531
73	접히	9	30	17.2837
74	뒤집	27	247	17.149
75	으쓱하	6	14	17.0152
76	흩	7	20	16.5329
77	뭉치	20	152	16.4247
78	맡기	41	569	16.4082
79	저지르	37	474	16.3906
80	포개	9	34	16.1719
81	빠개	3	4	16.0548
82	발가벗기	6	16	15.8701
83	더하	37	501	15.8315
84	씌우	19	149	15.7249
85	고치	42	658	15.3603
86	베풀	23	224	15.2561
87	봉하	9	39	15.0257
88	달구	9	39	15.0257
89	얹히	15	104	14.9827
90	남기	51	1013	14.4129
91	붙이	58	1267	14.3592
92	묶이	19	180	14.0936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43	나뉘	38	252	24.4516
44	엮	35	217	24.364
45	피폐하	6	7	24.3075
46	읽히	24	106	24.287
47	뿌리	54	503	23.9994
48	곁들이	26	127	23.9378
49	얻	129	2531	23.1331
50	놓이	72	931	22.7357

93	다지	21	218	14.0355
94	칠하	15	118	13.9468
95	매듭짓	8	37	13.677
96	파헤치	16	138	13.6611
97	앞당기	14	110	13.4832
98	취하	56	1313	13.3905
99	끼우	19	211	12.8202
100	던지	48	1090	12.6953

보조동사 '-아/어지-'와 결합하는 동사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타동사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타동사의 목적어였던 것이 동사가 '-아/어지-'와 결합하면 주어가 된다. 그렇다고 '-아/어지-'가 모든 타동사와 다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두드러진 제약은 'X-하-' 형태의 타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X-되-' 형태의 피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종의 저지(blocking)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표에 제시된, '-아/어지-'와 자주 공기하는 동사들 중 타동사들을 의미 부류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계 동사들이 대다수이다.

사역적 착용: 씌-, 덧씌우-, 씌우-
사역적 상태 변화: 채우-, 좁히-, 더럽히-, 어지르-, 켜-, 뒤집-, 발가벗기-, 고치-, 봉하-, 달구-, 다지-, 칠하-, 어지럽히-, 메우-, 데우-
분할: 쪼개-, 나누-, 빠개-
조탁, 조련: 길들이-, 다듬-, 꾸미-
첨가: 가하-, 더하-
제거: 지우-
사역적 이동: 옮기-, 전하-, 뿌리-, 흩-, 쏟-, 던지-, 내던지-, 내동댕이치-, 올리-
놓기: 남기-, 붙이-
통합: 모으-, 합치-, 곁들이-, 뭉치-, 포개-
창조: 만들-, 그리-, 세우-, 새기-, 아로새기-, 짓-, 엮-, 긋-, 맺-, 꾸리-, 차리-
언어 행위: 알리-, 일컫-
탐구: 밝히-, 파헤치-
사유: 여기-, 믿-, 점치-
지각: 느끼-
감정 행위: 몸서리치-
결정: 정하-, 매기-
구비: 갖추-
획득: 얻-
은폐: 숨기-, 감추-, 가리-, 가리우-
설치: 드리우-
수용: 받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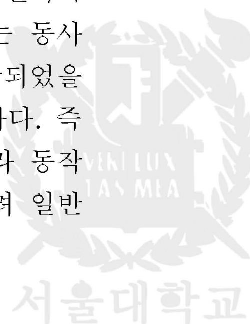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방기, 위임: 버리-, 맡기-, 떠맡기-
기능동사: 행하-, 저지르-, 베풀-, 취하-
취급: 다루-
준수: 지키-
경험: 치르-, 치루-

한편 '-아/어지-'가 자동사에 결합되는 일도 자주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피동 접미사나 '되-' 등에 의해 이미 피동화된 동사에 잉여적으로 '-아/어지-'가 결합되는 경우이다. 위의 표에서 '잊히-, 짜이-, 쓰이-, 담기-, 나뉘-, 읽히-, 놓이-, 불리-, 찢기-, 닦이-, 심기-, 접히-, 얹히-, 묶이-' 등이 그런 예이다. 이것들 외에도 통계적 유의성이 꽤 높은 동사 중에 '잘리-, 찍히-, 불리우-, 열리-, 씻기-, 찍히-, 감기-, 뒤집히-, 꺾이-; 임신되-, 광고되-, 선택되-, 격려되-, 변경되-, 색칠되-, 재구성되-, 피력되-, 만족되-, 변경되-' 등이 있다. 이런 경우는 오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잉여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어지-'가 결합되어 쓰이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아/어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한 경우도 있다. '잊혀지-'가 그러한 경우이다. 한편 '비쳐지-' 같은 경우 '비치-'의 의미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특이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경우 '비쳐지-'가 하나의 단어로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아/어지-'가 결합하여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동사 자체가 상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어지-'가 잉여적인 경우도 많다. 위의 표에서 '늦-, 피폐하-, 찔끔하-, 오싹하-, 무르춤하-, 으쓱하-' 등이 그런 예이다. 그 외에도 통계적 유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솔깃하-, 안절부절하-, 바래-, 쇠하-, 굽-, 성숙하-, 닳-, 주춤하-, 기진맥진하-, 비등하-, 의기소침하-, 두근두근하-, 노화하-, 쾡배하-' 등이 있다.

앞에서 '비쳐지-'가 어휘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사실 타동사에 '-아/어지-'가 결합된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어휘화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루어지-', '쏟아지-', '깨지-', '끊어지-', '엎어지-', '틀어지-', '벌어지-', '흩어지-' 등 그런 예는 수없이 많은데, '-아/어지-'와 결합하고 있는 동사가 독자적으로 타동사로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아/어지-'가 결합되었을 때 반드시 합성적 의미(compositional meaning)를 나타내지는 않는 듯하다. 즉 어기 타동사가 나타내는 타동적 행위를 피동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주를 상정할 수 없는 자동적인(intransitive)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일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들 동사가 어휘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으로 특수한 [idiosyncratic]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넘어지-', '떨어지-', '늘어지-' 등은 '-아/어지-'와 결합하는 동사가 무엇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이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어휘화된 하나의 동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이 하나의 단어로 어휘화되는 일은 다른 보조용언의 경우에는 흔치 않은 현상이다. '잊어버리-', '잃어버리-', '보여주-'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아/어지-'의 경우에 본용언과의 결합이 하나의 단어로 어휘화되는 일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아/어지-'의 의미기능이 어기 동사의 의미에 대해 갖는 관여성(relevance)이 높음을 의미한다(Bybee 1985). 타동사에 '-아/어지-'가 결합되면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실현되는 일종의 피동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결합가 변화(valency chainging)는 어기 동사의 의미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합가 변화는 대개 굴절 접사보다는 파생 접사에 의해 수행되는 일이 많다. 보조용언의 본용언에 대한 관여성이 높을수록 그 둘의 결합이 어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형용사에 '-아/어지-'가 결합되어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도, 피동화 같은 결합가 변화에 비하면 관여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기 동사의 상적 특성[Aktionsart]을 바꾼다는 점에서 비교적 관여성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휘화된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기울어지-', '비뚤어지-', '굳어지-' 등 이런 동사들이 사전에 등재된 것이 많이 있다. 다른 보조용언들과 달리 표기 규범에서 보조용언 '지-'를 본용언과 붙여 쓰게끔 하고 있는 것도 '-아/어지-'의 높은 관여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4. 동사와 어미의 결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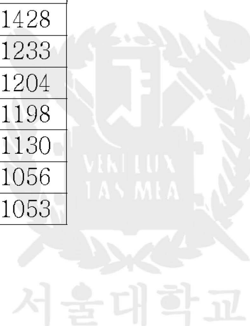
4.1. 말뭉치에서 어미의 사용 양상

이 말뭉치에서 어미로 태깅된 형태는 타입이 2,896개, 토큰이 2,359,441개이다. 1,000회 이상 출현한 어미는 다음 표와 같다.

순위	어미	빈도
1	ㄴ/ETM	273941
2	다/EF	263609
3	는/ETM	180017
4	고/EC	171615
5	었/EP	139524
6	어/EC	115528
7	았/EP	115315
8	아/EC	106174
9	ㄹ/ETM	92452
10	게/EC	65144
11	은/ETM	52671
12	ㄴ다/EF	52375
13	기/ETN	51488
14	지/EC	50937
15	면/EC	26554
16	던/ETM	26448
17	아서/EC	26109
18	을/ETM	24169
19	며/EC	22262
20	다는/ETM	16242
21	지만/EC	15439
22	라는/ETM	15395
23	다/EC	14955
24	어서/EC	14361
25	면서/EC	14195
26	겠/EP	13795
27	ㅁ/ETN	13793
28	습니다/EF	13727
29	다고/EC	13327
30	라/EC	12494
31	라고/EC	12187
32	는데/EC	12089
33	아야/EC	11391

순위	어미	빈도
36	ㄴ다는/ETM	8422
37	으며/EC	8194
38	ㅂ니다/EF	8028
39	니/EC	6242
40	도록/EC	6001
41	으면/EC	5845
42	다가/EC	5759
43	어요/EF	5696
44	자/EC	5448
45	ㄴ가/EC	5415
46	아도/EC	4974
47	는다/EF	4950
48	거나/EC	4935
49	으나/EC	4919
50	어/EF	4681
51	ㄴ지/EC	4568
52	ㄴ다고/EC	4494
53	는지/EC	4487
54	음/ETN	4150
55	ㄴ다/EC	4085
56	야/EF	3969
57	ㄴ데/EC	3898
58	라도/EC	3866
59	ㄴ가/EF	3843
60	지/EF	3297
61	다면/EC	3266
62	란/ETM	3060
63	ㄴ다면/EC	2893
64	나/EC	2805
65	ㄹ까/EF	2776
66	아/EF	2709
67	어도/EC	2688
68	려는/ETM	2520

순위	어미	빈도
71	지요/EF	2397
72	으니/EC	2260
73	는가/EC	2252
74	자/EF	2189
75	라면/EC	2188
76	더니/EC	2038
77	더라도/EC	2032
78	듯/EC	2031
79	니까/EC	1865
80	든/EC	1827
81	오/EF	1819
82	아요/EF	1819
83	으면서/EC	1752
84	ㄹ지/EC	1747
85	요/EC	1738
86	고자/EC	1720
87	려/EC	1626
88	을까/EF	1610
89	듯이/EC	1609
90	에요/EF	1576
91	았었/EP	1521
92	ㄹ까/EC	1482
93	므로/EC	1463
94	니/EF	1434
95	러/EC	1432
96	죠/EF	1430
97	구/EC	1428
98	느냐/EC	1233
99	든지/EC	1204
100	ㅂ니까/EF	1198
101	ㄹ수록/EC	1130
102	냐/EF	1056
103	으므로/EC	1053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4	어야/EC	10271
35	시/EP	9729

69	려고/EC	2497
70	는가/EF	2450

104	냐/EC	1051
105	소/EF	1043
106	고서/EC	1025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말뭉치에서는 어미를 태깅함에 있어서 복합형 어미를 잘게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형태소의 여러 이형태들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따라서 용언과 어미의 결합 양상을 조사하기에 앞서 어미의 이형태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복합형 어미 중에는 그 복합형 어미를 구성하고 있는 앞요소와, 동사와의 결합 양상에 있어 동일한 속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려', '-려고', '-려는', '-려면' 등은 결합 양상에 있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들 어미를 하나의 타입으로 통합하여 그 앞의 용언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어미가 선행 용언에 대해 흥미로운 결합 제약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고는 동사와 어미의 결합 제약에 관심이 있으므로 흥미로운 결합 제약이 나타나는 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그런데 2.4.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제, 서법, 청자 대우법, 문장 유형 등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어미들은 그 특성상 동사와의 결합 제약을 별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국어에는 절과 절을 접속하는 기능을 하는 연결 어미들이 발달해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두드러진 유형론적 특징 중 하나인 동시에,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제약을 보여 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연결어미로 한정하였다. 연결어미들 중 이형태들을 한데 묶고, '-려', '-려고', '-려는'처럼 동사와 동일한 결합 제약을 보이는 복합형 어미들을 통합하여 빈도가 높은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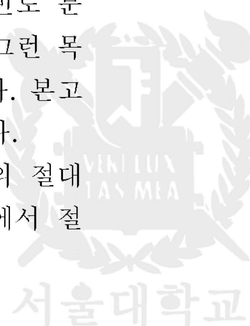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순위	연결어미	변이형	빈도	동사와 결합한 빈도	순위
1	어	아	221724	207677	1
2	고	구	173043	151292	2
3	게	게끔,게나,…	65387	21092	7
4	지		50937	41493	3
5	어서	아서	40470	35816	4
6	면	으면	32399	27793	5
7	며	으며	30456	23628	6
8	어야	아야	21662	20601	8
9	다가	다	20714	15211	9
10	면서	으면서	15947	14843	10
11	지만		15439	9762	13
12	는데		12089	10924	11
13	니까	으니까,니,으니	11053	7537	14
14	려	으려,려고,려는,…	10318	10211	12
15	나	으나	7724	6070	16
16	어도	아도	7662	7145	15
17	도록		6001	5469	17
18	자	자마자	5863	5312	18
19	거나	건	5680	4340	19
20	듯	듯이	3640	3118	20
21	든	든지,든가	3179	917	28
22	므로	으므로	2516	1338	25
23	더니		2038	1912	21
24	더라도		2032	1719	22
25	고자		1720	1685	23
26	러	으러	1672	1672	24
27	을수록	ㄹ수록	1245	785	29
28	고서	구서	1041	1006	26
29	어다가	어다,아다가,아다	976	976	27
30	느라	느라고	746	746	30

순위	연결어미	IRad
1	고	0.250158
2	어	0.358357
3	지	0.36151
4	는데	0.371135
5	며	0.404373
6	다가	0.416031
7	면서	0.437717
8	면	0.44753
9	어야	0.459857
10	게	0.478672
11	지만	0.490766
12	나	0.490829
13	거나	0.541308
14	어서	0.548269
15	려	0.57508
16	어도	0.603742
17	니까	0.636042
18	자	0.658877
19	도록	0.699159
20	므로	0.792203
21	듯	0.797447
22	든	0.826817
23	더니	0.832213
24	더라도	0.909099
25	고서	1.0526
26	고자	1.05895
27	느라	1.09665
28	을수록	1.1233
29	러	1.3753
30	어다가	1.6628

본고는 이 연결어미들 중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 3.2.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런 결합 제약의 정도는 말뭉치에서 각 어미 앞의 동사들의 빈도 분포를 조사하고 이것을 동사의 일반 빈도 분포와 비교함으로써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IRad 같은 통계량이 그런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위 연결어미들의 IRad 값은 위의 오른쪽 표와 같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IRad 값이 높은 연결어미들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본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IRad 값은 해당 연결어미의 절대빈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말뭉치 전체에서 절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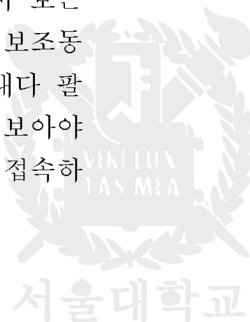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대 빈도가 낮은 연결어미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앞에 다양한 동사들이 출현할 기회를 그만큼 상실하게 되는 셈이고, 따라서 그 연결어미가 결합되는 동사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갖지 않더라도 말뭉치에서 IRad 값이 높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Rad 값만 고려하는 것보다는, 연결어미의 절대 빈도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뭉치에서의 빈도가 비슷한 연결어미들 중에서 유난히 IRad 값이 높은 연결어미가 있다면 그것은 그 연결어미가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제약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절대 빈도와 IRad 값을 함께 고려하면, 예를 들어 '-어서'는 동사와 결합한 빈도가 연결어미들 중 4위인데 IRad 값은 14위로 훨씬 낫다. 반면에 동사와 결합한 빈도가 '-어서'와 비슷한 '-지'의 경우 IRad는 3위이다. 이를 토대로 해서 '-게'는 '-지'에 비해 동사와의 결합 제약이 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게'도 동사와 결합한 빈도는 7위인데 IRad는 10위이므로 상대적으로 결합 제약이 심한 편이고, '-어다가'도 동사와 결합한 빈도는 27위인데 IRad는 단연 최고이다. '-러'도 24위 - 29위로 IRad가 빈도에 비해 상당히 높다.

4.2. '-어다가'의 결합 양상

연결어미 '-어다가'는 '-아다가', '-어다', '-아다'까지 포함해서 말뭉치에 모두 976회 출현한다.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는 하나도 없다. '-어다가' 앞에 출현한 동사의 타입은 104개, 토큰은 976개이다. '-어다가' 앞에 출현한 동사들을 통계적 유의성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동사 타입의 수가 많지 않아 전부 다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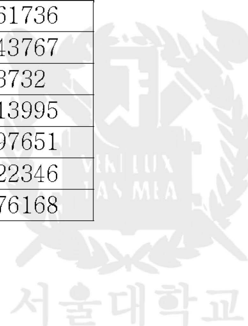
표의 동사들 중 '바라-'와 '넘기-', '넘-', '치-', '돌-'은 '바라다만 보-', '넘겨다 보-', '넘어다 보-', '쳐다도 안 보-', '돌아다 보-'와 같은 구성에 쓰인 것이다. '바라보-', '넘겨보-', '넘어보-', '쳐다보-', '돌아보-'는 하나의 합성 동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연결어미 '-어' 대신 때로 '-어다'를 쓰기도 하고 거기에 보조사 '-만', '-도' 등이 붙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깨끗도 하-'에서 보는 이른바 어근 분리 현상과 성격상 비슷하다. '안기-'도 '안겨다 주-'처럼 보조동사 '주-'가 연결어미 '-어' 대신 '-어다'를 취한 예이다. '내-'의 경우, '내다 팔-, 내다 버리-' 같은 예도 있지만, '내다보-' 같은 것은 하나의 단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예는 연결어미 '-어다가'에 의해 정상적으로 동사구를 접속하는 예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순위	동사	f(v, 어다가)	f(v)	Z
1	데리	107	715	155.572
2	가지	198	6024	97.8026
3	끌	59	1293	63.1619
4	들이	40	779	55.2489
5	줍	25	319	54.1931
6	나르	21	253	51.1391
7	긷	8	38	50.507
8	푸	11	111	40.4917
9	되들이	1	1	39.0139
10	베	14	229	35.7323
11	신	22	635	33.4448
12	납치하	4	26	30.4947
13	뜨	28	1356	28.7545
14	날르	1	2	27.5689
15	물	19	704	27.2826
16	빌리	16	602	24.8346
17	집	12	372	23.7982
18	부르	38	3503	23.5767
19	업	7	150	22.0003
20	안기	9	274	20.8041
21	잡	31	3141	20.1797
22	구하	14	935	17.0963
23	꾸	8	320	17.0026
24	훔치	8	344	16.3657
25	벌	10	647	14.6996
26	모시	9	606	13.645
27	뜯	5	200	13.4412
28	수입하	4	131	13.351
29	옮기	12	1266	12.2602
30	태우	7	473	12.0101
31	내리	18	2818	11.889
32	치	17	2739	11.351
33	캐	4	198	10.7379
34	얻	15	2531	10.36
35	붙들	4	215	10.275
36	꺾	4	226	10.0031
37	허물	2	87	8.13226
38	움키	1	28	7.24229
39	사들이	2	110	7.17615
40	지	7	1326	6.57482
41	꾀	1	37	6.26232
42	돌	6	1091	6.24779

순위	동사	f(v, 어다가)	f(v)	Z
53	운반하	1	63	4.7153
54	끓이	2	260	4.42961
55	붙잡	2	269	4.34083
56	훑	1	79	4.16472
57	차리	3	606	4.12788
58	낚	1	82	4.07935
59	떼	3	630	4.02403
60	뽑	3	667	3.87417
61	짓	7	3124	3.46123
62	빼내	1	127	3.17566
63	고르	2	457	3.10527
64	건지	1	132	3.10379
65	수집하	1	142	2.97102
66	긁	1	142	2.97102
67	들	14	10022	2.905
68	올리	4	1640	2.82027
69	담	3	1069	2.74557
70	찾	7	4026	2.68524
71	외우	1	194	2.44625
72	다듬	1	199	2.40625
73	가르	1	206	2.35253
74	넘기	2	684	2.31603
75	팔	3	1311	2.30818
76	청하	1	216	2.28
77	깎	1	280	1.90461
78	빼앗	1	328	1.69187
79	털	1	345	1.62622
80	파	1	382	1.49698
81	내	5	4066	1.42979
82	자르	1	433	1.3433
83	몰	1	457	1.2788
84	말	2	1308	1.23303
85	따	1	527	1.11275
86	떠	1	544	1.07656
87	고치	1	658	0.865042
88	찍	1	660	0.861736
89	잡히	1	671	0.843767
90	심	1	675	0.83732
91	넘	2	1850	0.713995
92	이끌	1	769	0.697651
93	기르	1	826	0.622346
94	맞추	1	951	0.476168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43	들어올리	1	38	6.17521
44	모으	7	1468	6.15406
45	안	5	822	6.07557
46	빼	5	830	6.03912
47	사냥하	1	43	5.78558
48	이	2	168	5.69223
49	굴리	2	168	5.69223
50	빌	3	380	5.50942
51	입수하	1	52	5.22918
52	끊	3	483	4.7669

95	시키	1	1023	0.401435
96	만들	5	6390	0.395118
97	바라	1	1294	0.163907
98	바꾸	1	1584	-0.0385853
99	그리	1	1691	-0.104035
100	묻	1	3686	-0.913265
101	쓰	1	8634	-1.96571
102	받	2	11523	-2.03018
103	알	1	11241	-2.35651
104	하	13	74690	-5.27766

위의 동사들을 의미 부류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획득, 입수: 데리-, 가지-, 줍-, 빌리-, 잡-, 구하-, 꾸-, 훔치-, 벌-, 얻-, 붙들-, 모으-, 사냥하-, 빌-, 입수하-, 붙잡-, 납치하-, 수집하-, 찾-, 빼앗-, 맞추-, 받-
채취, 채집, 떼어내기: 뜯-, 캐-, 긷-, 푸-, 뜨-, 꺾-, 훑-, 낚-, 빼-, 떼-, 뽑-, 빼내-, 건지-, 긁-, 파-, 따-
신체 소지: 물-, 집-, 업-, 움키-, 지-, 안-, 이-, 들-
정보 획득: 외우-, 알-
선택: 고르-
주문: 시키-
담당: 맡-
사역적 이동: 끌-, 나르-, 날르-, 옮기-, 내리-, 들어올리-, 굴리-, 운반하-, 올리-, 팔-, 털-, 내-, 몰-, 띄-(浮), 이끌-
안으로의 사역적 이동: 들이-, 되들이-, 수입하-, 사들이-
놓기: 싣-, 모시-, 태우-, 담-, 심-, 묻-
사역적 상태 변화: 베-, 허물-, 끊-, 다듬-, 가르-, 깎-, 자르-, 고치-, 기르-
힘 가하기(impacting): 찍-
제조: 끓이-, 차리-, 짓-, 만들-, 그리-, 쓰-
호출: 부르-, 청하-
유혹: 꾀-

'-어다가'와 결합하는 동사들은 모두 한계 동사이며 타동사이다. 그리고 획득/입수, 채취/채집/떼어내기, 신체 소지, 사역적 이동, 사역적 상태 변화, 제조 등 몇 개의 제한된 의미 부류에 집중되어 있다. '-어다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접속되는 두 절이 주어뿐 아니라 보어까지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1) a. 할아버지는 얼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b. 아버지는 감 상자를 신작로까지 지게로 져다 준 다음 ……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 a. 일본제 알맹이를 들여다 만든 이 제품은 ……
b. 엄마가 뚝배기에 철철 넘게 끓여 놓은 된장을 흘리나 마나 폭폭 떠다가 비벼 먹다 보면 ……
c. 아버지는 라면 상자 두 개를 가져다 감을 차곡차곡 담아서 새끼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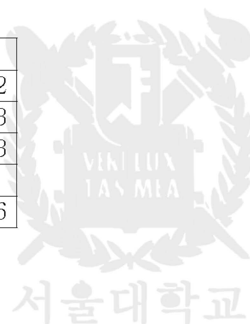
(1a)에서 '-어다가'와 결합된 동사 '뜨-'의 목적어인 '물'이 후행 동사 '주-'의 목적어도 겸하고 있다. (1b)에서도 '상자'는 '지-'의 목적어이면서 동시에 '주-'의 목적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다가'와 결합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반드시 후행 동사의 목적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에서 보듯이 후행 동사의 목적어 이외의 논항 성분일 수도 있다.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한국어의 연결어미들 중 접속되는 두 동사가 주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어까지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연결어미는 '-어다가'가 유일하다. 이 때 공유되는 보어 성분은 앞 절에서는 목적어이어야 하고, 뒤 절에서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 이외의 보어일 수도 있다. '-어다가'가 타동사와만 결합하는 것은 이러한 통사적 제약 때문이다. '-어다가'가 동사 결합에 있어서나 논항 공유에 있어서나 이렇게 심한 통사적 제약을 갖는 것은 연결어미들 중 문법화의 진척 정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일 것이다. '-어' 뒤에 붙어 있는 '-다가'가, 그 정체가 무엇이든, 이 제약을 발생시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4.3. '-러'의 결합 양상

'-러'는 말뭉치에 1,672회 출현하는데 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는 하나도 없다. '-러' 앞에 출현한 동사의 타입은 339개, 토큰은 1,672개이다. '-러' 앞에 출현하는 동사들 중 빈도가 1인 것을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위	동사	f(v,러)	f(v)	Z
1	놀	143	1205	121.755
2	뭣하	17	27	97.4081
3	나무하	7	11	62.8399
4	뭐하	16	113	44.5385
5	쐬	12	64	44.4723

순위	동사	f(v,러)	f(v)	Z
51	꾸	6	320	9.40532
52	일구	3	85	9.39653
53	사냥하	2	43	8.87723
54	축하하	3	96	8.8042
55	잡아먹	4	170	8.71366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6	만나	87	3946	39.2546
7	체조하	2	3	34.3825
8	팔	40	1311	31.7503
9	면회하	3	8	31.5409
10	구경하	16	241	30.2225
11	방청하	2	4	29.7593
12	동냥하	2	4	29.7593
13	구허	3	9	29.7259
14	찾	66	4026	28.9365
15	참배하	4	17	28.7977
16	구하	30	935	28.2465
17	보	157	20700	27.9185
18	데리	25	715	26.996
19	낚시하	2	5	26.6026
20	사	44	2445	24.9034
21	투표하	4	23	24.7163
22	무엇허	2	7	22.458
23	뵈	10	173	22.2369
24	구원하	5	47	21.5236
25	숙제하	3	19	20.3819
26	베	9	229	17.2328
27	참례하	2	12	17.1042
28	관람하	4	50	16.6355
29	캐	8	198	16.4867
30	채집하	3	29	16.4355
31	모시	14	606	16.1405
32	줍	10	319	16.1025
33	김매	2	14	15.8175
34	배웅하	3	32	15.6283
35	목욕하	3	32	15.6283
36	일하	20	1313	15.2544
37	잡	32	3141	15.1671
38	누	5	93	15.1414
39	취재하	4	63	14.7653
40	벌	13	647	14.3941
41	전송하	3	40	13.936
42	타	28	2893	13.7369
43	공부하	11	593	12.6591
44	달이	3	49	12.5482
45	먹	38	5888	12.2222
46	받	53	11523	11.1706
47	따	9	527	10.9256
48	마시	16	1595	10.6159
49	청하	5	216	9.65508
56	검사하	2	45	8.66772
57	배달하	2	46	8.56805
58	뫼시	2	46	8.56805
59	취업하	2	48	8.37798
60	쬐	2	50	8.19923
61	빌리	7	602	7.68836
62	가지	26	6024	7.40431
63	하	150	74640	7.40429
64	고하	2	63	7.24957
65	댕기	2	70	6.84951
66	찧	2	74	6.64624
67	둘러보	4	285	6.50166
68	얻어먹	2	83	6.24246
69	잠자	3	185	6.12299
70	살피	6	663	6.08822
71	의논하	2	88	6.04466
72	훔치	4	344	5.81135
73	청소하	2	96	5.75996
74	감시하	2	102	5.56808
75	다니	12	2489	5.50606
76	드리	5	569	5.45322
77	꺾	3	234	5.33698
78	지	8	1326	5.33417
79	끄	3	237	5.29656
80	장만하	2	126	4.93815
81	조사하	5	663	4.92961
82	배우	8	1608	4.60846
83	갈	3	316	4.43807
84	자	7	1392	4.34715
85	얻	10	2531	4.24551
86	알아보	4	608	4.01259
87	집	3	372	3.99312
88	빌	3	380	3.93711
89	고치	4	658	3.79182
90	심	4	676	3.7178
91	죽이	5	1002	3.65119
92	뿌리	3	503	3.23828
93	풀	5	1186	3.17704
94	허	3	536	3.08925
95	짓	9	3124	2.93186
96	맞추	4	951	2.83572
97	뜨	5	1356	2.81654
98	거두	3	635	2.70658
99	추	2	339	2.62288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50	항복하	2	38	9.47039	100	파	2	382	2.39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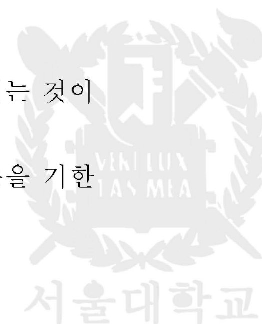
'-러' 앞에 출현하는 동사들을 의미 부류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하기, 획득: 동냥하-, 구하-, 구허-, 찾-, 데리-, 팔-, 사-, 모시-, 취재하-, 벌-, 타-, 받-, 꾸-, 사냥하-, 뫼시-, 빌리-, 취업하-, 가지-, 잡아먹-, 얻어먹-, 훔치-, (약) 짓-, 장만하-, 얻-, 빌-(乞), 맞추-, 거두-, 고르-
채취, 채집: 나무하-, 베-, 캐-, 채집하-, 줍-, 잡-, 따-, 꺾-, 집-, 뜨-
만남: 만나-, 면회하-, 보-, 뵈-, 의논하-
방문, 참석: 댕기-, 다니-, 참석하-
인사: 참배하-, 참례하-, 배웅하-, 전송하-, 항복하-, 축하하-, (이별, 하직) 고하-, (문안, 인사, 세배) 드리-
유희, 휴식: 놀-, 쐬-, 낚시하-, 쬐-, 추-, 체조하-
구경: 구경하-, 방청하-, 보-, 관람하-, 둘러보-
살피기: 검사하-, 살피-, 감시하-, 조사하-, 알아보-, 확인하-
일상적 활동: 목욕하-, 누-, 먹-, 마시-, 잠자-, 배우-, 자-
일하기: 숙제하-, 김매-, 공부하-, 일하-, 일구-, 배달하-, 청소하-, 파-
사역적 상태 변화: (불) 끄-, 고치-, 죽이-, 말리-
놓기: 심-, 뿌리-
봉사: 드리/VX, 돕-
포괄적 활동: 뭣하-, 뭐하-, 무엇허-, 하-, 허-

'-러'와 결합하는 동사들은 위에서 보듯이 모두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즉 동작주성(agentive) 동사인 것이다. 상적 특성에 관한 제약은 없는 듯하다. 한계 동사와 비한계 동사 모두 발견된다. 또한 '-러'에 의해 연결되는 두 절은 주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연결어미 '-러'와 관련된 흥미로운 점은 후행 절의 동사가 대부분 '가-', '오-'로 대표되는 이동 동사라는 점이다(홍재성 1987). 즉 '-러'에 의해 접속되는 두 절은 어떤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그 활동을 할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도식적 패턴은 연결어미 '-러'의 의미기능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만하다. 간혹은 후행절에 이동 동사 대신 사역적 이동 동사 '보내-'가 나타나기도 한다.

(3) a. 우리를 자러 보내고는 자기는 굳이 아버지 침대 곁에서 주무시는 것이었다.
b. 하지만 그만한 일 가지고 달수 아저씨가 화를 내고 빌려 준 돈을 기한도 되지 않았는데 받으러 보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c. 주 여사 말이 살살 달래 가지고 겨우 시집을 보내기는 했지만 꼭 의붓 아비 소 팔러 보낸 것 같아 영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에요.

이 때는 '-러'와 결합하는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보내-'의 목적어로 실현되어 일종의 사동 구문 비슷한 통사 구조가 형성된다. 이것은, '-러'와 관련된 통사적 제약을 단순히 '-러'의 후행절에는 이동 동사가 온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은 좀 거친 기술임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좀더 심층적인 의미 차원에서의 기술이 필요하다.

4.4. '-을수록'의 결합 양상

'-을수록'은 이형태 '-ㄹ수록'까지 포함해서 말뭉치에 모두 1,245회 출현하는데 이 중 형용사 및 계사와 결합하는 것이 460회 있다. 형용사의 타입은 68개, 토큰은 216개이고, 계사 '-이-'와 결합한 것이 244회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 있는 다른 연결어미에 비해 형용사 및 계사와 결합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을수록'과 결합하는 동사의 타입은 175개, 토큰은 785개이다. 이들 중 빈도가 1인 것을 제외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위	동사	f(v, 을수록)	f(v)	Z
1	가	162	13675	57.8869
2	흐르	36	1483	39.8306
3	올라가	22	1199	26.8738
4	지나	22	2404	18.4216
5	생각하	38	7616	16.9943
6	지/VX	54	20705	13.1231
7	근접하	2	47	12.5424
8	가/VX	24	5739	12.0744
9	거듭하	4	200	11.9888
10	커지	6	445	11.899
11	내려가	7	791	10.1915
12	발달하	4	359	8.75603
13	발전하	5	594	8.3726
14	고조되	2	104	8.30344
15	다가오	5	652	7.93949
16	그러	13	3694	7.92493
17	되	45	29494	7.53669
18	강화되	2	174	6.29773

순위	동사	f(v, 을수록)	f(v)	Z
31	들	12	10023	2.928
32	하	57	74640	2.87975
33	늘	2	638	2.86732
34	듣	7	4923	2.73583
35	넘기	2	684	2.72886
36	진행되	2	687	2.72027
37	들이	2	779	2.47893
38	나가/VX	4	2410	2.42128
39	내려오	2	870	2.27488
40	이어지	2	904	2.20573
41	오	9	10052	1.61012
42	드러나	2	1348	1.52866
43	만나	4	3946	1.33078
44	배우	2	1608	1.25073
45	맞	3	2903	1.18735
46	그리	2	1691	1.17329
47	읽	3	2968	1.14687
48	보	13	20700	0.632842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9	살아가	4	802	5.49968
20	계속되	4	818	5.4328
21	씹	2	256	5.07445
22	늙	3	597	4.78468
23	다가가	2	291	4.71243
24	성장하	2	325	4.41585
25	신	2	335	4.33691
26	증가하	2	450	3.61753
27	들어가	7	3823	3.51262
28	쌓	2	514	3.32004
29	성공하	2	539	3.21742
30	감	2	614	2.94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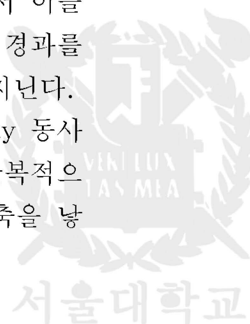
49	이르	2	2786	0.437422
50	쓰	5	8634	0.208608
51	먹	3	5888	-0.0608255
52	가지	2	6024	-0.662491
53	오/VX	3	9169	-0.838338
54	보이	3	9520	-0.905738
55	보/VX	5	14243	-0.9221
56	살	2	8793	-1.2292
57	받	3	11523	-1.25412
58	되/VX	3	13191	-1.50792
59	하/VX	13	44441	-2.19107
60	않/VX	2	36163	-3.95895
61	있	8	66177	-4.66041

이 동사들을 의미 부류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태 변화: 지/VX, 근접하-, 가/VX, 커지-, 발달하-, 발전하-, 고조되-, 되-, 강화되-, 늙-, 성장하-, 증가하-, (나이) 들-, 진행되-, 성공하-
타동적 상태 변화: (맛) 들이-, 배우-
시간 경과: 흐르-, 지나-, (해) 넘기-, 내려오-, (근년에) 이르-
이동: 가-, 올라가-, 내려가-, 다가오-, 다가가-, 들어가-, 오-
반복, 지속: 거듭하-, 계속되-, 이어지-
기타: 생각하-, 그러-, 살아가-, 씹-, 신-, 쌓-, 감-, 듣-, 드러나-, 만나-, 맞-, 그리-, 읽-, 보-, 쓰-, 나가/VX

'-을수록'과 자주 결합하는 동사들 중 상태 변화 동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을수록'의 의미 기능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을수록'은, 선행절의 사태가 진행됨에 따라 후행절의 사태가 점점 더 높은 정도로 성립됨을 나타내므로, '-을수록'과 결합하는 동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행 내지 진전될 수 있는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상태 변화 동사가 그런 속성을 지닌 가장 대표적인 동사인 것이다. '(맛을) 들이-'나 '배우-' 같은 동사는 타동사이지만,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가 발생할 때 목적어나 보어의 지시 대상이 변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지시 대상이 변화를 입는다. 따라서 이들도 일반 상태 변화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을수록'과 잘 어울린다.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동사나 이동 동사도 마찬가지로 '-을수록'과 어울리는 의미를 지닌다.

위에서 기타 부류로 처리한 동사들은 Vendler의 분류에 따르면 activity 동사인데, 이들 동사가 '-을수록'과 결합하면 그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행위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는 함축을 낳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는다.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한 번만,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고 만다면 '-을수록'의 의미와 잘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동사들이 '-을수록'과 결합할 때 그런 반복성의 함축을 갖기 때문에 '……면 ……을수록'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일이 많다. 반복/지속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과 '-을수록'이 자주 결합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a. 민수는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쁘기보다는 우울해졌습니다.
b. 이 노예 해방을 빨리 해 주면 해 줄수록 자식은 똑똑하게 성장한다.
c.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라크의 희생은 커지게 될 것이다.
d. 나의 흥분이 격렬하면 할수록 그의 희열은 배가되고 있었다.
e. 떠난 지가 오랜 사람이면 오랜 사람일수록, 떠나 있는 곳이 먼 사람이면 먼 사람일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간절하게 된다.

(4a, b)는 activity 동사의 예로서 동사의 반복에 의해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일종의 도상적(iconic) 표현의 예이다. (4c)는 activity 동사는 아닌데, 사태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4d, e)는 '-을수록'이 형용사나 계사와 결합한 예인데,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 계사를 포함하는 구가 나타내는 속성이나 상태의 정도에 따라 후행절의 사태도 그에 비례해서 성립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계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계사 앞의 명사구가 정도성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 '부자일수록' 같은 경우 명사 '부자'가 정도성의 의미를 갖는 경우이고, 위의 (4e)에서는 '사람'을 수식하는 '오랜'이 정도성을 나타낸다.

4.5. '-느라'의 결합 양상

연결어미 '-느라'는 '-느라고'까지 포함해서 말뭉치에 746회 출현하는데 형용사와 결합한 예는 하나도 없다. '-느라' 앞에 출현한 동사의 타입은 350개, 토큰은 746개이다. '-느라' 앞에 출현한 동사들 중 빈도 1인 것을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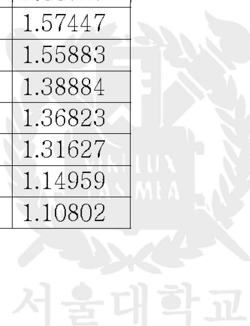
순위	동사	f(v,느라)	f(v)	Z
1	뛰어오	3	47	19.3866
2	찾	24	4026	15.4898
3	돌보	5	218	14.7918

순위	동사	f(v,느라)	f(v)	Z
51	아끼	2	366	4.24016
52	기르	3	826	4.01849
53	말리	2	425	3.87083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4	참	10	858	14.5924
5	준비하	8	658	13.3545
6	구경하	4	241	11.1586
7	억누르	2	84	9.53906
8	기다리	11	2267	9.25687
9	청소하	2	96	8.89558
10	다니	11	2489	8.73533
11	마련하	7	1105	8.66176
12	치우	3	223	8.63674
13	삼키	3	231	8.47411
14	따라다니	2	115	8.08795
15	갈아입	2	115	8.08795
16	열중하	2	117	8.01439
17	쪼개	2	118	7.9783
18	고르	4	457	7.87755
19	오르내리	2	123	7.80437
20	보살피	2	123	7.80437
21	위협하	2	162	6.73184
22	맞추	5	951	6.55131
23	챙기	3	373	6.5044
24	억제하	2	180	6.35638
25	피하	5	1001	6.3503
26	부리	4	672	6.31096
27	키우	4	774	5.79851
28	다스리	2	220	5.68924
29	처리하	3	499	5.49746
30	쫓기	2	234	5.49595
31	쫓	2	239	5.43092
32	분석하	3	521	5.35859
33	일하	5	1313	5.35238
34	먹이	3	537	5.26272
35	나르	2	253	5.25883
36	닦	3	553	5.17082
37	구하	4	935	5.15805
38	쓰	15	8634	5.14234
39	달래	2	272	5.04606
40	공부하	3	593	4.95665
41	만들	12	6390	4.92355
42	오	16	10051	4.89768
43	배우	5	1608	4.67219
44	채우	3	655	4.66206
45	의식하	2	328	4.52599
46	내/VX	8	3690	4.52588
47	치르	3	713	4.41985
54	자르	2	433	3.8263
55	하	60	74640	3.78429
56	확인하	3	949	3.65975
57	짓	6	3124	3.54542
58	잡	6	3141	3.52903
59	정리하	2	539	3.32734
60	감추	2	560	3.2445
61	꾸미	2	593	3.12261
62	차리	2	606	3.07712
63	넣	4	1963	3.04111
64	신	2	635	2.98029
65	붙이	3	1267	2.96753
66	기울이	2	657	2.91076
67	나누	4	2073	2.9053
68	찍	2	660	2.90152
69	읽	5	2968	2.88095
70	뽑	2	667	2.88019
71	끼	2	724	2.71709
72	터지	2	753	2.64061
73	쳐다보	2	768	2.60258
74	펴	2	771	2.5951
75	돌리	3	1566	2.50021
76	싸우	2	870	2.36788
77	먹	7	5888	2.35969
78	지키	3	1738	2.28096
79	뛰	2	917	2.27167
80	듣	6	4923	2.25084
81	꺼내	2	931	2.24425
82	타	4	2893	2.11825
83	대	2	1013	2.09385
84	막	2	1086	1.97267
85	즐기	2	1088	1.9695
86	가르치	2	1112	1.93202
87	풀	2	1186	1.82268
88	팔	2	1311	1.65634
89	나가/VX	3	2410	1.63065
90	설명하	2	1351	1.60727
91	열	3	2482	1.57447
92	자	2	1392	1.55883
93	치	3	2739	1.38884
94	벌이	2	1569	1.36823
95	보내	3	2848	1.31627
96	오르	2	1807	1.14959
97	세우	2	1857	1.10802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48	대/VX	4	1234	4.29962
49	피우	3	748	4.28659
50	짜	2	366	4.24016

98	부르	3	3503	0.938975
99	받	8	11523	0.927395
100	이루	2	2180	0.86772

4.1.에서 보았듯이 '-느라'는 연결어미들 중 절대 빈도는 30위이지만, IRad 값은 '-어다가'나 '-러'보다 낮아서 28위이다. 이것은 '-어다가'나 '-러'에 비해서 '-느라'는 결합하는 동사에 대한 제약이 덜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결합하는 동사의 타입-토큰 비율이 '-어다가'는 976/104 = 6.97, '-러'는 1672/339 = 4.93, '-느라'는 746/350 = 2.13으로 '-느라'가 현저히 낮다. 즉 '-어다가'나 '-러'의 경우에는 같은 동사가 반복해서 결합하는 일이 많이 있음에 반해, '-느라'는 그런 일이 비교적 적고 다양한 동사가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다. 위의 표에 제시된 동사들의 Z-score가 '-어다가'나 '-러'의 경우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도 이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느라'와 결합하는 동사는 거의 다 동작주성 동사이다. '-느라'는, 어떤 동작주(agent)가 선행절의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후행절의 사태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즉 두 절의 의미 관계는 원인-결과 관계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동작주가 선행절의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느라'와 결합하는 동사가, 동작주의 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느라'에 의해 접속되는 두 절이 주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어에 원인-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느라' 외에 '-어서', '-니(까)' 등이 있고 '-기 때문에' 같은 迂說的 구성(periphrastic construction)도 있지만, 이들과는 달리 '-느라'는 주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제약이 더 있는 것이다.

그런데 '-느라'의 이 두 가지 특성—동작주성 동사와만 결합한다는 것과 주어의 공유—에서 벗어나는 예가 말뭉치에서 드물지만 발견된다.

(5) a. 난 착실하게 보이느라 애썼단 말이오.
b. 시간에 쫓기느라 끼니를 자주 걸렀으니, 몸이 당해 내지 못했던 모양이다.
c. 집 헐어 가고 대신 주는 아파트 말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운수가 터지느라고 남향에다가 삼층으로 걸렸지 뭐에요.

(5a)는 사실 착실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느라 애썼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좀 간략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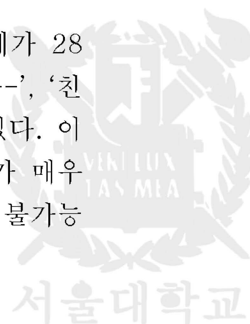
하게(또는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위에서 말한 일반화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5b)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인과 관계로 맺어져 있고 두 절이 주어를 공유하고 있으며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선행절 동사가 가리키는 사태에 연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여느 '-느라'와 다를 바 없으나, 그 사태에 동작주가 주체적, 의지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에서 이 예는 보통의 '-느라'와는 다른, 뭔가 확장된 쓰임이라는 느낌을 준다. 말뭉치에서 이런 예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으나, '-느라'의 쓰임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앞에서도 문법화가 진전됨에 따라 결합 제약이 느슨해지고 의미가 희석화되는 예를 여러 차례 보았거니와, '-느라'도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걸어오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같은 예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원인-결과 관계로 맺어지고 선행절 동사가 동작주성 동사이지만, 두 절이 주어를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향의 확장을 보여 준다.

(5c)는 이런 방향의 변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비가 오느라고 그렇게 구름이 잔뜩 끼었었구나', '이렇게 잘난 놈이 나오느라고 엄마 배가 그렇게 아팠구나' 같은 예도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서는 '-느라'에 의해 접속되는 두 절이 꼭 원인-결과의 의미 관계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 절의 주어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후행절의 사태가 일어난 뒤에, 그 사태의 목표라든지 숨은 의미에 대한 뒤늦은 인식 또는 그 사태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나타낸다.

'-느라'와 결합하는 동사가 상적 특성과 관련된 제약을 두드러지게 갖지는 않는 듯하다. 한계 동사 및 비한계 동사와 다 결합한다. 다만, 동작주가 선행절이 나타내는 행위에 연루되어 참여하는 것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보다는 시간적 지속을 함의하는 동사와 잘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즉 Vendler가 말한 achievement 동사보다는 activity 동사나 accomplishment 동사와 잘 결합한다.

4.6. '-고자'의 결합 양상

연결어미 '-고자'는 말뭉치에 1,713회 출현하는데, 형용사와 결합한 예가 28회 있다. '충실하-'가 8회, '자유롭-'이 2회, '군인답-', '솔직하-', '진실하-', '친근하-', '편안하-'가 각 1회씩이고, 계사 '-이-'가 12회, '아니-'가 1회 있다. 이 예들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 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빈도가 매우 낮기는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고자'가 형용사와 결합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그렇기는 해도 형용사와의 결합에는 매우 심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용사와 '-고자'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유효한 접근 방법일 것이다.

형용사와 결합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자' 앞에 출현하는 동사의 타입은 543개, 토큰은 1685개이다. '-고자' 앞에 출현한 동사들 중 빈도가 1인 것을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들은 다음 표와 같다.

순위	동사	f(v, 고자)	f(v)	Z
1	광고하	8	43	36.0295
2	경제하	2	3	34.2515
3	전달하	17	487	22.1502
4	살펴보	23	944	21.2155
5	극복하	18	595	21.1094
6	차별화하	2	10	18.6858
7	삼	22	1264	17.1972
8	환원하	3	27	16.9801
9	표현하	17	852	16.3275
10	검토하	13	543	15.7951
11	복수하	2	14	15.7565
12	도모하	6	123	15.7022
13	벗어나	21	1358	15.6993
14	찾	37	4026	15.2117
15	설명하	20	1351	14.9375
16	해결하	15	803	14.7786
17	고취시키	2	16	14.722
18	고찰하	4	65	14.4708
19	보/VX	72	14243	13.9764
20	문제삼	5	111	13.7471
21	얻	26	2531	13.6744
22	표출하	3	43	13.3731
23	제시하	16	1096	13.251
24	개진하	2	22	12.5119
25	주목하	8	351	12.0586
26	구현하	4	96	11.801
27	회귀하	2	26	11.4829
28	나타내	14	1124	11.2837
29	측정하	5	166	11.0979
30	주시하	3	65	10.7853
31	지적하	12	962	10.4554
32	연결시키	4	123	10.3437
33	소개하	9	596	10.1343

순위	동사	f(v, 고자)	f(v)	Z
51	접근하	6	363	8.71705
52	파악하	9	769	8.7123
53	제안하	4	174	8.56674
54	달래	5	272	8.45382
55	유지시키	2	47	8.43761
56	바로잡	4	180	8.40771
57	재검토하	2	48	8.3444
58	배우	13	1608	8.28762
59	은폐하	2	50	8.16629
60	확립하	3	113	8.02807
61	모방하	3	113	8.02807
62	이해하	12	1601	7.56859
63	다루	9	995	7.41859
64	강행하	2	60	7.41135
65	건설하	4	232	7.29099
66	아뢰	2	62	7.28229
67	증가시키	2	63	7.22002
68	지향하	4	247	7.03405
69	만족시키	2	69	6.87467
70	이룩하	4	259	6.8441
71	이바지하	2	70	6.82137
72	발전시키	4	269	6.69518
73	전개하	4	272	6.65204
74	강화하	5	414	6.61773
75	두/VX	13	2254	6.5432
76	정립하	2	76	6.52342
77	가려내	2	77	6.47709
78	전념하	2	78	6.43163
79	유지하	7	812	6.34178
80	대신하	4	296	6.32976
81	기여하	4	297	6.31714
82	회피하	2	83	6.21643
83	향상시키	2	86	6.09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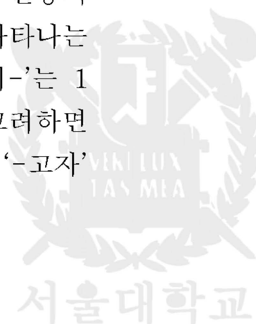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4	찾아보	8	485	10.0541
35	도피하	2	34	9.99538
36	완성시키	2	35	9.84587
37	해명하	4	138	9.72248
38	당부하	4	141	9.61
39	개혁하	3	81	9.60173
40	드러내	11	953	9.55162
41	탐색하	2	38	9.43286
42	포용하	3	90	9.0771
43	실현시키	2	41	9.06544
44	넘어서	7	454	9.04581
45	기술하	4	160	8.97088
46	확산하	2	42	8.95168
47	추구하	8	601	8.87291
48	해방시키	2	43	8.84185
49	도출하	2	43	8.84185
50	실현하	5	253	8.80566

84	재현하	2	86	6.09616
85	성취하	2	86	6.09616
86	기리	2	86	6.09616
87	이루	12	2180	6.06969
88	수습하	2	87	6.05742
89	도달하	4	320	6.04266
90	전하	9	1357	6.02237
91	닮	4	338	5.84664
92	수립하	3	203	5.77723
93	구별하	3	219	5.52583
94	규명하	2	103	5.51407
95	강조하	8	1258	5.51053
96	제한하	3	221	5.49625
97	말하	38	14425	5.38504
98	보호하	4	387	5.38023
99	추적하	2	110	5.31328
100	고수하	2	112	5.25927

'-고자'와 결합하는 동사들 중 눈에 띄는 것은 'X-시키-' 형태의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X-시키-'형 동사는 '-어다가'의 경우 1개, '-러'의 경우 2개, '-느라'의 경우 4개가 출현하는 데 비해 '-고자'는 48개나 되고, 위의 표에서 보듯이 Z-score 100위 안에도 10개나 들어 있다. 'X-하-' 형태의 동사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많아서 288개로 전체 543개 타입 중 53%나 되는데, 반면에 'X-되-' 형태의 동사는 2개밖에 없다. 'X-하-' 형태의 동사 중에는 의미상 동작주성인 것과 비동작주성(non-agentive)인 것이 있는데, '-고자'와 결합하는 동사 중에 'X-시키-'형은 많아도 'X-되-'형은 없는 것을 보면, '-고자'와 결합하는 'X-하-'형 동사들도 대부분 동작주성 동사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론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의미론적 측면에서 '-고자'가 대개 동작주성 동사와 결합한다는 사실의 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자'에 의해 접속되는 두 절 중 선행절은, 후행절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나타내므로 '-고자'가 동작주성 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동작주성 동사는 아니더라도 상태 변화 동사도 결합 가능하다. 말뭉치에도 '추대되-', '해방되-', '되-' 같은 비동작주성 상태 변화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타입도 몇 개 안 되고 빈도도 높지 않다. '추대되-'와 '해방되-'는 1회 출현했고, '되-'는 33회 출현했지만 말뭉치 전체에서의 빈도를 고려하면 Z-score는 -0.0711293으로서 '-고자'와 자주 공기한다고 볼 수 없다. '-고자'는 또한 접속되는 두 절이 주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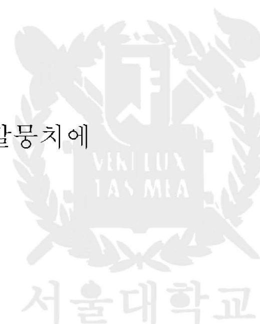
'-고자'를, 이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갖는 '-려'와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말뭉치 전체에서의 빈도는 10,318 대 1,720이고, IRad는 0.574294 대 1.05895로서 '-려'에 비해 '-고자'는 빈도도 낮고 결합되는 동사가 더 제한되어 있다. '-려'가 "목적" 이외에도 '비가 오려 한다'에서 보듯이 예정상(prospective aspect)에 가까운 의미로 확장된 데 비해, '-고자'는 그와 비견할 만한 의미 확장은 겪지 않았다.

또한 '-려'는 이른바 인용 동사 '하-' 탈락 현상을 겪어서 '-려면', '-려는', '-려는데'와 같은 수많은 복합형 어미들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말뭉치에서는 이러한 복합형 어미들을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여 태그를 부여했는데, '-려' 및 그 변이형 '-ㄹ라'를 포함한 복합형 어미들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많다.

① 연결어미(EC)로 처리된 것: 려고, 려, 려면, 으려고, 으려, 으려면, 려다, 려니, 려다가, 려는데, ㄹ려고, 려구, 으려니, 려니까, ㄹ려구, 으려니까, 으려다, ㄹ려면, 려는, 으려나, 려는지, 려거든, 으려다가, 려도, 려는가, 으려구, 을려고, 을려면, 려야, 으려는지, 으려거든, 려느냐, ㄹ려니까, 을려구, 으랴고, 려니깐, 려는고, ㄹ라치면, ㄹ라고, ㄹ라구
② 관형사형어미(ETM)으로 처리된 것: 려는, 으려는, 려던, 으려던
③ 종결어미(EF)로 처리된 것: 려고, 려구요, ㄹ려구, 려는가, 려고요, 려우, ㄹ려구요, ㄹ라구요, 려오, 려누, 을려고, 으려구요, 으려고, ㄹ라구, ㄹ라구요, ㄹ라우

이에 비해 '-고자'는 다른 어미와 결합하여 복합형 어미를 만들어 내는 일이 없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고자'에 비해 '-려'의 빈도를 높여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빈도나 결합 가능한 용언의 범위 같은 것은 문법화의 진척 정도와 관련이 있다. 15세기에 '-려'의 선대형인 '-오려'와 '-고자'의 선대형인 '-고져' 둘 다 어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려'가 어미로서의 지위를 이미 확고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에 비해 15세기의 '-고져'는 문법화된 지 얼마 안 된 듯한 면모를 보여 준다. 문법화를 겪은 역사의 차이가 오늘날 여러 면에서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4.7. '-고서'의 결합 양상



연결어미 '-고서'는 변이형 '-구서'로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뭉치에 1041회 출현하는데 형용사 및 계사와 결합하는 예가 35개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6) a. 내것이 넉넉하고서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말.
b. ……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의 힘이 빈약하고서는 그 어디에도 한국인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c. 당장 완력으로 그들을 제어할 수 없고서는 요즘은 양반이라도 그들을 함부로 꾸짖거나 나무랄 수 없다.
d. 나라에 죄를 얻어 관아에서 효수하는 머리는 고을 수령의 허락이 없고서는 아무도 손을 대 거두거나 수습해갈 수 없다.
e. 천재가 아니고선 그렇게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가 없겠지.

(6b-e)에서 보듯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고서는'은 선행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후행절 사태의 성립을 위한 충분조건이 됨을 나타내고, (6a)에서 보듯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고서야'는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 사태의 성립을 위한 필요조건이 됨을 나타낸다. 전자는 '-면'과, 후자는 '-어야'와 비슷한 의미 기능이다. 시간적 선후 관계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조건의 의미로부터 파생되는 것일 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이 용법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고서'의 용법에서 확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용법이다.

형용사를 제외하면 '-고서' 앞에 출현하는 동사는 타입이 272개, 토큰은 1006개이다. '-고서' 앞에 출현하는 동사들 중 빈도가 1인 것을 제외하고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위	동사	f(v,고서)	f(v)	Z
1	가지/VX	21	634	31.4237
2	않/VX	139	36163	23.4497
3	놓/VX	35	5043	17.1351
4	안	12	822	15.3538
5	올려놓	5	154	15.1719
6	두	24	3143	15.0202
7	감	9	614	13.3255
8	듣	27	4923	12.9947
9	놓	14	1600	12.4256
10	두/VX	15	2254	10.9233
11	보	54	20700	10.7668
12	갈아입	3	115	10.4793
13	갖	19	4146	9.68626
14	끼	7	724	9.30664

순위	동사	f(v,고서)	f(v)	Z
51	벗	3	634	3.92774
52	신	3	635	3.92362
53	뚫	2	320	3.83459
54	켜	2	342	3.67829
55	받	18	11523	3.67097
56	숙이	2	345	3.65807
57	내놓	3	734	3.55451
58	먹	11	5888	3.52417
59	짜	2	366	3.52305
60	뜨	4	1356	3.22102
61	알	16	11241	3.05765
62	치	6	2739	3.05048
63	타	6	2893	2.8938
64	하	70	74640	2.8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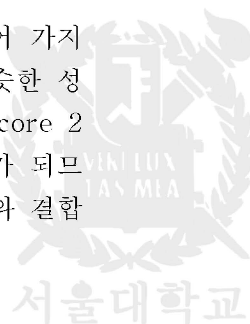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5	넣	12	1963	9.26922
16	찡그리	2	67	9.18332
17	디디	2	67	9.18332
18	작정하	2	77	8.53666
19	딛	2	98	7.51183
20	비우	4	375	7.44052
21	주문하	2	101	7.39167
22	담	7	1069	7.38542
23	감지하	2	105	7.23937
24	마시	8	1595	6.66799
25	내쉬	2	124	6.61736
26	대	6	1013	6.42381
27	들	23	10023	6.25206
28	달	5	773	6.19419
29	쥐	4	520	6.15347
30	입	9	2236	6.09398
31	업	2	150	5.96143
32	내걸	2	160	5.75159
33	실현되	2	162	5.71189
34	메	2	172	5.52355
35	내려놓	2	173	5.50559
36	확인하	5	949	5.4421
37	가지	15	6024	5.42452
38	덮	3	379	5.42028
39	지	6	1319	5.41095
40	읽	9	2968	4.94093
41	밟	3	453	4.86754
42	띠	4	760	4.86393
43	걸	5	1156	4.77279
44	그러	10	3694	4.75242
45	잡	9	3141	4.72286
46	끄	2	237	4.59583
47	외면하	2	289	4.08239
48	잊	4	1017	3.99541
49	실패하	2	304	3.95805
50	낳	5	1509	3.94147

65	발견하	3	1068	2.6812
66	끝내	2	570	2.60102
67	옮기	3	1266	2.31802
68	멈추	2	666	2.30959
69	쳐다보	2	768	2.05509
70	빼	2	830	1.92091
71	돌리	3	1566	1.88716
72	깨닫	2	856	1.86841
73	마치	2	988	1.62996
74	죽이	2	1002	1.60704
75	막	2	1086	1.47737
76	맞	4	2903	1.45517
77	잃	2	1130	1.41429
78	차	2	1179	1.34749
79	맡	2	1308	1.18658
80	묻	4	3686	0.955939
81	내/VX	4	3690	0.953708
82	주	5	4869	0.942476
83	끝나	2	1921	0.615384
84	모르	7	8306	0.585238
85	쓰	7	8634	0.482016
86	열	2	2482	0.248418
87	내	3	4066	0.151215
88	내리	2	2817	0.0689144
89	못하/VX	7	10088	0.0684093
90	짓	2	3131	-0.0807076
91	주/VX	7	15659	-1.10885
92	오/VX	3	9169	-1.28927
93	보이	2	9520	-1.75467
94	오	2	10052	-1.84637
95	말하	4	14425	-1.85155
96	보/VX	3	14243	-2.14715
97	되	3	29494	-3.83243
98	하/VX	9	44441	-3.89901
99	있	2	66177	-6.53777

Z-score 1위인 보조용언 '가지-'는 활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어 가지고(서)'의 형태로만 쓰이며, 이 구성 자체가 상당히 문법화되어 어미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되었고 '-어서'와 거의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갖는다. 한편 Z-score 2위인 보조용언 '않-'은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않-' 자체도 형용사가 되므로 위의 (6)에서 본 예들과 비슷한 경우가 된다. 또한 '-지 않-'이 동사와 결합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하는 경우에도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의 (6)과 비슷한 의미기능을 갖는다.

(7) a.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
b. 더러 도가 트인 도사들은 전혀 말하지 않고서도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한다.
c. 광주에 대한 정치 상층권의 연루 여부, 정치 자금 조성과 부실 기업 정리 같은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 하지 않고서 그 청산 책임을 검찰에 전가한정치인들의 행태이다.

(7a)에서 보듯이 '-고서는'은 '-면'과 같은 충분조건을 나타내고, (7b)에서 보듯이 '-고서도'는 '-어도' 비슷하게 양보를 나타낸다. (7c)에서 '-고서'는 선행절의 사태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행절의 사태가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다. '모르-'가 '-고서'와 결합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이런 예들은 모두 제외하고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고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려 한다.

위에서 말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고서'에 한정하면, '-고서'는 주로 한계 동사와 결합하는 강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것은 '-고서'의 의미 기능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한계-비한계 구분은 기본적으로 동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많지만, 때로는 동사의 논항이나 부사어 등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는 기본적으로 비한계 동사이지만 '3시간 동안'처럼 한계를 명시해 주는 부사어와 결합하면 한계 동사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며 '-고서'와의 결합도 자연스러워진다.

또한 '-고서'는 동작주성 동사와 결합하는 강한 경향을 보인다. 말뭉치에서 '-고서'와 결합한 동사 중 비동작주성 동사는 '실현되-', '잊-', '실패하-', '알-', '깨단-', '맞-', '잃-', '끝나-' 정도이다. 또한 자동사보다는 타동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고서'에 의해 접속되는 두 절은 반드시 주어를 공유해야 한다.

4.8.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절 접속의 특징

둘 이상의 절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는 일은 범언어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절 접속을 실현하는 형식적 수단은 언어에 따라 몇 가지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유형으로 나타난다. 영어를 비롯한 많은 유럽 언어들은 독립된 단어의 지위를 갖는 접속사를 사용하며, 한국어를 비롯한 아시아 대륙의 많은 교착어들, 그리고 동유럽의 다수 언어들은 특수한 동사 활용형을 사용한다. 일부 유형론 학자들은 Ramstedt(1903)의 용어를 수용하여 절 접속의 기능을 하는 동사 활용형을 부동사(converb)라고 부른다. 또한 중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한 몇몇 고립어들은 접속사나 부동사 같은 명시적인 장치 없이 그냥 절과 절을 병치(juxtaposition)시킴으로써 절을 접속하기도 한다. 한국어는 이 세 유형 중 부동사를 사용하는 유형에 속한다.[31)]

부동사 언어들 사이에서도 1개 내지 2개의 부동사를 갖는 언어도 있고 그보다 많은 수의 부동사가 있어서 기능이 분화되어 있는 언어도 있다. 한국어는 유난히 부동사의 수가 많은 언어로서 그 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32)] 다양한 부동사가 있으니 그 각각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영어의 분사 구문이 문맥에 따라 시간적 선후 관계, 시간적 동시 관계, 조건, 양보, 이유/원인 등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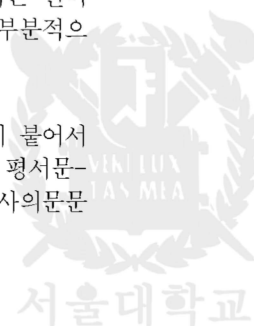
두 절이 접속될 때 두 절의 지위가 완전히 대등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종속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종속 접속의 경우 종속절은 주절에 비해 독자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주절에 대한 의존성을 지니는데, 이 의존성은 여러 측면에서 발현될 수 있다. 우선 평서문-의문문-명령문 등의 문장 유형 구분이 종속절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종속절 혼자서는 문장을 이룰 수 없으니 종속절에 문장 유형이 표현될 수는 없을 것이다.[33)] 또한 한국어에서 종결어미에 의해 표현되는 청자 대우법도 연결어미로 끝나는 종속절에서는 '-요'의 유무에 의해 매우 제한적, 비체계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종속절이 시제의 측면에서 제약을 갖는 일이 범언어적으로 많이 있다. 특히 부동사 언어에서 부동사는 상대 시제만 나타낼 수 있고 절대 시제는 나타

31) 위와 같이 3분하는 것은 실제의 현실을 상당히 단순화한 것이다.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들은 주로 접속사를 사용하지만 분사 구문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부동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즉 제1 유형은 일부 부동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접속사를 사용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등의 제2 유형도 주로 부동사를 사용하지만 접속사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2) Tikkanen(2001: 1119)에서는 40개 이상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33) 여기에 대한 예외처럼 보이는 현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종결어미 뒤에 '-마는'이 붙어서 절 접속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때 '-마는' 앞의 절은 종결어미로 끝나므로 평서문-의문문의 구분이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문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사의문문만 가능하므로 진정한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낼 수 없는 일이 흔하다. 화시적 중심(deictic center)를 기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절의 사건시를 기준점으로 하여 시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또한 종속절이 주절에 대해 갖는 의존성의 한 발현이다. 그런데 문장 유형과는 달리 종속절이 시제에 있어서 주절에 의존적인 것은 꼭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종속절과 주절이 각기 독자적으로 시제 해석을 받는 것도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로 한국어의 연결어미들 중에는 상대 시제만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절대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다. 대등 접속 연결어미 '-고', '-며', '-나', '-지만', '-거나' 등이 대표적인 예이고 종속 접속 연결어미 중에도 '-면', '-거든', '-니까', '-므로' 등이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절대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사를 갖는 언어들 중에서 부동사가 절대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의 매우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34] 본고에서 살펴본 '-어다가', '-러', '-느라', '-고자', '-고서' 등의 연결어미들은 모두 상대 시제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연결어미들은 당연히 시제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제약도 갖는다.

종속절이 주절에 대해 갖는 의존성의 또 다른 발현으로 종속절이 독자적으로 주어 논항을 가질 수 없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들 중에는 종속절이 독자적으로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어다가', '-러', '-느라', '-고자', '-려', '-고서'는 모두 종속절이 독자적으로 주어를 가질 수 없고 주절과 주어를 공유해야 하는 연결어미들이다. 이 밖에도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어서',[35] 시간적 동시 관계를 나타내는 '-면서',[36] 배경 사태의 중단에 이은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의미하는 '-다가'[37] 등도 항상 종속절이 주절과 주어를 공유해야 한다.

종속절이 주절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고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은, 사용될 수 있는 동사의 범위가 제약된다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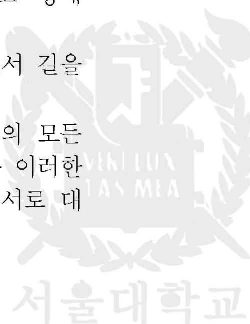
---

34) Tikkanen(2001: 1113)에서는 한국어 외에 몇몇 파푸아 언어가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

35)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에서 볼 수 있는 "이유/원인"을 의미하는 '-어서' 말고 '방에 들어가서 잤다'와 같은 예에서 보이는 용법을 말한다.

36)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대담하다'에서 볼 수 있는 용법 말고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걸었다'와 같은 예에서 보이는 용법을 말한다.

37) '대전까지는 철수가 운전하다가 대전부터는 내가 운전했다'에서 보듯이 '-다가'의 모든 용법이 주어 공유에 대한 제약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어 공유가 필수적이지 않은 이러한 용법의 '-다가'는 선행절의 사태와 후행절의 사태가 어떤 時點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조됨을 의미한다. 주어 공유를 반드시 요구하는 용법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고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의 연결어미들 중에는 동작주성(agentivity)이나 상적 특성, 타동성에 따른 결합 제약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며, 몇몇 의미 부류의 동사들과 집중적으로 결합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한국어에 연결어미의 수가 많아서 의미 기능이 분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연결어미가 매우 제약된 의미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에 걸맞는 의미를 가진 동사와만 결합하는 제약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만큼 부동사의 수가 많지 않고, 따라서 의미 기능이 별로 분화되어 있지 않은 언어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훨씬 덜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종속절이 주절에 대해 갖는 의존성, 종속성이 여러 측면에서 발현됨을 보았는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여러 특징이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4.1.에서 살펴본 30개의 연결어미들이 위에서 열거한 여러 기준에 대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결어미	상대시제	주어공유	동작주성
어다가	○	○	○
러	○	○	○
느라	○	○	○
고자	○	○	○
고1/고서[38)]	○	○	○
을수록	○	×	×
더라도	×	×	×
더니	×	×	×
듯	×	×	×
도록	○	×	×
든	×	×	×
므로	×	×	×
자	○	×	×
어도	×	×	×
려[39)]	○	○	○
니까	×	×	×
어서1[40)]	○	○	○
거나	×	×	×
게	○	×	×
나	×	×	×
어야	×	×	×
지만	×	×	×
면서1[41)]	○	○	×
면서2	×	×	×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면	×	×	×
다가1[42]	○	○	○
다가2	○	×	×
며	×	×	×
는데	×	×	×
어서2/어	○	×	×
지[43]	×	×	×
고2	×	×	×

이 표에서 둘째 칼럼은 해당 연결어미가 상대시제만 가능한가 절대시제도 가능한가를 나타내고, 셋째 칼럼은 주어 공유가 필수적인가를 나타내며, 넷째 칼럼은 대체로 동작주성 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성을 보이는가를 나타낸다. 표에서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이 세 가지 속성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어다가', '-러', '-느라', '-고자', '-고1/고서', '-려', '-어서1', '-다가1'은 세 가지 속성 모두 긍정적인 값을 갖고, '-더라도', '-더니', '-듯', '-든', '-므로', '-어도', '-니까', '-거나', '-나', '-어야', '-지만', '-면서2', '-면', '-며', '-는데', '-지', '-고2'는 세 가지 속성 모두 부정적인 값을 갖는다. 이러한 일반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을수록', '-도록', '-자', '-게', '-다가2', '-어서2/어', '-면서1'인데, '-면서1'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대시제만 가능하면서도 주어 공유나 동작주성 동사와의 결합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세 가지 속성 모두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주어 공유와 동작주성 동사와의 결합 경향 사이의 상관관계가 더 강력한 것이고 이 둘과 상대 시제와의 상관성은 이보다는 약간 떨어짐을 알 수 있다.[44]

---

38)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고'를 '-고1'로, 대등 접속의 '-고'를 '-고2'로 표기한다.

39) '비가 오려 한다'와 같은 예정상의 '-려'는 논외로 한다.

40)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어서'를 '-어서1'로,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어서'를 '-어서2'로 표기한다.

41) 시간적 동시 관계를 나타내는 '-면서'를 '-면서1'로, 대등 접속을 나타내는 '-면서'를 '-면서2'로 나타낸다.

42) 주어 공유가 필수적인 '-다가'를 '-다가1'로, 그렇지 않은 '-다가'를 '-다가2'로 나타낸다.

43) 보조적 연결어미 '-지'는 절과 절을 접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외로 한다. 여기서는 '그는 학생이지 직원이 아니다' 같은 예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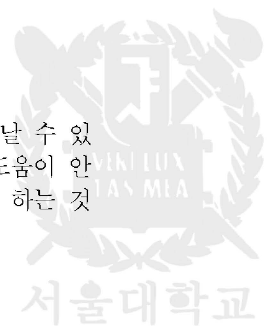
44) 동사 활용형의 finiteness에 대한 논의가 최근 유형론 학자들 사이에 있었다. 어떤 동사 활용형이 finite form이 되기 위해서 흔히 거론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시제 활용과 주어와의 일치이다. 한국어는 일치(agreement)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로서 일부 논자에 의해 주어 일치 요소로 논의되어 온 '-시-'가 과연 주어 일치 요소인지도 의문이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거니와, 그 논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시-'가 거의 모든 동사 활용형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활용형을 finite form과 non-finite form으로 구분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한국어의 경우 시제 활용 여부, 다시 말해 절대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구분을 위해 중요한 기준인 듯하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5. 결합 특성에 따른 동사와 문법요소의 분류

이 장에서는 어떤 보조용언, 어떤 어미들과 잘 결합하는가 하는 특성에 따라 동사들을 분류해 본다. 또한 거꾸로 어떤 동사들과 잘 결합하는가 하는 특성에 따라 보조용언 및 어미를 분류하는 작업도 시도해 본다. 또한 이러한 결합 특성에 따른 분류가 의미에 입각한 직관적인 분류와 얼마나 부합되는지도 살펴본다.

5.1. 동사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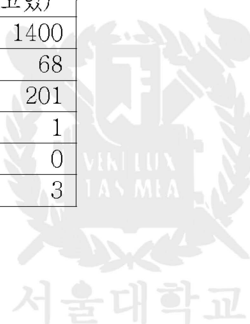
어떤 단어들이 통사적 특성이 유사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그들이 비슷한 성격을 지닌 언어 요소들과 결합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많은 현대 통사론 학자들의 전제대로 의미가 통사적 현상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면,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은 비슷한 통사적 행동을 보일 것이다. 즉 비슷한 결합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동사에 적용해 보면, 비슷한 의미의 동사들은 논항을 취하는 특성에 있어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일 것이고 어미나 보조용언과 결합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논항을 취하는 속성에 따라 동사들을 분류해 본다든지, 어미 및 보조용언과의 결합 양상에 따라 동사들을 분류해 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직 의미 탐구의 방법론이 만족할 만큼 정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통사적 특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말뭉치에서의 빈도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그런 작업을 해 보고자 한다.

우선 소수의 보조용언과 소수의 동사만을 가지고서, 이 장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의 성격 및 과정을 예시하겠다. 말뭉치에서 5000회 이상 출현한 37개의 동사가 보조용언 '-어 있-'과 '-고 있-' 앞에 출현한 빈도는 다음 표와 같다.

동사	f(v, 어있)	f(v, 고있)
가	108	138
가/VX	3	579
가지	0	1096
나오	202	213
놓/VX	0	242
대하	3	11

동사	f(v, 어있)	f(v, 고있)
모르	2	182
못하/VX	1	552
받	0	689
버리/VX	0	15
보	5	600
보/VX	0	62

동사	f(v, 어있)	f(v, 고있)
알	0	1400
오	174	68
오/VX	9	201
위하	7	1
의하	1	0
있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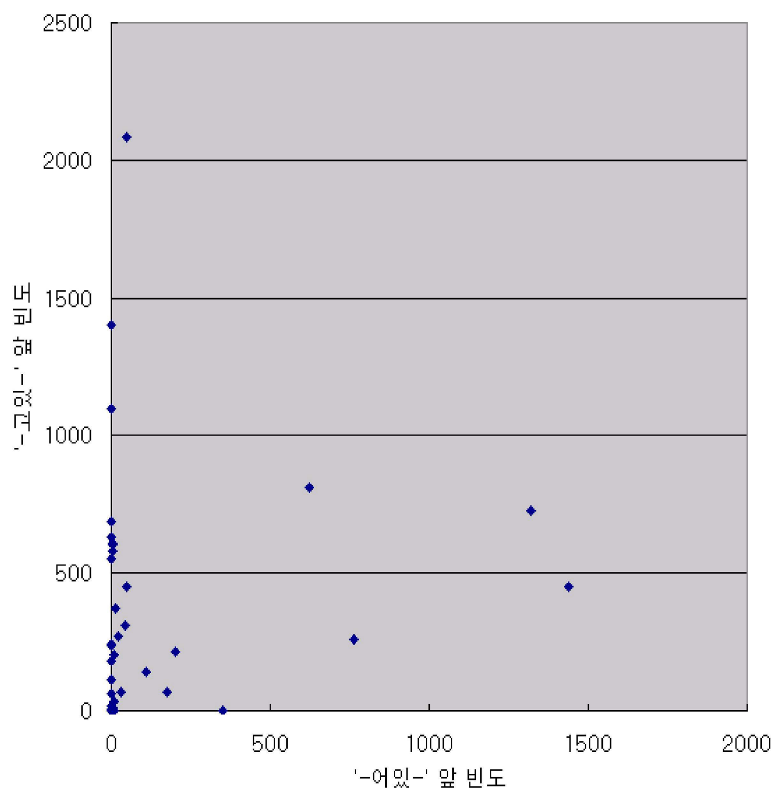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되	1438	448
되/VX	349	1
들	761	259
따르	9	34
만들	30	69
말하	24	269
먹	2	112

보이	47	449
살	624	810
생각하	2	234
싶/VX	0	0
쓰	42	312
않/VX	3	609

있/VX	0	2
주/VX	0	630
지/VX	1319	725
통하	2	7
하	50	2084
하/VX	11	373

이 37개 동사의 빈도 분포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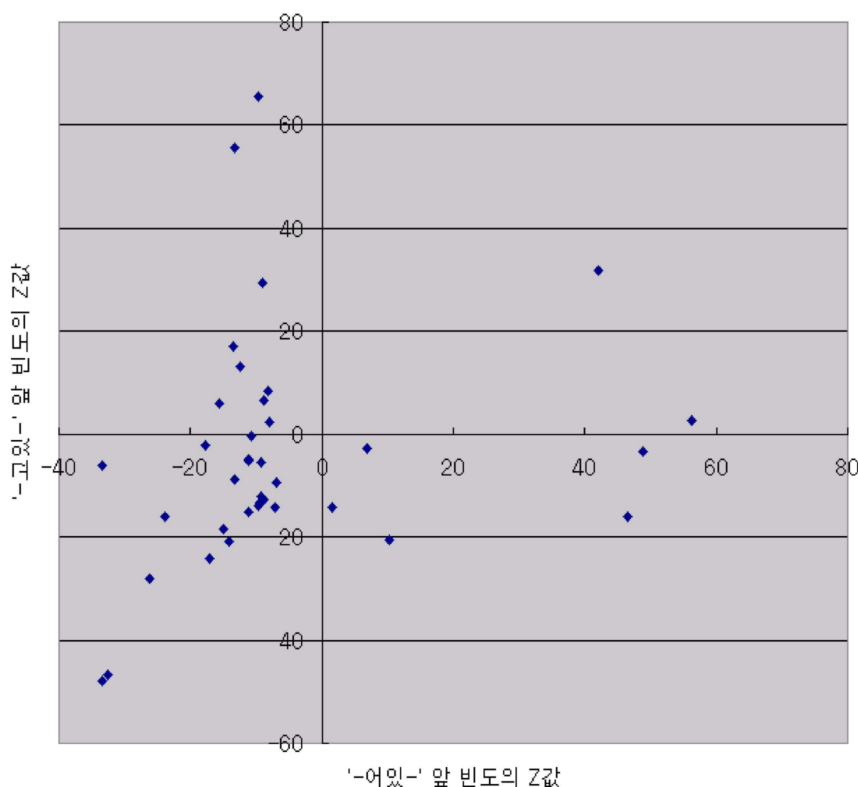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아래 구석 가까이에 나타나는 동사들은 '-어 있-'과는 잘 결합하고 '-고 있-'과는 잘 결합하지 않는 동사라 할 수 있고, 왼쪽 위 구석 가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까이에 나타나는 동사는 그 반대이고 오른쪽 위 구석 쪽에 나타나는 동사는 두 보조용언과 다 잘 결합하는 동사이며, 원점 가까이에 나타나는 동사는 두 보조용언과 다 잘 결합하지 않는 동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X축과 Y축 모두 값들이 원점 주위에 밀집해 있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초 자료가 절대 빈도라는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했듯이, 어떤 동사가 어떤 보조용언 앞에 몇 번 나타났는가 하는 절대 빈도 자체보다는, 이 동사가 말뭉치 전체에서 빈도가 얼마인지를 바탕에 깔고서 특정 보조용언 앞에서의 빈도가 갖는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절대 빈도 대신 Z-score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다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절대 빈도를 바탕으로 한 그래프에 비해서 각 동사의 위치가 좀 더 퍼져서 나타난다. Z-score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음의 값도 가질 수 있다. X축 가까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이에 오른쪽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것은 '-고 있-'과의 결합 빈도는 보통이지만 '-어 있-'과는 잘 결합하는 동사이며, Y축 가까이에 위쪽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에서 단순히 눈짐작으로 어떤 동사와 어떤 동사가 가까이에 있는가를 보고서 동사를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학적으로 더 엄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경우처럼 변수가 둘일 때에는 2차원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변수의 수가 많을 때에는 그래프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직관적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로 해서 좀 더 엄밀한 통계 기법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 기법은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의 하나인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이다. 군집 분석에도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대체로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될지를 미리 아는 경우에는 non-hierarchical method인 K-means clustering을 사용하고, 그런 선입견 없이 데이터를 위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할 때에는 hierarchical clustering을 사용한다. hierarchical clustering에도 위에서부터 부류를 점차 잘게 나누어 가는 divisive method와 밑에서부터 부류를 합쳐 나가는 agglomerative method가 있다. 본고의 목적에는 agglomerative method가 부합된다. 위의 예를 가지고 이 방법에 따른 군집화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능한 모든 데이터 쌍의 거리를 측정한다. 위의 예에서는 ${}_{37}C_2$ = 37×36/2 = 666개 쌍의 거리를 측정한다. 거리 측정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한다. 666개 쌍 중 가장 거리가 가까운 두 점을 하나의 부류로 묶는다. 이로써 1단계가 끝난다. 그 다음 단계에는 앞 단계보다 하나 적은 36개의 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원래 존재했던 데이터 항목의 수보다 1 적은 수만큼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둘 이상의 데이터 항목으로 이루어진 부류끼리의 거리를 측정할 때, 다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두 부류 내의 모든 데이터 항목끼리의 거리를 다 계산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는 average linkage, 가장 가까운 항목끼리의 거리를 채택하는 single linkage, 가장 먼 항목끼리의 거리를 채택하는 complete linkage, 각 부류의 중심점(centroid)끼리의 거리를 사용하는 centroid method 등이 있다.[45] single linkage를 사용하면 부류 내 모든 항목 사이의 응결성이 떨어져도 어느 하나라도 비슷한 항목만 있으면 부류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슬 모양의



45) single linkage는 nearest neighbour method, complete linkage는 furthest neighbour method라고도 한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큰 부류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complete linkage를 사용하면 크기는 작고 응결성은 높은 부류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본고에서는 위계 구조상의 가장 아래쪽의 동사 부류에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complete linkage가 적합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말뭉치에 1000회 이상 출현한 동사 202개를 데이터 항목으로 하여, 그리고 3장에서 살펴본 21개의 보조용언과 4장에서 살펴본 30개의 연결어미를 변수로 하여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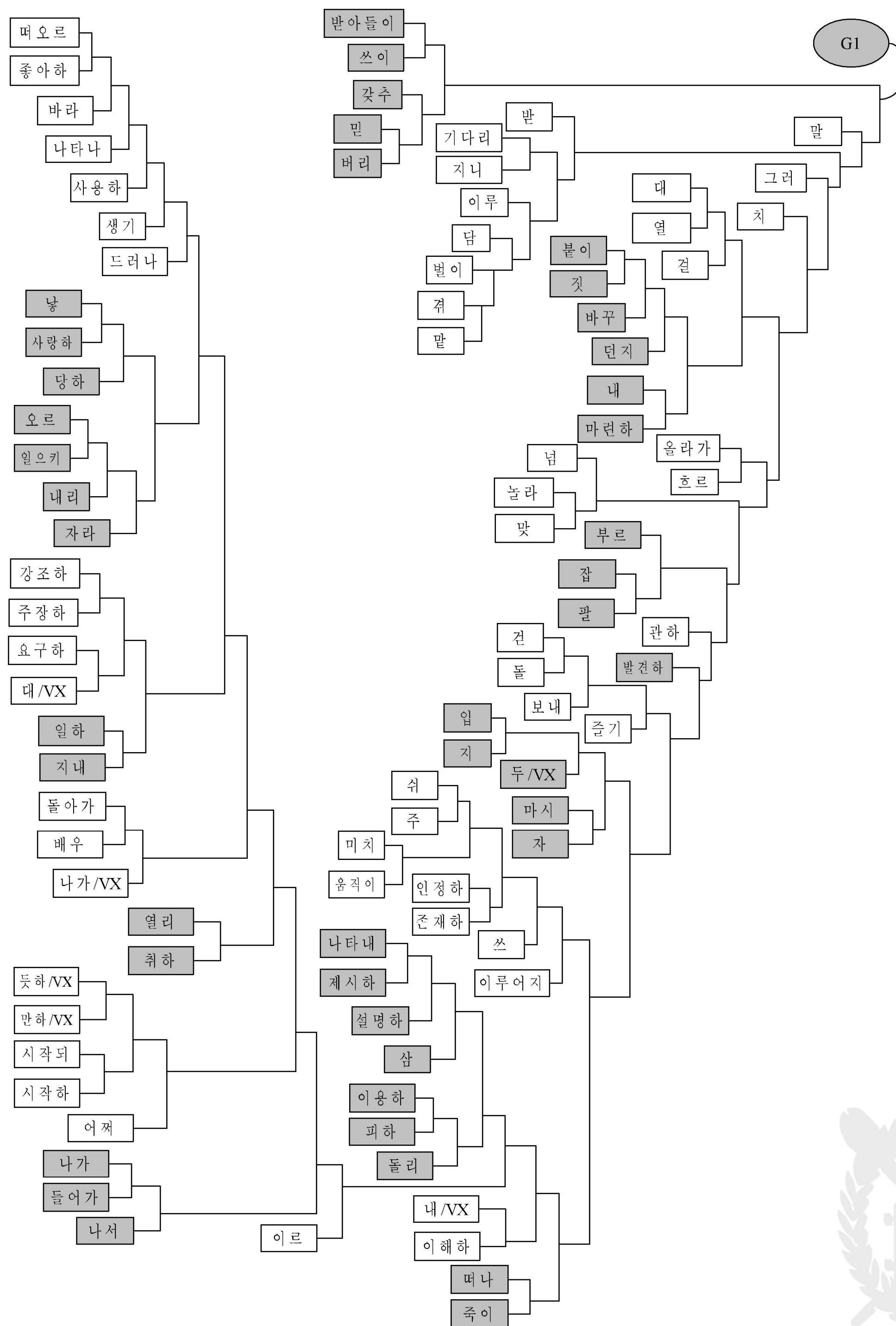
동사	전체빈도	어있	고있	어버리	어내	……
가	13675	-7.13631	-14.2635	16.36	-5.82085	
가/VX	5739	-9.11452	29.4852	-1.59292	-3.76075	
가르치	1112	-3.90475	0.797848	-2.03445	-1.65285	
가지	6024	-9.66609	65.6082	-4.10795	-3.85337	
강조하	1258	-4.41013	9.83706	-2.164	-1.75809	
갖	4146	-8.01397	79.344	-3.93236	-3.19476	
갖추	1104	-2.91996	20.7938	-2.02711	-1.03923	
거치	1052	-4.03263	-5.60476	-1.97876	-0.985119	
걷	1497	-3.97901	5.73969	-1.08879	15.3048	
걸	1156	-3.99068	3.36082	-0.144518	-0.497565	
……						

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생략하였지만 행의 수는 202개이고 열의 수는 전체 빈도를 제외하고 51개가 된다. 각 셀(cell)에 나타나는 수치는 Z-score이다. 이 표의 데이터에 대해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군집 분석을 행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46)]

46)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지 않아 두 페이지에 나누어 제시하였다. 앞 페이지의 모든 동사는 G1으로 통합되는데 이 G1이 뒤 페이지에서 다시 다른 동사 부류들과 통합한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Created With a Trial Copy of SmartDraw
To remove this watermark please purchase a copy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G1

주/VX
못하/VX
말/VX
오/VX
끝나
들어서
웃
다니
가/VX
바라보
묻
먹
듣
읽
놓
타
놓/VX
두
넣
되/VX
말하
벗어나
얻
만나
찾
사라지
변하
잃
죽
살
지/VX
들
뜨
걸리
붙
달리
차
잇
거치
모이
걸치
인하
비하
의하
나
오
버리/VX
떨어지
빠지
지키
풀
들리
울
가르치
나누
사
되
잇
지나
밝히
여기
전하
느끼
모으
옮기
세우
정하
그리
가지
끌
남기
싶

알리
보/VX
있
있/VX
만들
서
앉
남
따르
대하
위하
통하
가
나/VX
보
하
보이
놓
갖
알
모르
않/VX
하/V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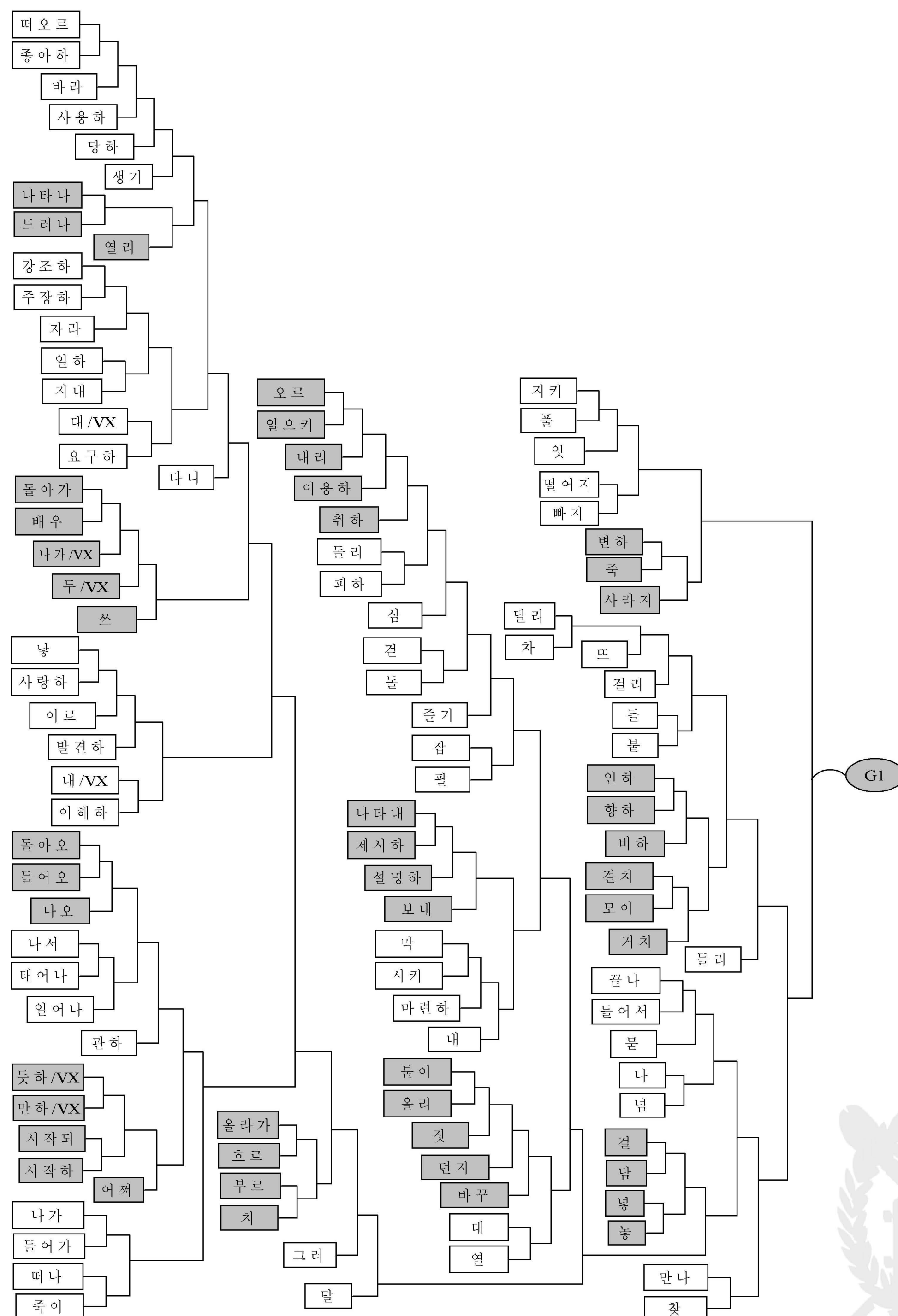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위의 그림은 average linkage 방법을 사용한 군집 분석의 결과인데, single linkage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인 사슬 모양 비슷한 큰 부류가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complete linkage를 사용한 다음 그림과 비교해 보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인정하
존재하
쉬
주
이루어지
놀라
맞
잃
받
마시
자
먹
듣
읽
입
지
말/VX
못하/VX
놓/VX
두
타
겪
맡
벌이
이루
기다리
지내
살
가/VX
바라보
웃
울
가르치
나누
사
G1
되/VX
오/VX
말하
주/VX
버리/VX
되
지/VX
벗어나
잇
지나
싫

밝히
여기
전하
느끼
만들
남
앉
서
의하
통하
따르
대하
위하
나/VX
가
오
믿
버리
갖추
받아들이
쓰이
그리
얻
모으
옮기
세우
정하
남기
보이

모르
않/VX
보
찾
놓
생각하
갖
알
가지
끌
있/VX
하/VX
보/VX
있
알리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위계 구조의 맨 아래쪽은 두 경우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낳지만, 확실히 complete linkage를 사용했을 때 부류 내 구성원간의 응결성이 높아지고, 사슬 모양의 대부류가 형성되는 문제는 훨씬 경감되었다. 위계 구조의 맨 아래쪽 동사 부류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떠오르-, 좋아하-, 바라-, 사용하-, 당하-, 생기-
2. 나타나-, 드러나-, 열리-
3. 강조하-, 주장하-, 자라-, 일하-, 지내-, 대/VX, 요구하-
4. 돌아가-, 배우-, 나가/VX, 두/VX, 쓰-
5. 낳-, 사랑하-, 이르-, 발견하-, 내/VX, 이해하-
6. 돌아오-, 들어오-, 나오-
7. 나서-, 태어나-, 일어나-
8. 듯하/VX, 만하/VX, 시작되-, 시작하-, 어쩌-
9. 나가-, 들어가-, 떠나-, 죽이-
10. 올라가-, 흐르-, 부르-, 치-
11.붙이-, 올리-, 짓-, 던지-, 바꾸-
12. 대-, 열-
13. 막-, 시키-, 마련하-, 내-
14. 나타내-, 제시하-, 설명하-, 보내-
15. 잡-, 팔-
16. 걷-, 돌-
17. 오르-, 일으키-, 내리-, 이용하-, 취하-
18. 만나-, 찾-
19. 걸-, 담-, 넣-, 놓-
20. 끝나-, 들어서-, 묻-, 나-, 넘-
21. 인하-, 향하-, 비하-, 걸치-, 모이-, 거치-
22. 달리-, 차-, 뜨-, 걸리-, 들-, 붙-
23. 변하-, 죽-, 사라지-
24. 지키-, 풀-, 잇-, 떨어지-, 빠지-
25. 인정하-, 존재하-, 쉬-, 주-, 이루어지-
26. 놀라-, 맞-, 잃-
27. 마시-, 자-, 먹-; 들-, 읽-
28. 입-, 지-, 말/VX, 못하/VX, 놓/VX, 두-, 타-
29. 겪-, 맡-, 벌이-, 이루-, 기다리-, 지내-, 살-
30. 가/VX, 바라보-, 웃-, 울-
31. 가르치-, 나누-, 사-
32. 되/VX, 오/VX, 말하-, 주/VX, 버리/VX, 되-, 지/VX
33. 벗어나-, 잊-, 지나-
34. 모으-, 옮기-, 세우-, 정하-
35. 믿-, 버리-, 갖추-, 받아들이-, 쓰이-
36. 그리, 얻-
37. 갖-, 알-, 가지-, 끌-
38. 모르-, 않/VX, 보-,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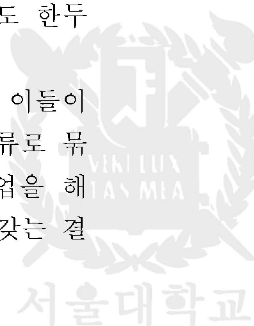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9. 놀-, 생각하-
40. 의하-, 통하-, 따르-, 대하-, 위하-
41. 가-, 오-, 나/VX
42. 밝히-, 여기-, 전하-, 느끼-, 만들-
43. 남-, 앉-, 서-
44. 있/VX, 하/VX, 있-, 보/VX

분류 체계의 위로 갈수록 구성원들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류 전체의 언어학적 의의를 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분류 체계의 맨 아래쪽 부류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수밖에 없다.

위의 부류들 중 6 부류는 모두 '오-'를 후행 요소로 하는 합성 동사들이므로 같은 부류로 묶이는 것이 당연하다. 21 부류나 22 부류, 40 부류 등은 주로 '-어', '-어서', '-ㄴ'과만 결합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부류로 묶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히려 이들 모두가 하나의 부류로 묶이지 않고 몇 개 부류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 32 부류는 대체로 상태 변화의 의미를 지니는 보조용언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43 부류는 '-어 있-'과 매우 빈번하게 결합되어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23 부류는 상태 변화, 특히 소멸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동사들이 묶여 있다. 27 부류는 일상적인 활동, 특히 뭔가를 섭취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2 부류에서 '나타나-'와 '드러나-'가 같이 묶인 것이라든지, 3 부류에서 '강조하-', '주장하-', '요구하-'가 한데 묶인 것, 14 부류에서 '나타내-', '제시하-', '설명하-'가 한데 묶인 것, 5 부류의 '발견하-'와 '이해하-', 8 부류의 보조 형용사 '듯하-'와 '만하-', 8 부류의 '시작되-'와 '시작하-', 9 부류의 '나가-', '들어가-', '떠나-', 17 부류의 '오르-'와 '내리-', 19 부류의 '넣-'과 '놓-', 24 부류의 '떨어지-'와 '빠지-', 28 부류의 '입-'과 '지-', 28 부류의 부정 보조용언 '말-', '못하-', 28 부류의 보조동사 '놓-'과 '두-', 29 부류의 '지내-'와 '살-', 30 부류의 '웃-'과 '울-', 34 부류의 '세우-'와 '정하-', 37 부류의 '갖-'과 '가지-', 41 부류의 '가-'와 '오-', 42 부류의 '여기-'와 '느끼-', 44 부류의 '있-'과 보조용언 '있-' 등이 한데 묶인 것도 대체로 직관과 부합된다. 38 부류의 '모르-'와 '않-'도 부정 용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각 부류에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동사들 외에 이질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한두 개씩 섞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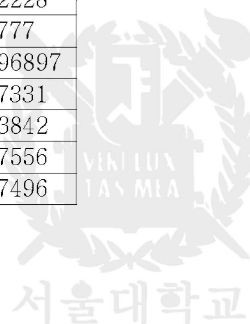
동사들이 하나의 부류로 묶인 이유를 금방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어떤 보조용언 및 어미들과 강한 결합력을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부류로 묶이게 된 원인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1 부류의 동사들에 대해 이 작업을 해 보자. 이 6개의 동사들이 20개의 보조용언 및 31개의 연결어미에 대해 갖는 결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합력을 Z-score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앞서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떠오르-'와 '좋아하-'가 가장 유사하고 이 둘을 포함한 부류에 '바라-', '사용하-', '당하-', '생기-'의 순서로 흡수되고 있다. 이 동사들은 대체로 '-지 않-', '-지', '-게', '-게 되-'와는 잘 결합하는 편이다. 반면에 '-어 있-', '-어 버리-', '-어 내-', '-어 놓-', '-어 두-', '-어 나가-', '-어지-', '-러', '-고자'('사용하-'는 제외), '-고 나-'('당하-'는 제외), '-어', '-어서' 등과는 잘 결합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사용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동작주성 동사이므로 '-어 버리-', '-어 내-', '-어 놓-', '-어 두-', '-어 나가-', '-러', '-고자' 등과 잘 결합하지 않고, '떠오르-' 외에는 모두 타동사이므로 '-어 있-'과 잘 결합하지 않고, 상태 변화 동사와도 거리가 있으므로 '-어지-'와 결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조용언 및 어미와의 구체적인 결합의 선호도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하나의 부류로 묶이게 된 원인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런 공통점이 이들을 하나의 묶을 수 있는 적극적인 언어학적 근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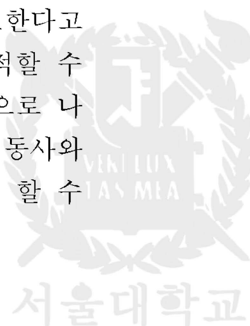
동사	떠오르	좋아하	바라	사용하	당하	생기
전체빈도	1040	1269	1294	2010	1480	2581
어있	-2.51208	-4.42938	-4.24907	-5.57595	-4.78381	-5.52718
고있	-2.43528	-3.66546	3.58646	7.67804	1.17797	-7.50609
어버리	-1.96744	-2.17344	-2.19477	-2.37007	-1.49449	-3.10101
어내	-1.5984	-1.76577	-1.78309	-2.22284	6.49117	-2.51935
어놓	-1.84675	-2.04012	-2.06013	-2.56821	-2.20336	-2.91079
어두	-1.24482	-1.37517	-1.38866	-1.73113	-1.4852	-1.96205
어내	-0.91777	-1.01387	-1.02381	-1.27631	-1.095	-1.44656
어나가	-1.25322	-1.38445	-1.39803	-1.74282	-1.49523	-1.97529
어지	-2.97967	-3.29167	-3.32396	-4.14373	-3.55506	-4.69647
어다가	-0.826315	-0.912837	0.163995	-1.14913	-0.98588	-1.30241
러	-1.08153	-1.19478	-1.2065	-1.50405	-1.29038	-1.70467
을수록	-0.741064	-0.818659	-0.826691	-1.03057	-0.884166	-0.310418
느라	-0.72242	-0.798064	-0.805893	-1.00465	-0.861923	-1.13866
고자	-1.08573	-1.19941	-1.21118	3.1325	-1.29539	-1.71129
고서	-0.838918	-0.92676	-0.935852	-0.308345	-0.00083831	-1.32228
게되	1.97158	4.52665	-1.76799	0.355422	5.85657	6.04777
고나	-1.16409	-1.28598	-1.29859	-0.381746	4.37691	-0.196897
고말	-1.21582	-1.34313	-1.35631	-1.6908	8.90021	0.697331
고싶	-1.86428	-2.05949	-0.154656	-1.43389	-1.77425	-2.93842
어가	-2.26851	-2.50605	-2.53063	-2.83734	-1.9669	-3.57556
어보	-2.79317	-3.08564	2.0235	-0.790878	2.37449	-4.17496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어오	0.824955	-2.70305	-0.896186	3.95419	1.53815	-3.85664
어주	-3.27304	-3.33895	-3.65122	-4.33171	-3.90507	-5.15885
어하	-1.42583	-1.57513	-1.59058	-1.98286	0.0640849	-2.24735
지말	-1.21554	0.147872	3.07269	1.86384	-1.45026	-0.870171
지못하	-1.67495	-2.74131	-2.76821	0.321296	-1.27018	-2.88676
지않	9.5065	9.31988	3.35154	5.73962	1.15434	2.50818
거나	-1.16817	1.19475	-1.4289	2.94888	6.58789	2.72471
게	1.6294	1.65283	-3.35089	-1.21809	2.62447	5.03073
고	-5.13268	-2.38273	-0.924378	-1.8489	2.1598	-7.31972
나	-0.603867	0.361433	-1.86342	0.279041	-1.64436	-0.163853
는데	-0.954535	1.53424	-1.7857	3.44862	0.0400759	3.45936
니까	-1.42466	2.19792	-2.17085	-2.56617	0.183296	0.532389
다가	-0.501242	-1.9373	0.761547	-0.78408	1.25176	-2.02439
더니	-1.15655	0.289059	-0.514428	-1.60838	-1.37989	-1.82292
더라도	-1.09663	-1.21145	-1.22334	3.07121	1.75185	2.90796
도록	-1.95603	-1.23448	-1.72335	5.37846	-1.90482	-2.75811
든	-0.80095	1.37747	-0.893497	0.684142	-0.955617	-1.26243
듯	-0.79937	-0.404714	-1.64758	-1.56638	-1.19407	-1.89756
려	-1.92391	-2.61361	-2.98155	1.94068	-3.18884	-3.97488
며	0.11857	-0.257481	-0.563285	-1.75772	-2.99358	-1.8749
면	-0.551471	-3.84388	-4.51205	1.0529	-1.07509	7.4632
면서	-2.29078	-2.99752	0.303203	-1.57644	1.3625	-0.937265
므로	1.10115	0.804056	-1.07929	1.63151	-1.15432	1.75959
어	-6.65717	-11.3614	-9.20351	-7.62258	-5.0541	-13.8311
어도	-2.23574	-2.46984	-2.49407	0.111469	1.83564	-0.681213
어서	-3.00649	-1.5479	-4.15011	-2.50187	-3.62573	-2.81102
어야	-3.53274	-3.71655	-4.23499	-1.10669	1.65853	-5.64884
자	2.74419	-2.1296	-2.15049	-2.68085	0.31129	-1.06033
지	7.24228	6.49172	2.14949	5.07015	1.20215	0.709054
지만	-2.23038	4.74009	2.92119	-2.25657	-1.19168	-1.20062

보조용언 및 연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바탕으로 해서 동사들을 분류해 본 결과가 이렇게 의미에 입각한 직관적인 분류와 부분적으로는 일치를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첫째, 위의 조사가 모든 어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결어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연결어미가 어미 일반의 결합 양상을 온전히 대표한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말뭉치의 규모 및 다양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많은 동사들은 대다수 보조용언 및 연결어미 앞에서 출현 빈도 0으로 나타난다. 말뭉치의 규모가 커져서 원리적으로 결합 가능한 동사와 어미,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의 예가 좀 더 확보된다면 더 신뢰할 만한 통계 분석을 할 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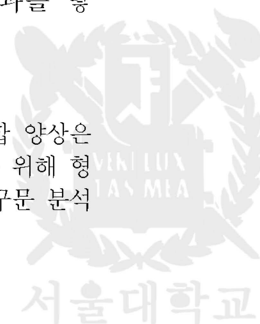
있을 것이다. 셋째, 어미나 보조용언과의 결합 양상은 동사의 중요한 결합 특성 중 기껏해야 반쪽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동사와 그 논항들의 결합 양상이 동사의 결합 특성이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조사에서는 이 측면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47] 이런 한계들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사를 통해 의미의 유사성이 통사적 결합 양상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발현되는 일면을 드러냈다고는 생각한다.

5.2. 보조용언과 어미의 분류

100명의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네 과목 시험을 치렀다고 할 때, 이 네 과목 중 어떤 과목 점수가 높고 어떤 과목 점수가 낮은가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국어 점수가 높은 학생은 영어 점수도 높더라" 또는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은 과학 점수도 높더라" 하는 경향성을 발견함으로써 성격이 유사한 과목들을 한데 묶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 절에서 보조용언 및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토대로 해서 동사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는데, 거꾸로 "A라는 어미와 자주 결합하는 동사는 B라는 어미와도 자주 결합하더라" 하는 식의 경향성을 발견함으로써 성격이 비슷한 어미나 보조용언들을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바로 이 작업을 해 보려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기본 자료는 5.1.의 자료와 완전히 동일하다. 다만 표의 행과 열이 뒤바뀌어 있을 뿐이다. 즉 202개의 동사를 변수로 생각하고 이들 동사와 결합하는 빈도로부터 도출된 Z-score를 각 보조용언 및 어미가 얻은 시험 점수로 생각하고 군집 분석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Euclidean distance를 거리 척도로 하고 average linkage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좀 큰 부류가 형성되면 군소 부류들이 이 큰 부류에 흡수되어 가는 현상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그 다음 페이지의 complete linkage를 사용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맨 아래쪽 부류들은 대동소이하지만 후자의 경우 하나의 데이터 항목이 거대 부류에 흡수되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다. 동사에 대한 군집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omplete linkage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듯하다.

47) 동사와 어미 또는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양상에 비해 동사와 그 논항의 결합 양상은 말뭉치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연구하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전자의 연구를 위해 형태 분석 말뭉치(tagged corpus)로 충분하다면, 후자의 연구를 위해서는 대량의 구문 분석 말뭉치(treebank)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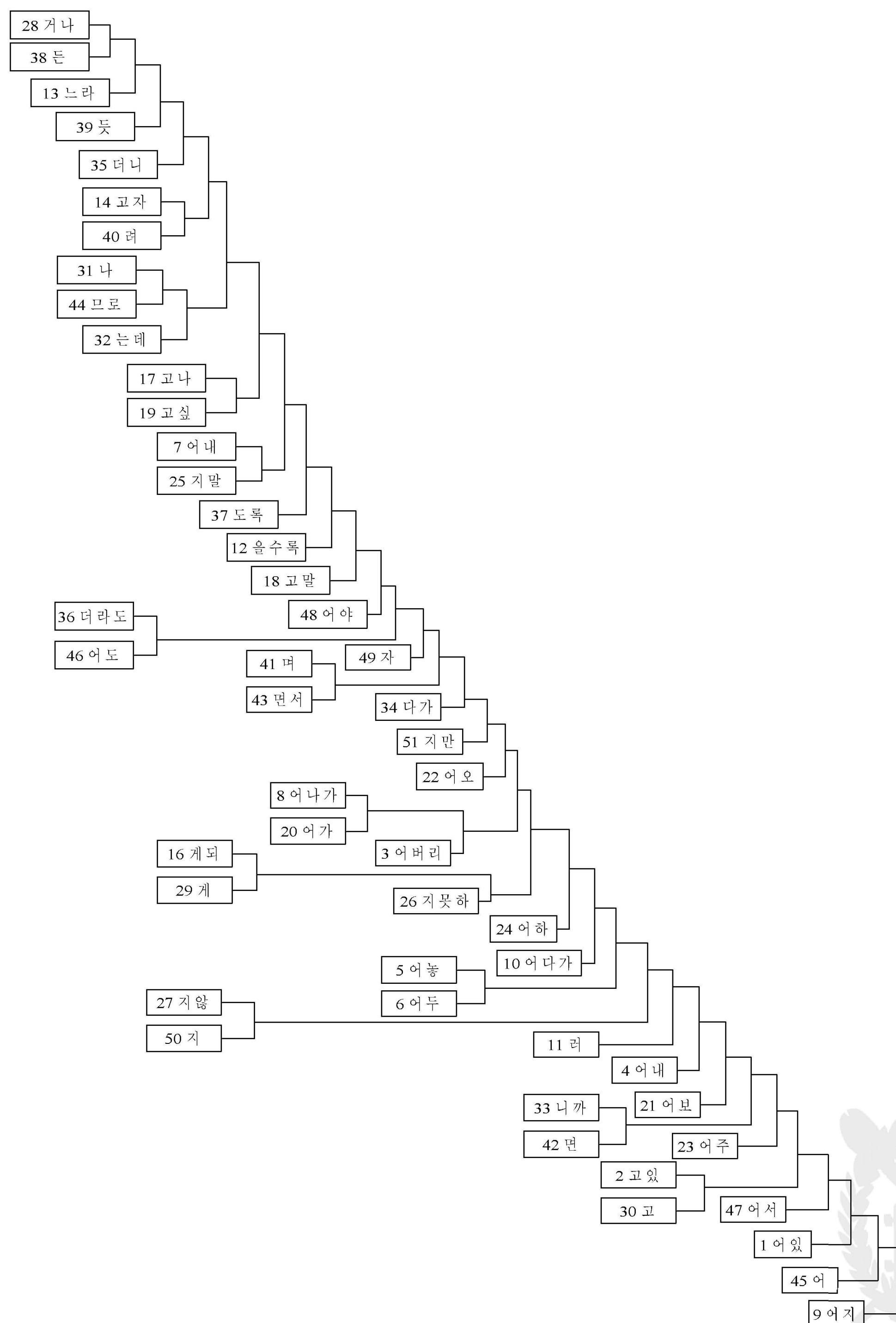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이 결과는 직관적인 분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거나'와 '-든', '-고자'와 '-려', '-더라도'와 '-어도', '-며'와 '-면서', '-게 되-'와 '-게', '-어 버리-'와 '-고 말-', '-어 나가-'와 '-어 가-', '-어 놓'과 '-어 두-', '-지 않-'과 '-지', '-고 있-'과 '-고', '-어'와 '-어서'와 '-어 있-' 등이 한데 묶인 것은 직관적으로도 매우 자연스럽다. 전체적으로 동사의 군집 분석에 비해서 훨씬 더 직관에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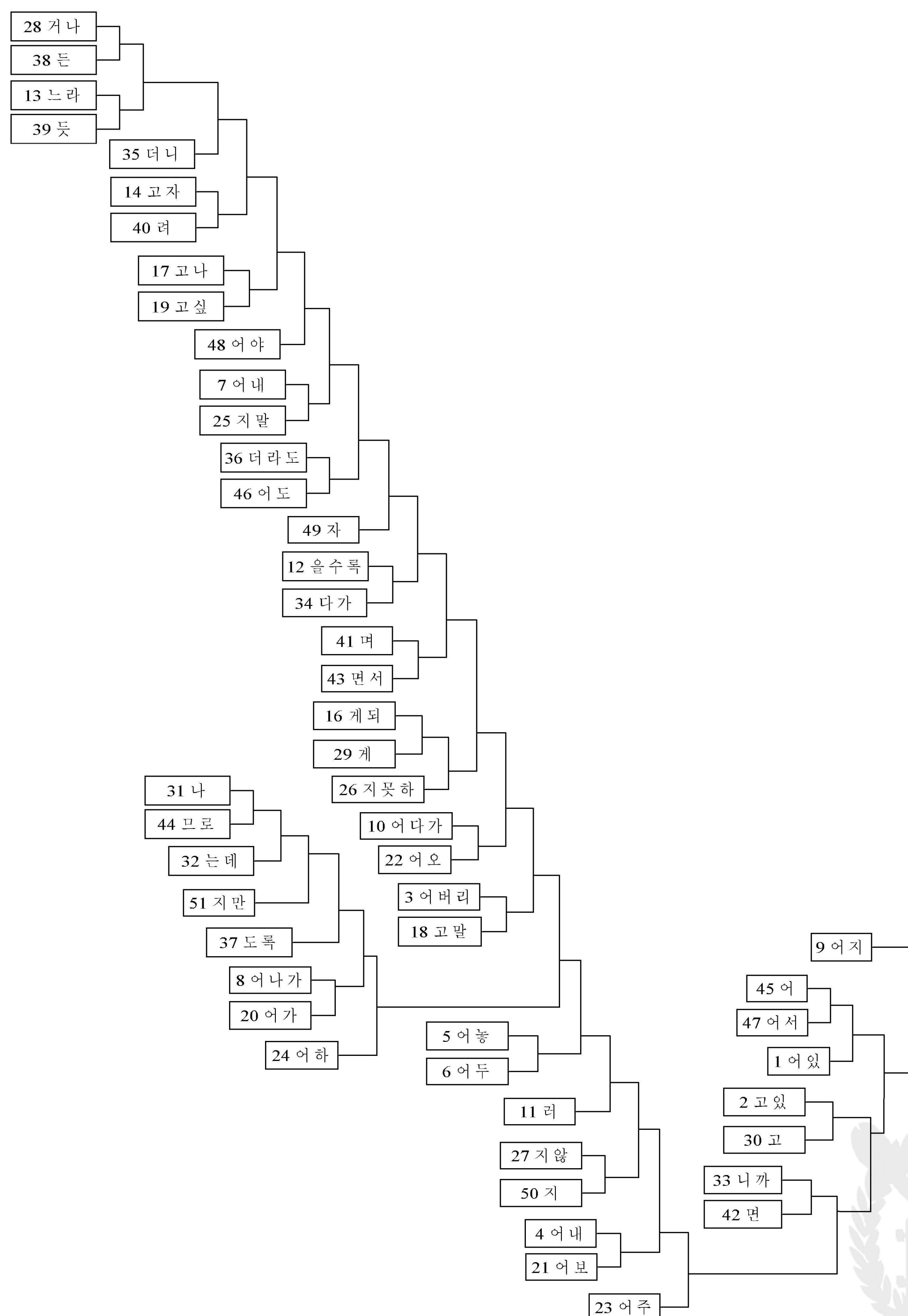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Created With a Trial Copy of SmartDraw
To remove this watermark please purchase a copy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Created With a Trial Copy of SmartDraw
To remove this watermark please purchase a co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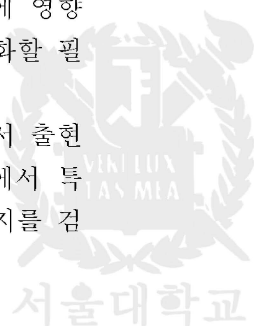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6. 결론

본고는 동사와 어미, 그리고 동사와 보조용언의 결합 양상을 말뭉치에서 계량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이에 대한 통사 기술을 정교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동사와 어미가 결합된다는 것,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보조적 연결어미를 매개로 하여 결합된다는 것은 한국어의 통사 현상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든 동사와 모든 어미가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동사와 모든 보조용언이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기술을 좀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과 무엇이 결합 가능하다" 또는 "결합 불가능하다"는 식의 2분법적 진술은 실제 언어 현실을 정교하게 담아내는 데 부적합하며, 결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결합 가능한 것들 가운데서도 결합의 빈도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고, 말뭉치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말뭉치에 출현한 횟수라는 단순 빈도를 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말뭉치 전체 빈도와 특정 보조용언 또는 어미 앞에서의 빈도를 비교함으로써 통계적으로 더 정확한 분석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 특별히 제약을 많이 보이는 보조용언과 어미를 선정함에 있어 직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일반적인 확률 분포와 특정 보조용언 또는 어미 앞에서의 확률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지표를 얻고자 하였다. 특정 동사와 특정 보조용언 또는 어미가 보이는 흥미로운 결합의 양상 및, 그 결합이 낳는 의미 기능에 대해 기능적 관점, 유형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태 분석된 말뭉치 자체에 태깅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눈에 띄는 대로 수정하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수정하지는 못했고, 특정 보조용언이나 어미 앞에 출현하는 동사의 빈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도 100% 정밀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계 수치에 100%의 정확성을 기할 수는 없었다. 대규모의 말뭉치를 다룰 때 이 정도의 오차는 큰 논지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용인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차후에 좀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말뭉치 전체에서 동사의 총 빈도 대 특정 동사가 말뭉치 전체에서 출현한 횟수의 비율, 그리고 특정 보조용언이나 어미의 출현 빈도 대 이 앞에서 특정 동사가 출현한 횟수의 비율, 이 두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정함에 있어 본고에서는 정규 검정(Z-test)만을 사용했는데, np<5인 경우에는 포아송 분포에 입각한 이항검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는 더 정확하다. 이것이 전체 논지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그리고 작업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는데, 차후에는 통계적으로 더 정밀한 모형 및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 보조용언이나 특정 어미 앞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주 출현한 동사들을 의미 부류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엄밀성이 부족하였다. 기본적으로 의미에 입각하여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의미 연구의 방법론이 아직 거칠기 때문에 정교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동사의 의미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진전되면, 이 분류를 더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하나의 동사가 복수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형태가 같은 동사도 통사적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형태 분석 말뭉치에서는 품사 정보만 달려 있지 동형어 구분이나 다의어의 의미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합 양상에 대한 검토도 그만큼 정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동형어 구분 및 다의 구분을 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언어학적 정보가 부착된 말뭉치가 구축되면 이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결합의 양상을 관찰하는 데 그치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기능적 관점, 유형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매우 부족했다. 상과 관련된 해석은 '-어 있-'과 '-고 있-' 등 문법화의 진척 정도가 높은 일부 보조용언에 대해서만 논의가 집중되었고 나머지 보조용언들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에서의 논의가 부족하였다.

여섯째,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 제약을 많이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연결어미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연결어미 이외의 어미들에까지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5장의 군집 분석이 더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참 고 문 헌

강범모(1999), “빈도와 언어기술”, 언어정보의 탐구 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15-141.

강범모, 김흥규, 허명회(1998),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 및 문체 분석", 언어학 22: 3-57, 서울: 한국언어학회.

강범모, 차준경(1996), 코퍼스, 파생어, 생산성, 인지과학 7.2., 한국인지과학회, 21-37.

고영근(1980), “국어 진행상 형태의 처소론적 해석”, 어학연구 16.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41-55.

고영진(1995), “으뜸풀이시의 도움풀이씨 되기에 대하여: 국어 문법화의 한 과정으로서”, 연세어문학 27,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49-179.

권재일(1986a), “의존동사의 문법적 성격”, 한글 194, 한글학회, 97-120.

권재일(1986b),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복합문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15, 국어학회, 195-215.

김기혁(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기혁(1991), “형태·통어적 구성과 중간 범주”, 동방학지 71·7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33-258.

김동식(1984), “동사 ‘되다’의 연구”, 국어국문학 92, 국어국문학회, 395-420.

김석득(1986), “도움풀이씨의 형태·통어론적 차원: 도움그림씨의 체계 재설립을 위하여”, 말 1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33-64

김성화(1992), 국어의 상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김승곤(1978), “상태 지속 연결 어미 {아}에 대하여”, 눈뫼 허웅 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109-126.

김영희(1993), “의존 동사 구문의 통사 표상”, 국어학 23, 국어학회, 159-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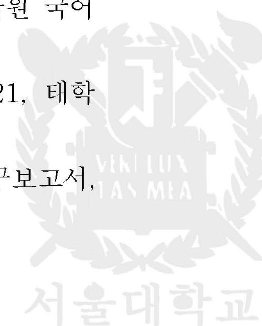
김용석(1983), “한국어 보조동사 연구”, 배달말 8, 배달말학회, 1-33.

김우철 외(1988), 현대통계학(재개정판), 서울: 영지문화사.

김창섭(1981), “현대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 4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회 국어학총서 21, 태학사.

김흥규, 강범모 외(1999), 21세기 세종계획 기초 자료 구축 2차년도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김흥규, 강범모 외(2000), 21세기 세종계획 기초 자료 구축 3차년도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김흥규, 강범모 외(2001), 21세기 세종계획 기초 자료 구축 4차년도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김흥수(1983), "'싶다'의 통사·의미특성",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57-190.

남미혜(1996), 국어의 연속 동사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시종(1995),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연구: 원형이론적 접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목정수(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 서울: 한국언어학회.

민현식(1993), "현대국어 보조용언 처리의 재검토", 어문논집 3,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3-97.

박덕유(1998), 國語의 動詞相 硏究, 서울: 한국문화사.

박양규(1987), "'보내오다'류의 유표적 복합동사들", 국어학 16, 국어학회, 459-486.

박진호(1994), "중세국어의 피동적 '-어 잇-' 구문", 주시경학보 13, 서울: 탑출판사.

박진호(1995), "논항 공유 현상의 유형론과 통시론",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

서정수(1971), "국어의 용언 어미 {-어(서)}: 변형·생성 문법적 분석",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한글학회, 201-228.

서정수(1994), 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나무.

성낙수(1987), "이른바 도움그림씨 '싶다'의 연구", 한글 196, 한글학회, 237-250.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송상목(1985), "현대국어의 조동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안명철(1990), "보조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주제별 국어학 연구사, 동아출판사, 319-330.

엄정호(1990), 종결어미와 보조동사의 통합구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형식(1986), "지각동사 '보다'의 경험과 추정", 연세어문학 19,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1-52.

이관규(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이기동(1977), "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 분석", 말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39-159.

이기동(1978a), "조동사 '있다'의 의미 연구", 눈뫼 허웅 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359-387.

이기동(1978b), "조동사 '지다'의 의미 연구", 한글 161, 한글학회, 29-61.

이기동(1979a), "조동사 '놓다'의 의미 연구", 한글 163, 한글학회, 49-80.

이기동(1979b), "'주다'의 문법", 한글 166, 한글학회, 3-31.

이기동(1988), "조동사 '보다'의 의미", 애산학보 6, 애산학회, 121-147.

이남순(1987), "'에', '에서'와 '-어 있(다)', '-고 있(다)'", 국어학 16, 국어학회, 567-595.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국어연구 133,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이시형(1990), 한국어의 연결어미 '-어', '-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정택(1987), "도움풀이씨에 대한 연구: '-고'와 공존하는 도움풀이씨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해영(1992), "보조동사 구문의 통사적 특성", 국어국문학 108, 국어국문학회, 187-207.

이희자, 이종희(1999), 사전식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말뭉치 기반 국어 연구 총서 5), 서울: 한국문화사.

임근석(2002), 현대 국어의 어휘적 연어 연구, 國語硏究 167, 서울: 國語硏究會.

임홍빈(1975) "不定法 {어}와 狀態陳述의 {고}", 논문집 8, 국민대학교, 13-36.

임홍빈, 송철의(1998), "어절 분석 표지 표준안 연구", 21세기 세종계획 기초 자료 구축 분과 연구보고서.

임홍빈 외(2002), 국어 문법 현상의 계량적 연구(컴퓨터와 인문학 총서 6),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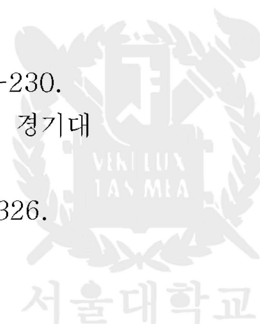
전수태(1984), "진술 미완의 {-아}와 진술 완료의 {-고}: 어미 {-아}와 {-고}의 의미론", 한글 185, 한글학회, 67-87.

정순기(1988), 조선어의 보조적 단어에 대한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정태구(1994), "'-어 있다'의 의미와 논항구조", 국어학 24, 국어학회, 203-230.

차현실(1983), "보조용언의 인식양상 Ⅰ: '보다'의 통사와 의미에 대하여", 경기대학 논문집 13, 인문과학편, 39-59.

차현실(1984), "'싶다'의 의미와 통사구조", 언어 9.2., 한국언어학회, 305-326.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차현실(1986), “양상술어(modal predicate)의 통사와 의미: 미확인 양상술어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8,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1-34.

최현배(1980), 우리말본(여덟번째 고침), 서울: 정음사.

최현숙(1988a),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A Transformational Approach*, Ph.D. dissertation, MIT.

최현숙(1988b), Restructuring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4.4.,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05-538.

허철구(1990), “국어 보조 동사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호광수(1997), “보조용언 ‘보다’ 구성의 주어 실현 양상”, 인문과학연구 19,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5-166.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홍재성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두산동아.

홍재성(2002예정), “한국어의 동사”, 새국어생활,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홍종선, 강범모, 최호철(2000), “한국어 연어(collocation) 정보의 분석, 응용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11, 한국어학회, 73-158.

황병순(1989), “감각동사 ‘보다’와 행위동사 ‘보다’”,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89-106.

Aijmer, K. and B. Altenberg(eds.)(1991), *English Corpus Linguistics: Studies in Honour of Jan Svartvik*, Longman.

Baayen, R. H.(2001), *Word Frequency Distribution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Biber, D., S. Conrad, and R. Reppen(1998),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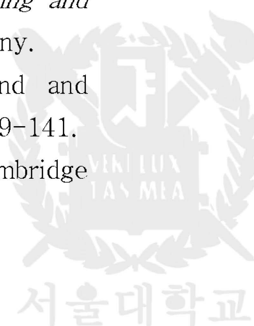
Binnick, R. I.(2001), Temporality and Aspectuality, In M. Haspelmath et al.(ed.), 557-567.

Bisang, W.(1998), Adverbiality: The View from the Far East, In J. van der Auwera(1998b), 641-812.

Bybee, J.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Bybee, J. L.(1988), Morphology as Lexical Organization, In Hammond and Noonan (eds.), *Theoretical Morphology*, The Academic Press, 119-141.

Bybee, J. L.(2001), *Phonology and Language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Bybee, J. L. and Ö. Dahl(1989), The Creation of Tense and Aspect Systems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Studies in Language* 13: 51-103.

Bybee, J. L., R. Perkins, and W.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ybee, J. L. and P. Hopper(eds.)(2001), *Frequency and the Emergence of Linguistic Structur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Chomsky, N.(1988), *Language and Problems of Knowledge: The Managua Lectur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Comrie, B.(1976),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mrie, B.(1995), Tense and Aspect, In J. Jacobs et al.(eds.),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244-51.

Comrie, B.(2001), Some Thoughts on the Relation between Aspect and Aktionsart, In A. Barentsen and Y. Poupynin(eds.), *Functional Grammar: Aspect and Aspectuality, Tense and Temporality*, München-Newcastle: Lincom Europa, 43-50.

Dahl, Ö.(1985), *Tense and Aspect Systems*, Oxford/New York: Basil Blackwell.

Dahl, Ö.(2000), The tense-aspect systems of European languages in a typological perspective, In Dahl, Ö.(ed.), *Tense and Aspect in the Languages of Europe*, 3-25.

Dahl, Ö.(ed.)(2000), *Tense and Aspect in the Languages of Europe*,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Delancey, S.(in preparation), Lectures on Functional Syntax, University of Oregon. (http://www.uoregon.edu/~delancey/sb/fs.html)

Garside, R., G. Leech and G. Sampson(eds.)(1987), *The Computational Analysis of English: A Corpus-based Approach*, London: Longman.

Garside, R., G. Leech and A. McEnery(eds.)(1997), *Corpus Annotation: Linguistic Information from Computer Text Corpora*. London: Longman.

Gould, S. J. and E. S. Vrba(1982), Exaptation: A Missing Term in the Science of Form, *Paleobiology* 8: 4-15.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Hair, Jr., J. F., et al.(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Haspelmath, M.(2000), Coordination, In, T. Shopen(ed.), *Syntactic Typology and Linguistic Description*,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spelmath, M.(2002), On Directionality in Language Chang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Grammaticalization, In O. Fischer et ak.(eds.), *New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aspelmath M. et al.(eds.)(2001),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2 volume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Hurford, J.(1990), Nativist and Functional Explanations in Language Acquisition, In I. M. Roca(ed.), *Logical Issues in Language Acquisition*, Dordrecht: Foris, 85-136.

Jackendoff, R.(1983), *Semantics and Cognition*.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Jackendoff, R.(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Jackendoff, R.(2002), *Foundations of Language: Brain, Meaning, Grammar, Evolution*,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iefer, F.(1998), Les Substantifs Déverbaux Événementiels, *Langages* 131, Paris: Larousse, 56-63.

Kirby, S.(1999), *Function, Selection, and Innateness: The Emergence of Language Universa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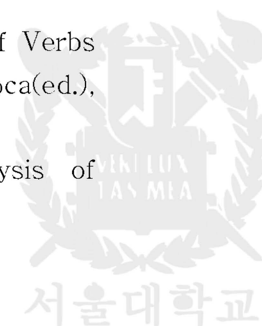
Levin, B.(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vin, B. and S. Pinker(1991),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of Cognition on Lexical and Conceptual Semantics, *Cognition* 41: 1-7.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1991), Wiping the Slate Clean: A Lexical Semantic Exploration, *Cognition* 41: 123-151.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1992), The Lexical Semantics of Verbs of Motion: The Perspective from Unaccusativity, In I. M. Roca(ed.), 247-269.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1994), A Preliminary Analysis of Causative Verbs in English, *Lingua* 92: 35-77.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1996), Lexical Semantics and Syntactic Structure, In S. Lappin(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Basil Blackwell.

Lindstedt, J.(2000), The Perfect: Aspectual, Temporal and Evidential, In Dahl, Ö.(ed.), *Tense and Aspect in the Languages of Europe*, 365-383.

Lyons, J.(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nning, C. D. and H. Schütze(1999), *Foundations of Statistical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ambridge: The MIT Press.

Mel'čuk, I. A. and N. Pertsov(1987), *Surface Syntax of English: A Formal Model within the Meaning-Text Framework*,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Nedjalkov, I. V.(1998), Converbs in the Languages of Europe, In J. van der Auwera(ed.),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421-455.

Nedjalkov, V. P.(ed.)(1983/1988), *Typolog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Nedjalkov, V. P.(2001),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M. Haspelmath et al.(ed.), 928-940.

Nedjalkov, V. P. and S. Je. Jaxontov(1988), The Typolog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V. P. Nedjalkov(ed.), 3-62.

Newmeyer, F.(1998), *Language Form and Language Function*,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Piattelli-Palmerini, M.(1989), Evolution, Selection and Cognition: From "Learning" to Parameter Setting in Biology and the Study of Language, *Cognition* 31: 1-44.

Pinker, S.(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Pinker, S.(1994), *The Language Instinct*, New York: Harper Collins.

Pinker, S. and P. Bloom(1990), Natural Language and Natural Selec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3: 707-84.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Ramstedt, G. J.(1903), *Über die Konjugation des Khalkha-Mongolischen*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19.), Helsingfors.

Roca, I. M.(1992), *Thematic Structure: Its Role in Grammar*,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Sharma, S.(1996), *Applied Multivariate Techniqu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Sinclair, J.(1991), *Corpus, Concordance and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mith, C.(1991),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Tikkanen, B.(2001), Converbs, In M. Haspelmath et al.(ed.), 1112-1123.

Uriagereka, J.(1998), *Rhyme and Reason: An Introduction to Minimalist Syntax*,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van der Aura, J.(1998a), Defining Converbs, In L. Kulikov and H. Vater (ed.), *Typology of Verbal Categories*,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273-282.

van der Auwera, J.(ed.)(1998b),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Verkuyl, H. J.(1989), Aspectual Classes and Aspectual Composi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39-94.

Verkuyl, H. J.(1993), *A Theory of Aspectuality: The Interaction between Temporal and Atemporal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Xrakovskij, V. S.(1997), Semantic Types of the Plurality of Situations and Their Natural Classification, In V. S. Xrakovskij(ed.)(1997), 3-64.

Xrakovskij, V. S.(ed.)(1997), *Typology of Iterative Constructions*, München / Newcastle: Lincom Europa.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03/02/19 07:39:42

<Abstract>

Combinatorial Patterns of Verbs and Grammatical Elements in Korean

Park, Jin-ho

This paper studies combinatorial patterns of verbs and grammatical elements in Korean, bearing in mind the ultimate aim of the elaboration of syntactic descriptions. This study focuses on auxiliaries and clause-connecting endings among grammatical elements which can combine with verbs.

In chapter 2, I point out limitations and problems of previous syntactic studies, and suggest the research directions which should be take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 chapter 3, I examine combinatorial patterns of verbs and auxiliaries, based on statistical data from corpus, and discuss these patterns and meanings of auxiliaries from a typological point of view. In chapter 4, I examine combinatorial patterns of verbs and clause-connecting endings, using the same methods and premises as chapter 3.

In chapter 5, I try a classification of verbs and grammatical elements, using corpus frequency data. For this classification, I use cluster analysis, which is one of multi-dimensional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In chapter 6, I point out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reby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combinatorial constraint, auxiliary, clause-connecting ending, corpus, frequency, typology, aspect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